朝鮮日報 夕刊 三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事件解決條件으로 總領事館開館承認

日本側은既得權을逆用한다고 中國側態度에不滿

【上海二日發同盟】成都事件解決에對한 日本側의 正式要求를 압두고 國民政府는 張外交部長代理로 亞洲司長高宗武氏를 上海에 派遣하고 他方 行政院長代理孔祥熙氏其他로부터 同樣으로 成都事件解決의 日本側要求緩和의 側面的折衝을 行케하고 잇는데 國民政府는 今後一定期間(一個月이라고한다)을經過한 期間에 成都日本總領事館을 再開시킬것을 事件解決의 最大限度로하야 日本側에 內示하엿다 이에對하야 駐中當局은 成都日本總領事館開館은 日本側의 旣得權益이므로 今次의 事件과는別個로 即時實行할 方針인데 中國側이 當然한 權利를 逆用하야 事件解決의 條件으로하려는 不誠意를 詰難하엿다 그런데 國府는 日本이 要求하는

一、全面的排日取締의 保障이될 具體的諸要求

二、國民黨의 機能에 對한 重大한 警約은 極力拒否할것이란 意旨로 日本側이 가장 强硬한 決意로써 迅速한 交涉을 行치안흐면 或은 事件은 中國側一流의 遷延策에 陷할 憂慮가 만타고한다 (寫眞은 張群氏)

須磨雨宮兩氏 重大覺悟促進

國府諒解運動에奔忙

【南京二日發同盟】須磨南京總領事는 二日午後三時半 張群外交部長의 懇望으로 再次 外交部를 訪問하고 外交部政務次長徐謨氏와 會見하엿는데 徐謨氏는 成都事件에關한 中國側의 調査報告를 基礎로 事件勃發에 對한 應急措處를 詳細說明하야 諒解를 求하고 寬容을 懇望하얏스므로 須磨總領事는 如斯한 傾向을 一蹴하는同時에 거듭 事件의 重大性을 强調하야 中國側의 覺悟를 促하고 午後四時半 辭去하엿다 그리고 雨宮南京駐在武官도 二日午前十一時 外交部에 常務次長陳介氏를 訪問하고 同樣으로 中國側의 決意를 促하엿는데 國民政府는 日本側의 强硬態度에 唐惶하야 專혀 陳辯에 努力하는一方 事件의 重大性을 緩和하려고 此機에 臨하야 諒解運動에 狂奔하고잇다

第三艦隊配備狀況

【東京電話同盟】成都事件의 重大性에 鑑하야 海軍當局으로의 待機命令에 接한 第三艦隊司令官及川中將은 警備巡航次 旗艦出雲에 坐乘、旅順에 在泊中이던바 右命을 밧고 곳 旅順拔錨、上海에 急行、任務에 就한바 三日海軍省入電이 잇섯다 그리고 長江側及中國沿岸警備의 任에잇는 第三艦隊艦艇의 全配備狀況은 如左하다

◀上海 出雲(第三艦隊旗艦、及川司令長官岩村參謀長坐乘) 安宅(第十一戰隊旗艦、日比野司令官坐乘) 熱海、蓮
◀南京 梅
◀九江 鳥羽
◀漢口 堅田
◀長沙 二見
◀宜昌 瀨田
◀重慶 保津、比良
◀福州 球磨 夕張(第五水雷戰隊司令官坐乘)
◀汕頭 若竹 早苗 吳竹 扶桑
◀廈門 嵯峨

白頭山探險記

白頭山石磨刀盡 豆滿江水飮馬無

⑬ 徐椿

渡江以後, 우리一行이 只今걸어가고 잇는 이地帶는 말하면 稀林地帶요,花園이오,沼池地帶다。豆滿江을 左便으로 끼고 드러가는데, 越便 朝鮮쪽의 諸山도 亦是, 落葉松, 白樺樹의 混合林이 茂盛하야 一幅의 그림가치 보인다。아모리 보아도 俗人의 발이 부칠데가 아니요, 仙境가치 보인다。

한 三十里쯤 드러가서 豆滿江左岸, 比較的濕氣가 적은 풀밧을 擇하야 點心을 먹기로 햇다。아츰부터 繼續하는 細雨를 마즈면서 四五時間을 두고 물바닥, 풀숩거리를 걸어온 우리一行은 따리도 疲困하거니와 第一로 치위에 몸이 떨닌다。떨니는 몸에 찬물을 마시어가면서 찬밥을 먹는것은 氣막히는 일이다。그러나 이런 山中에서는 別數업시 요만한 困難은 이것을 堪耐할수밧게 업는것이다。

술(酒)은 달리도 必要한때가 만커니와 더구나 치운 高山地帶에서는 携帶用暖爐로 代用되는것이다。이때 우리一行가온데는 水筒에 너어가지고 온 우이스키 또는 燒酒를 가지고 치운 몸을 노키는 사람이 相當히 만헛다。여럿이 둘러서서 나도 한盞, 나도 한盞하야 몸노키기를 다툴때에 메운 술 못먹는이가 잇서 부듯부듯 떨고잇는 光景은 同情이 가리만치 可矜해 보이엿다。이런 때에는 술 못 먹는것이 자랑이 아니라, 苦痛이 되며, 술 잘 먹는것은 흠이 아니라, 萬人羨望의 標的이 되는것이엇다。白頭山은 景致로 보아도 別有天地어니와 이 한點으로 보아도 人間이 아니라는 생각이 自然 이러날수 밧게 업섯다。

忽然, 이 자리에는 물이라고는 豆滿江水밧게 업섯다。손발을 씨서도 豆滿江水로 씻고、그릇을 씨서도 豆滿江水로 씨섯다。一行中에는 史上에 有名한 豆滿江水를 紀念삼아 배에 라도 잡어너어 보겟다는 생각으로 데워서 너어 가지고 온 水筒人물 대신에 豆滿江水를 일부러 먹는사람도 잇섯다。

白頭山石은 磨刀盡이오、豆滿江水는 飮馬無라는 一句는 有名한 南怡將軍의 詩다。昔日가트면 말먹고 남은 물만이 메방울 흘넛스나、南怡 간後에 말이 이물을 먹지 안흔지가 이미 오랜지라、今日、말못가진 그子孫이 와서 말대신 먹어주는것을 無心한 豆滿江도 한갓 섭섭히 녀기는 反面으로 반가히 녀기는듯도하엿다。

◀飮馬豆滿江 其一

白頭山 돌을보니 칼생각 절로나고
豆滿江 물을보니 녯님이 그리워라。
돌도녜젼 그돌이오 물도녜젼 그물인데
녯님은 어듸가고 자취만 남엇느냐
물이本來 말이업고 돌이亦是 잠잠하니
古往今來 多少事를 무러 무삼하리요。

◀飮馬豆滿江 其二

白頭山돌 매끈하니 칼가ㅣ든 痕跡인가
豆滿江뚝 반반하니 말매인 자최인가
南將軍 이미가고 江山이 말업스니
녯모양 그리워도 차저볼길 바이업다。
칼대신 손씻고 말대신 목축이니
저물도 어엿비보아 울며울며 하더랑。

◀飮馬豆滿江 其三

白頭山 남은물에 이끼끼지 멧대이며
다시흐른 豆滿江을 말못보지 얼마런가
사람도 적지안코 땅마저 넓것마는
녯님한번 가신뒤론 丈夫다시 업단말가
以後란 수물前 아희보거든 누가 큰가 무러랑。

一行은 約한時間동안에 點心을 마치고 다시 行軍을 繼續햇다。얼마 아니가다가 豆滿江을 다시 건너서 朝鮮땅으로 드러섯다。발서 沼池地帶이면서 兼하야 稀林地帶인 地域은 다지내고 江을 건너면서부터는 정작 落葉松, 白樺樹의 千樹萬枝이 빽빽히 드러선 千里天坪의 密林地帶로 드러섯다。그속으로 사람이 걸어가는것은 마치 개미(蟻)가 삼밧(麻田)을 지내는셈이다。나무는 가지와 가지와가 서로 마조대여서 우를 덥허 하늘이 뵈도보이지 안홀 地境이다。그래도 繼續해 오는 비는 흠흠이 새여나려 옷을 적신다。密林의 밋바닥을 덥흔 奇花妖草의 大草原은 이미 지낸 沼池地帶(兼하야 稀林地帶)와 다름업시 絢爛히 繼續한다。

◀千里天坪

白頭山 東便기슭 平坦한 높은들에
나무가득 드러서니 千里天坪 여기로다
이깔나무 벗나무는 구름다코 소사잇고
밋헤깔린 大草原엔 千紫萬紅 爛漫하다
잇다금 長風이 부러 松籟 울녀올때면 仙樂인가 십더라。

午後네시頃하야 비는 멋고、同五時頃에 우리一行은 第一次露營地茂峰에 到着햇다。(寫眞은 千里天坪의 大密林‥繼續)

英의超過保有에 日本側回答手交

日本도二萬五千噸保有

英의驅逐艦超過噸數四萬噸은諒解하나

【倫敦二日發同盟】倫敦駐箚日本大使館書記官藤谷雄氏는 二日正午 英國外務省에 콜비書記官을 訪問하고 十分間에 亘하야 會見하엿다 席上에서 藤谷書記官은 英國政府의 에스카레러條項에 基한 驅逐艦超過噸數保有要求에 對하야 八月二十一日附日本政府의 回答通牒을 手交하엿는데 同時에 크레기參事官이 休暇로부터 歸任하야 吉田大使와會見할수잇도록 미리 協議하얏다 右日本政府回答은 簡潔하야 約一枚로 英國政府의 驅逐艦保有에 對抗하야 潛水艦超過噸數를 保有하려는것이다

回答文에서 英國政府가 호킨스級巡洋艦改裝의 提議에 一切不觸하엿다 日本政府는 右改裝이 條約違反이라는것을 認定하면서 이點에 不觸한것은 자못妙味잇는 것이라고 보고잇다 左右間 吉田大使크레기參事官의 私的會談으로 漸次 諒解에 達할수잇스리라고 消息通은 보고잇다 그런데 英國政府도 日本潛水艦에 對해서는 不得已하다고 보고잇다 日本政府의 回答要旨는 如左한것이라고 解釋된다

一、日本政府는 英國政府의 驅逐艦超過噸數 四萬噸保有에 對해서는 諒解한다

一、그러면 日本政府도 驅逐艦超過噸數一萬噸 潛水艦超過噸數一萬五千六百噸 合計二萬五千六百噸을 保有하겟다 日本政府는 驅逐艦超過噸數가 적기때문에 右와如히 潛水艦保有를 要求한다

保有噸數通告에 英國側은好意的

【倫敦二日發同盟】日本政府는 英國政府의 驅逐艦超過噸數保有要求에 對한回答으로 日本도 驅逐艦一萬噸 潛水艦一萬五千噸의 超過噸數保有를 通告한데 對하야 英國當局은 緘口不言하나 一般으로는 大體好意로써 그本質에잇서서 日本의要求는 公正한바이므로 英國政府도 이를 拒否할수업슬것이다 그리고 日本의 潛水艦保有에 對하야 英國政府는 에스카레러條項을 援用할는지도 모르나 潛水艦에對해서는 超過噸數保有로써 나갈것이 아닌가 觀測되고잇다

米當局의意向

【華盛頓二日發同盟】驅逐艦及潛水艦의 超過噸數保有에 對한日本政府의 通牒에對하야는 米海軍省은 別로 놀라지안흐나 英米兩國政府보다 潛水艦의 超過噸數를 保有하리라는 見解를示하고잇다 當局의 意向을 要約하면 如左하다

一、日本政府의 潛水艦超過噸數保有는 英國政府의 驅逐艦超過噸數保有를 承認한데서 이미 豫想되엇던것이다 日本政府는 이미 消滅된 海軍條約에 依해서 現有驅逐艦을 保有하기 될 潛水艦에 關한것을 提案한것이나 現行條約의 失效를 目前에 두고 日本政府의要求는 如此히 實際的이라할수잇다

一、그러나 日本政府의潛水艦保有에 對하야 英米兩國도 對抗上 一九三七年一月一日까지에 廢棄되는 限定의潛水艦超過噸數를 保有하게되면 米政府의 立場으로말하면 米國으로서는 數的으로는 最大潛水艦保有國이나 大部分老朽艦으로 日英兩國의現有潛水艦과 對抗할수 업스므로 이點에 무슨對策을 講究할必要가잇다

英政府閣議開催 時局對策協議

現下重大情勢에鑑해

【倫敦二日發同盟】英國政府는 二日午前 首相官邸에서 閣議를開催하고 볼드윈首相司會下에 現下의 重大情勢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閣議는 前後四時間에 亘하야 자못緊張하엿다는데 로카르노條約會議 西班牙內亂不干涉案 聯盟規約改正問題 等 刻下의重要問題에對하야 英國政府의 根本方針을 大略決定한것으로 보인다 閣議決定內容이라고 解釋되는바는 如左하다

一、로카르노條約會議開催에압서 英 佛 白三國政府間에 豫備的交涉을 遂할이 如何하냐하는 意見도잇스나 西班牙內亂의 結着되지안는 限 豫備的 折衝을 遂하더라도 實效는 期待할수업다

一、西班牙內亂不干涉調整委員會案에 對한 獨逸政府의 眞意는 아직 判明되지안흐나 刻下의 情勢에 鑑하야 至急獨逸政府의 意向을 무를것

一、聯盟規約改正案에 關해서는 獨逸政府의 意向이 判明되지 안코 또歐洲政局의 諸懸案이 解決되지안는限 論議는 無駄이다 따라서 來聯盟總會에는 改正案은 提出치안는다

一、팔스타인地方의 猶太人 아라비아 兩民族鬪爭에 關하야 아라비아人이 暴力壓迫을 쓰는限 斷然 讓步할수업다 調査委員會에는 現地의 治安이 回復되고 武力行爲가 終止된 境遇에만 派遣할것

또 英國人의 西班牙內亂參加阻止策에 關하야 協議한結果 近近 適當한 方策을 講究키로決定하얏다

叛軍總攻擊에 이룬危機一髮

【베르비아ㄴ二日發同盟】政府軍의 咽喉 이룬을 奪取目標로作戰을 考究하고잇던 叛軍北軍은 드듸어 二日正午부터 總攻擊을 開始하야 午後零時四十五分砲兵步兵及 機械化部隊의 全精銳를動員하야 이룬市의 前衛陣地 드리알山에向한 猛烈한 砲擊을 하야 激戰一時間十五分後 午後二時에는 政府軍은 山頂에서 退却하고 叛軍은 山頂에 黃赤의 王旗旗를 揭하엿다 叛軍은 午後五時三十分 라로사市를 占據하엿스므로 政府軍最後의 據點 산·마르샬市의 要塞로向하야 砲火를 集注하고 政府軍도 死力을다하야 應戰하엿스나 午後六時三十五分마츰내 退却할수밧게 업시되엇다 叛軍은 다시 산·마르샬市의 要塞로부터 國境橋비리츠소네에 至하는 高地에 點在한 政府軍을 各個擊破하면서 이룬市의 南方을 占하고 政府軍은 最後의 猛攻擊으로 午後八時十分 前衛陣地를 버리고 이룬市에 撤退하엿스나 政府軍도 必死의 抗戰을 繼續하엿다 政府軍이 모다 死傷者中에는 佛、獨、伊、白各國義勇兵多數가 發見되엇다고한다

獨逸에對抗해 佛、兵役年限延長

體育訓練校도創設

【巴里二日發同盟】佛國政府는 獨逸政府의 兵役年限延長에 對하야 極度로 神經을 날카롭게하고 잇는데 結局 이에對抗하야 兵役年限을 現在의 一個年으로부터 二個年으로 延長할 方針이라고 解釋된다 政府는 다시이와 併行하야 體育訓練學校를 創設하야 靑年子弟를 收容하고 兵役服務前의 準備訓練에 當케할意向이다 (寫眞은 달라디에國防相)

濠洲具體案提出 村井總領事請訓

【칸베라二日發同盟】日濠通商은 二十八日 村井시드니總領事와 가래트通商相間에 交涉을 再開하얏는데 二日의 會談에서 가래트通商相은 日濠間의 通商紛糾解決에關한 濠洲政府의 具體案을 提出하고 可及的 速히解決을 要望하엿다 右에對하야村井시드니總領事는 곳本國政府에 請訓하겟다고 述하고 會談을終了하얏다 濠洲政府의 提案內容은 아직 發表되지안헛스나 日本綿布及人絹의 輸入量에 關하야 若干의 緩和를 施한것이라 고 解한다 同提案에對하야 日本政府의 回答은 對日中에到着 할것으로 期待된다

伊太利大不滿 佛의軍需品密輸에

【羅馬二日發同盟】佛國政府는 西班牙內亂不干涉을 提唱하면서 佛國으로부터 西班牙에 對하야 繼續 軍需品이 密輸되고잇다는 報道에 伊太利政府當局은 極度로 不滿한模樣인데 今後 情勢가 如何히 展開되는냐에 依하야 伊太利政府로서도 行動의 自由를 表明하엿는데 當局은 二日午後如左히 말하엿다 佛國政府는 西班牙內亂不干涉에 努力하고잇는것은 認하나 政府의 눈을속이고 民主主義國으로부터 武器密輸가 今後도 系統的으로 繼續된다면 關係各國政府가 行動의 自由를 回復하게될것은 當然하다고 생각한다

大田事務官上海發

【上海二日發同盟】中南中總領事會議에 出席한 大田外務事務官은 二日午前九時出帆 上海丸으로 歸國途上에올랏는데 同氏는 歸任後 成都事件의 現地情況을 詳細報告할터이다

人事·集會

◀姜日永氏(醫學博士)仁寺町一三七番地에서 開業人事次 三日來社

不干涉調整會設置는不必要

獨逸政府參加拒絶

【倫敦二日發同盟】西班牙內亂不干涉調整委員會設置案에 關하야 獨逸政府는 依然 難色을 示하고 如左히 回答하엿다고한다

一、英國政府가 調整監督의 任務에 當하는것이 適當하다고 思惟한다

一、따라서 不干涉調整委員會設置는 不必要하다고 思惟한다

右回答에 接하야 英國政府는 即時 佛國政府와 協力하야 거듭 獨逸政府의 交涉을 要請하기로 決定하고 二日 午後 新訓令을 通達하엿다

外務省大異動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은 人事刷新을爲하야 目下 駐外大公使를歸國케하고 이後任에 關하야 愼重銓考中인데 이와同時에 高等官三等課長級의 異動을 行하야 內外外交機關에 淸新의 氣風을 注入하기로되어 이方針을 包含시켜 左의人事異動을 近日中에發令하기로되엇다

(北平)一等書記官 武藤義雄
任文書課長兼翻譯課長 情報部第二課長
任同部第三課長 田代重德
第二課長
任情報部第二課長 本野盛一
東亞局第三課長
任大使館一等書記官 柳井恒夫
命獨逸在勤
同第三課
命東亞局第三課長事務取扱 情報部第五課長 加藤傳次郎
任大使館一等書記官 北澤貞吉
命中華民國在勤(北平)

또 目下 歸國中인 獨逸大使館一等書記官壽島守人氏는、駐中大使館參事官候補에 擁薦되고잇스나 오랫동안奉天、哈爾濱總領事에 歷任하고 北鐵交涉에 際하야 相當한 役割을하엿스며 獨逸在任의經驗에서 歐洲政局의 現狀에 鑑하더라도 蘇聯大使館參事官이 가장 適任이라고하므로 結局大使館一等書記官으로 莫斯科在勤의 酒勻現參事官의 公使轉出을 기다려 新任될것으로 보인다 또 軍縮問題로 特히 設置된 歐亞局分室의 加藤課長은 中國에 轉出後 南洋課를 新設하야 軍縮事務는 歐亞局第二課로 옮기고 過去二年半에 亘한 重大役割을한 分室도解消하기로되엇다

八面錄

◇五千의生命이 死傷하고 六十六萬의罹災民이 衣食住를일코 彷徨한다。

◇乙丑年水災보다도 甲寅年風災보다도 이번의災害는 記錄的으로 크고 慘憺하다。

◇道路가破壞되고 橋梁이流失되고 通信이杜絶되야 慘狀이如實히 報道되지못함은 遺憾이어니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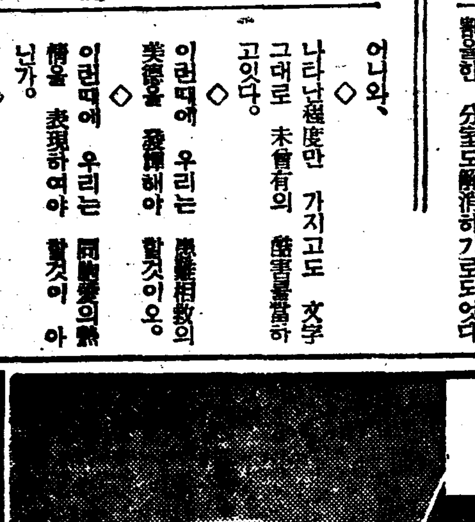
◇나타난程度만 가지고도 文字그대로 未曾有의 慘害를當하고잇다。

◇이런때에 우리는 相愛相救의 美德을 發揮해야 할것이오。

◇이런때에 우리는 同胞愛의 熱情을 表現하여야 할것이 아닌가。

◇이러나자 救助의 義人방을차지 應分의義捐을 내이자。

三好化粧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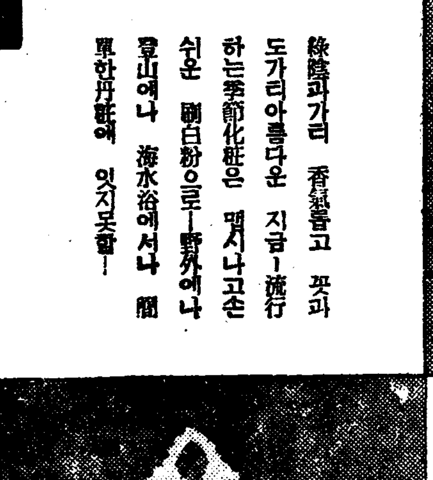
三好刷白粉

綠陰과가티 香氣롭고 꼿과 도가티아름다운 지금-流行하는季節化粧은 맨시나고 손쉬운 刷白粉으로-野外에나 登山에나 海水浴에서나 簡單한丹粧에 잇지못할-

三好水白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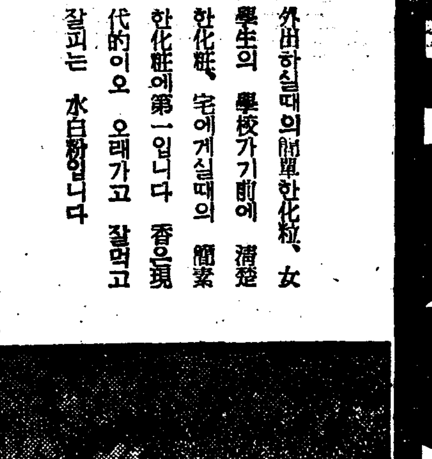
外出하실때의簡單한化粧、女學生의 學校가기前에 淸楚한化粧、宅에게실때의 簡素한化粧에第一입니다 香은現代的이오 오래가고 잘먹고 잘퍼지는 水白粉입니다

三好香水



男女間에 香水를쓰시는것은 한禮節입니다 더욱이夏節에 땀내를 피우는것은 가장進步的인 三好香水를 쓰시오

三好クリーム



三好クリーム는 獨特한藥理作用이잇서서 살결을곱게하고 주근깨를防止하며 여드름、죽은깨를업새고 皮膚에 榮養을주어 根本的으로 살결을 곱게합니다

朝鮮京城 三好化粧品株式會社

朝報案內

外務 社員募集 營業外務員을 採用코저하오니 二十五歲以上我社理想에共鳴하는者 家族待遇、定給旅費步合月百圓以上支給 履歷書持參面談日通知 京城府古市町一四 日本生命保險會社出張所

募集 學力中等以上三十歲以上의男子로外交에經驗이有하신분을募集하오니希望하시는분은午前中에來店하시요 京城府鐘路四丁目五九 日光堂藥品部

募集 女店員採用 女高卒業程度 自筆履歷書持參本人來談 鍾路一丁目七一 海東商會

箕城醫學講習所生徒募集

一、速成科 九十人 出願期日 十月八日까지
一、開學期日 十月十日 詳細事項二錢切手
一、醫師試驗第一部問答集增補 筆記代用謄寫成編實費提供

平壤府館後里一七一 振替京城二三五三六番

『日本盛』의本社見學旅行

灘屋本店의計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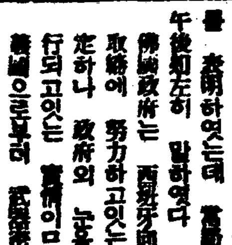
龍山灘屋本店에서는 灘의精粹를다한 代表的銘酒로서 널니世人에게 好評을박는 西の宮酒造會社의『日本盛』을 朝鮮發賣所로 해 賣出해온지가 又今三年인데、近日販路의大擴張에 따라其實上高가 漸漸旺盛함을보고、此販賣店、料理店、飮食店等大量需要家와의 關係를 一層緊密히할 必要가잇슴을 痛感하여、明年一月第一回로 本社見學團을 選拔組織해서 內地旅行을 圖謀하고잇다

리一도式 돈버는機械

五合의쌀과、옥수수가 八升의菓子가된다

釜山府寶水町一丁目 城野製作所

崔承喜氏가부른



伊太利의庭園 / 鄕愁의舞姬

콜럼비아 레코-드

交通杜絶된襄陽에 船便으로一番着

死亡失跡五百六十名내인 襄陽의酸鼻할慘跡

【襄陽에서本社特派員黃成仁基發電】 양양군하(襄陽郡下)의 피해는 전고미증유의 비참한현상으로 일컬을까지 피해된것은 죽은사람이일백사십사명 행방불명이 사백이십칠명 부상자가일백구십삼명 류실가옥이칠백사십일호 전괴가이백륙십일호 반괴가삼백구십사호 침수가옥이 팔백칠십오호다 선박의 류실파괴수호는십사척 전괴가팔십사척 반괴가륙십륙척이며 농작물의피해는약백만원에 달한다 그우에산가지방은 방금조사중임으로 손해는 더욱증가할모양이다 이번피해는 오전 한시부터 비는대폭우로변하며 남대천(南大川)은가각으로 증수하야 그날오전네시쯤에는 남대천의범람과동시에 제방이결궤되여 도도한탁랑이 드리치는바람에 서문리(西門里) 룡리를비롯하야읍내를 중심으로한월리(月里)련창리(蓮昌里)송암리(松岩里)포월리(浦月里)조산리(造山里)일대는 수국화하는동시에 삽시간에 가옥이류실되며 사상자가속출하는등 부근일대는문자그대로의 아비규환의 지옥을현출하엿다 그중에서도 피해가 가장심한곳은 양양면남문리(南門里)서문리(西門里)월리(月里)련창리(蓮昌里)서면상평리(西面上坪里)동면룡천리(龍泉里)북평리(北坪里)내현리(內峴里)와현북면장리(縣北面章里)원일전리(元日田里)어성전리(漁城田里)법수치리(法水峙里)등이다 남대천의제방이결궤에 직면하자 피난(경보)의 싸이렌을울려 속히피난하도록 경고를하엿스나 전부피난하지못하고 전괴와가티 탁랑에휩쓸려 그만생명을 잃어버린사람이만타 리재민 이천이백명중에서 일천이백명은 학교、군청、면사무소 경찰서등에 수용하고 사흘남어지나 주먹밥을분배하고잇섯는데 삼십일일이후 주먹밥은 고만두고 한사람아페 이홉분의쌀한되씩을배급하고 계속하야 구호에 종사하고잇는중이다 통신과교통은 이전히두절되며 읍내는 정전(停電)이되엿섯는데 전보는 삼십일일오후열시부터 개통되엿다 모든뎐락은 배(船)편에의하야 취하고잇다

黃昏의廢墟우에 구슬푼가마귀의소리

목숨은남엇스나漠然한生途

【襄陽에서本社特派員黃成仁基發】 금번수해에서가장피해가심한양양읍내 남문리(南門里)서문리(西門里) 월리(月里)련창리(蓮昌里)일대는 가옥이 거의다 류실되여 전혀 폐허로화하고말엇는데 상전벽해라는말은 이가튼경우에 쓰는말일것이라는 감상을 새삼스럽게 가지게한다 학교 면사무소 군청등지에는 지금도 천여명가량이 수용되여잇는데 그들은 주간에는 폐허리를 하는 인부가되며 또는 피해장소뒤수습에 전력을 다하고잇다 진흙속에 파뭇친 반괴가옥을 수리하노라고 떠들고가며 일하고잇는 정경은 보는사람으로하여금 눈물을 금치못하게한다 부상자는 읍내 적십자사(赤十字社)에서 파견한 의료반에게 치료를받는중이다 리재민의 삼분지이는부흥될가망이잇스나 삼분지일은전혀 무의무탁한상태로 그들의살어갈길은 오직 암담그것뿐이다 제방이 문허진곳으로부터 언제 또다시 흙탕물이쓸어 들어올지 도몰라 일반은불안에 떨고잇다 전등은 아직드러오지안햇스며교통도 당분간 회복될희망이 보이지안는다 가족전부를 일허버린사람 부모형제자매를 일허버린사람들이 황혼의 폐허에서서 울음 찾고잇을때 구슬픈 가마귀소리만이 애처롭게 들려오다 농민들은 『류실된 전답을 바라다보며 한숨만 지울뿐 일할 배(一喜一悲)목숨만은 살엇다보다하면 한포로생어 갈것이 또 한큰걱정이다 이곳수해자의 생강은 이들경에 빠진리재민들을 될수잇는데까지 철도공사인부로사용하도록 하겟다고

李王殿下 三千圓御下賜

朝鮮水害御痛心

리왕전하(李王殿下)께옵서는 조선각지의 수해가큰것을 기피어룽심하옵시사 지난일일에 일금삼천원을 어구휼금(御救恤金)으로 어하사하옵셧다 그래서 총독부학무국사회과안에잇는 조선사회사업협회를 거처서 수해각지에 분배하옵시기로 하엿다한다

蒼白한얼굴들로 맥노코噓唏號泣

金泉서本社救護班活動

【金泉에서 本社特派員安仁圭發電】 이지방에서만 이백생령을 희생시키고 또무엇이 부족하든지 비는 삼십일일부터 다시시작하야 각지로부터드러오는 참회보고에 놀라고잇는중 고려(高麗)농장의 소작인만 백륙십호전멸당한 조마면장암동(助馬面壯岩洞)으로 본사구호반은보리와 약품을 류럭에만재하고떠낫다 십리도못가 중간중간에 오륙백간식떠러진 제방으로말미암아 아직도 흙바다가된 논바닥을 가습당된들을 건너가며 강행군그대로 일행아홉사람은 만난을무릅쓰고 목적지에다엇다 닷고보니 허무러진집 재목이 이곳저곳 산란한중에 얼굴도 알수업는시체가 널려잇서 명칠전만도기름흐르게살든 동리와 문전옥답들은 내ㅅ바닥여 드려가고 백사장으로 화하고 말엇다 장암동제일구에 도착하야 눈물도이즌채 창백한 얼굴들하고잇는 리재민을 맛나 오돗을고하니 늣겨울면서 감사의뜻을 표하엿다 이지방은 소화팔년에도 참혹한 수해를 입엇다가 간신히 회복을 하엿든데 이번 수해는 그들의 경작지를 송두리채로 떠허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보이지안는다 가저온 보리와 약품을 구장에게 전해주고 우리는 이번수해상해명의 사상자를 내인 구성면(龜城面)과 지례면(知禮面)으로 향하엿다

水害地의人情佳話 九死一生의武勇譚

① 晉州에서 特派員 李鍾模 手記

수재가운데에서 생긴 인정끄으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눈물을 자어내는 슬픈 사실은 하나 둘로 헤아려낼수 업는바이지마는 진주남강 락류가운데에서 이러난 다음 몃가지의 기적적사실은 아마 보기에도 드물것이다 물속에빠진 어린동생을 건저내어 치마에 싸고 집웅우에서 피난하고잇다가 마츰내 집웅에 안즌채로 멀리 하류 륙십여리나 떠나려갓다가 천행으로 살아나온 누이와 동생 또는 평상우에 올라안저서 구비치는 물결속에 십여차나 쓸려드려갓다가 하류 오십여리되는곳에서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서 그야말로 그 구사일생으로 목숨이 살어나와 그의 아버지 또 집웅우에서 가리 올라안저 급류에쓸려 백여리나 떠나려가다가 마츰 정암인도교에서 용감한 청년들이 던저주는 동빠에 매여달려서 구조되여나온 청년홀아비와 미혼처녀등등 또 그두남녀를 중심으로 생긴로-맨스등 긔자는 직접 그들을 맛나보고 드른 실화를 이하에 적으려한다

南江물六十里를 떠내려갓다가살어난 船夫鄭正三의三父女

【第一話】 진주군 평거면 판문리(晉州郡平居面板門里)남운 이백가(나루 이름)에서는 지난이십삼일밤 남강물이 갑작이 불어 드러왓슬때에 그동리 사는사람 삼십여명이 나루ㅅ배에 피란하엿는데 강물이 소리를치며 사람이가티 쓸려나리는바람에모다들 놀래여 물가운데 뛰여나렷다가 다시 일곱명은 집웅우에 올라안저 되엿는데 그때에사공 정정삼(鄭正三)(五○)의딸 또순이(又順)(一七)이는 그의동생 네살먹은 첫먹이아이가 물속에떠려진것을알고 집웅우에서 물가운데 뛰여드러가서 건저내여치마에싸서 치마자락을 입에짝 물고 집웅우으로 도로기여올라가 안저잇섯다 집웅우에 안저잇슨지 얼마안되여 험한물결에 부닷치여 그집은 마친내강 가운대로 떠나려갓다한다 떠나려간뒤의 상황을 또순이는 이야기한다

◇

어린동생을 치마에 꼭싸서안고서 동리사람 다섯명과함께 작구 떠나려갓습니다 떠나려가면서 사람살리라고 목이라지도록 고함을질럿스나 캄캄한 밤중이고 사나운 물결에 누구가 감히건저낼 생의를하겟습니까 떠나려가다가 물이 휘휘도는곳에가서는 몃바퀴나 돌다가 떠나려가곤 하엿습니다 얼마나떠나려갓는지 그럭저럭밤이좀밝아지려할 지음에 우리가타고잇는 집은 강가로 밀리게되더니 소미테잇는 바위에가서 다어게되더니 그러고 우리가 소리를질르는것을 보고 그근처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장목으로 끄러당겨줌되다 그래서 일곱명이모다 그바위우에나려서 천행으로 살게되것입니다 묵지에 나리고보니 우리 일곱명은 모다 얼굴은사상이고 제정신들을 일코잇섯는데 그동리(뒤에알고보니 진주 한실이라는곳)사람들의 구호를 바다서 살든 동리로 도라와 보니 어머니와 아홉살먹은동생과 여섯살먹은 동생과 숙부와 숙모등 다섯명은 물에 떠나려가버린채 시체도 차저볼수 업시되엿습니다 이런 슬픈일이 또어대잇습니까 그러나 아모리 고생을 겪더라도 내손으로 구원해낸 이어린동생은 길러낼 결심이올시다

【寫眞은 晉州南江물에 六十里를 떠내려갓다가 九死一生으로 살어난 배사공三父女 右로부터 鄭又順(一七)·그동생·그아버지 배사공 鄭正三(五○)】

全家族沒死

지난이십삼일밤 진주군평거면판문리(晉州郡平居面板門里)나루근처에서 집이물에 잠기스므로할 미암아 나루ㅅ배에 삼십오명이 피란하고잇다가 상류에서 사나운물결이 쏘다나리는 바람에놀래여 뛰여나렷다가 그가운데이 실종된은 몰사하엿는데 그가운데서진주군평 조화장김창윤(金昌允)씨는 그가족 다섯식구와 가티몰사하엿다한다

廢墟로化한三浪津 復興對策을講究

疑訝스로운儉世堤防決潰의原因도糾明 三十日의住民大會로

【三浪津에서特派員嚴尙燮發】 이번 락동강연안 태풍수해지대중 오직 삼랑진만이 팔월한달동안을두고 연겁허두번이나 일족이 보지못하든 가장 참혹한 피해를 입게되것은 문제의 검세제방(儉世堤防)이 문허짐에 인함이라는바 그제방인즉 삼랑진을 중심으로 송지(松旨)내송지(內松旨)미전(美田)률동(栗洞)검세(儉世)무실(茂實)칠곡(七谷)광천(廣川)안태(安台)등 구개소오천주민의 유일한 방수생명선(防水生命線)으로서 이제 그독이문허진원인에 잇서서 일반 주민의 구구한 의아가 잇게되야들론이 분분 하다함은 이미 본보에 보도되바잇거니와 지난번 수라의 뒷수습과 그제방이 문허진데 대한 원망이 채풀리기도전에 이번피가튼 참변을 당케된 리재민은 먹지도 못하고 귀한에 울고잇는 그난리중에도 당국의 성의여하와 그제방 결궤에대한 의아를 규명하려 지난팔월삼십일 오후여덟시 삼랑진주민의 집으로서는 단지 이집한집이 남게된 삼전옥(森田屋)에서 주민대회를 개최하고 그대책을 강구하는중이라한다

天道教青年黨 十三週年記念式

시내경운정(慶雲町)에잇는 천도교청년당(天道敎靑年黨)본부에서는 이일오후부터 천도교 청년당 건당(建黨)십삼주년 긔념식을 당두(黨頭) 승관하(承寬河)씨의 집례로 열고 당두의 긔념사와 총무리우영(李宇英)씨의 청년당연혁보고가 잇슨후에 정광조(鄭廣朝)리돈화(李敦化)량씨의 축사와 최린(崔麟)리문호(李文虎)량씨의 감상담이잇슨후 폐회하엿다

平壤府上水口里 電話一○六九番 水王產婦人科 醫學士 李麟杰

有志는救護部組織 學生도奉仕的活動

【晉州에서本社特派員 李鍾模發電】 진주사회유지로조직된 리재민구호부의 활동으로 생긔에찬 활발한것으로 일반의감와칭송이자자하다 특히 진주농업학교와 진주고등보통학교생도들의 사회봉사적 활동은 주목을 끌고잇는데 그들은 수해발생이래 련일 리재민구호에 노력하여 왓스며그런데 다가 광이롤 싣고 시내를 돌면서 시내각처에 흐터저잇는 오예물 소제에 맹렬한 활동을하고잇다

印紙詐欺漢被捉

시외 정릉리(貞陵里)사는 왕신오(王信五)라는소년은 지난이십구일 오후세시경에 시내종로이정목 륙십칠번지 절수와인지파는 주장능(周章能)의집에전화로서 시내모려관으로 인지백원을 가저오라고 주문하고 삼백원지폐를 가젓스니 거스름돈이 백원을 가지고 오라고하야 인지와 식산은행(殖銀)소절수 이백원을밧고 뒷문으로 도망하여 버린것을 이일밤 시내종로서 원이 붓잡아와서 취조중인데 여죄도 만흘모양이라고한다

宗教團體도蹶起 水害救濟의金品募集

中央禪學院과勝洞教會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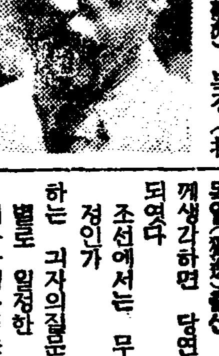
▲시내안국정(安國町)사십번지 중앙선학원(中央禪學院)안에잇는 조선불교부인선우회(朝鮮佛敎婦人禪友會)와 조선불교선리참구회(一線理參究會)의 두단체에서는 구월일일협의회를열고 남조선일대와 강원도지방을 습격하야수만의남녀아동들을 긔한에떨게한 풍수해구제의 적성을 두단체의 회원이 의복을만들어 재해지에 보내기로하엿는데 재봉침이부족되여 일대곤난이라고한다 ▲시내 인사정(仁寺町)승동례배당(勝洞禮拜堂)에서는 삼일리재민구제의 적성으로 신자일동이 금십일원과 의류배삼십자지를 본사에기탁하야왓다

朝鮮의教育、藝術 深刻한質問을連發

朝鮮으로건너오는船中에서 스턴벅會見記

世界的映畵監督

【釜山驛에서 東京支局長 金東進發電】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감독(映畵監督)『스턴벅』씨와 우연히가튼 연락선을타게되엿다 긔자는곳씨를차저 경의를표하엿드니 씨는초면의 긔자를반기고 다정한얼굴로 다음과가튼 이야기를시작하엿다 일본내지의 풍물(風物)은 거의다 보앗스니 이제는 조선(朝鮮) 만주(滿洲) 북경(北京) 청도(靑島)를 구경하고상해(上海)로 갈예정이다 씨가 특히 금번여행코-스가운대 청도(靑島)를 너흔것은 씨가 독일(獨逸)출신 이라는점과 함께생각하면 당연한일가티 생각되엿다



조선에서는 무엇을 구경할예정인가 하는 긔자의질문에 씨는 별로 일정한 예정은업다 거리를구경다니는 사이에 자연히 눈에 띄이는것이 잇슬터이지 씨의말을듯고 긔자의머리에 얼는생각나는것은 씨가동경(東京)에 도착한날 려장도풀사이업시 『아사꾸사』(淺草)로 밤거리를 계속한다는것이다 씨는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러나 될수잇스면 조선예술가 배우(俳優)제군하고 이야기할긔회를가지고 십다 영화는 보고십지안타』 조선에는 엇더예술이잇느냐 하는물음에 긔자는『현대의 예술을 자즈려면 흥미잇는 것은 모른다 그러나 조선의 고대예술(古代藝術)은 반드시당신의 흥미를끌것이다』라고대답하니 씨의얼골에는 다소간 실망의 빗치보인다 이와가티이야기하는사이에 씨가 조선에대하야 상당히 넓은지식을 가지고잇는것을 알엇스며 씨가 대판(大阪)에서 특히동포의 부락(部落)을 시찰하고『조선사람은 대단겸손하다』고 하는데 젊은청년들도 그런가』『오십만원이상의 재산가(財產家)가 얼마나잇는가』『의무교육(義務敎育)은 실시되엿는가』『실시안되엿다면 언제부터 실시되는가』『조선사람은 일본내지이외에 어느나라에 커다란집단을가지고 잇는가』『남녀관계는 엇던가』『철(鐵)을 가지고잇는사람도 잇는가』등의심각한질문을 연거퍼 계속하는바람에 긔자는 다소간 답변에 곤난하엿다 최후로 긔자는『조선에는 최근대수해가발생하야 륙천여의 인명과 십만호의 인가(人家)와 팔천만원이상의 물질적피해를 바덧다 당신은 금번려행에 수해에짓밟힌 이땅의폐허(廢墟)를 목도할수잇슬것이며 당신은반드시 그비참한광경에 눈물을흘릴것이다』하는 긔자의말에 씨는『면해전 서인도(西印度)를 려행할때에 마침 그지방의 수해참상을 목도하고 그비참한광경에 눈물을 흘리엿다』하고 대답하엿다 그리고 씨는 긔자에게 경성(京城)의 안내를부탁함으로 긔자는 쾌락(快諾)하엿다

(사진은 쓰탄벍씨)

大同郡陽岩里에 教育機關建設

【大同】 대동군 림원면양암리(大同郡林原面陽岩里)에 교육긔관이 업서서 유감으로 생각하든유지송화옥(宋和玉)씨는 지난삼십일에 동리유지를 소집하고 금추안으로 사립학원을 개강하도록 결의안을 지어통과하고 곳교사건축에 착수하리라고한다

『朝共再建』事件 李寄福等送局

경긔도경찰부에서 지난칠월십일부터 검거에착수하야 이래취조중이던 리긔복(李寄福)(三一)등 네명에관한 조선공산당재건(朝共再建)사건은 이제 그취조가 끗나서 이일 일건서류와 함께 검사국으로 넘기엇는데 전긔리긔복만은 구속하고 리종택(李鍾澤)리종각(李鍾珏)리선준(李善俊)의 세명은 불구속으로 넘기엇다 사건내용은 지난소화구년에 검거된 신동옥(愼東玉)사건의 후계로 주로 개성(開城)등지에서 농촌진흥회(村振興會)에 『프랙숀』을조직하야 적색농민조합(赤色農民組合)을 조직 활동하던 것이라고한다

全朝鮮水害集計

三日正午現在 (警務局着)

삼일정오현재의 경무국집계각도의 수해상황은 별표와가튼데 의피해는 인명의사상은 오천구백십명으로 륙천명에 갓가워젓스며 또가옥호 선박의침몰류실이 이천의다수에달하엿다 실질만이천사백삼십삼

	人命被害 死者	傷者	行方不明	家屋被害 倒潰	半潰	流失	浸水	船舶被害 流失	沈沒
京畿	|	|	|	一	九	一	[illegible]	|	|
忠北	[illegible]	[illegible]	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忠南	二	一	|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	四
全北	[illegible]	[illegible]	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	|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小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一	|	|	二	|	|	[illegible]	|	|
咸北	一	|	|	一	|	|	|	一	[illegible]
第一次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二次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今夕、七時前後 南、西兩海岸警戒

低氣壓隨伴한颱風北進中

仁川觀測所發表‖칠해 사십미리의 태풍(颱風)이 상해(上海)로부터 삼십키로메돌되는 자점에잇서서 시속(時速)이십키로의 속연으로 북동향하야 진행중인데 저긔압을 데불고오기때문에 남조선방면에는 지금도 도처에 비가오다 그런데 그태풍의 방향은 북동으로 변할는지도모른다 태풍이 북진하면중부조선과 북부조선내 피해가잇슬것이요 만일북동으로 진행하면 남부조선에 피해가 미칠것이다 그런데 이번태풍은 자난번태풍보다는 세력범위가 협소하야 만일피해가 잇다할지라도 태풍중심지대에 끄칠것인데 느저도 오늘 즉 사일밤 오후일곱시이후내는 습래할터인데 남해안과 서해안은 경계가필요하다 그리고 오늘아침 여섯시까지의 각지우량은 다음과갓다

平壤一八미리 仁川一四미리
京城二〇미리 全州三一미리
木浦一一미리 釜山六미리
城津五미리 元山六六미리
江陵二八미리 大邱三三미리

그런데 비는 사일오전까지는 [illegible]

氣象特報解消

三日午前九時 京城測候所發表‖ 京畿道全區에 特報한 注意事項은 解消함

수할듯하고 불연속선(不連續線)은 소멸되엿다

各地天氣 (今朝六時)

中江鎭	曇	大邱	曇
新義州	雨	釜山	霧
平壤	雨	下關	曇
仁川	曇	大阪	晴
京城	曇	東京	雨
全州	曇	天津	晴
木浦	曇	青島	雨
群山	曇	上海	晴
雄基	曇	新京	晴
城津	雨	奉天	曇
元山	雨	營口	曇
江陵	曇	大連	晴

天氣豫報

概報 颱風은 上海南東約百五十粁 海上에서 北進하며北東으로 進路를 변할模樣이다 高氣壓은 오호쓰크海로부터日本海를 지나서 朝鮮東岸으로퍼지고잇다 滿洲는 日氣가不順하고 朝鮮은흐리다北朝鮮은處處에 暴雨가잇고 朝鮮海峽은 안개가 잔뜩끼고잇다 日本內地는 흐리고颱風의再襲은 엇을듯하다

豫報 오늘밤京城은 흐리고 때때로 小雨가 잇슬模樣이다 明日도 가트며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二度三
同最低 一九度六
今朝最低 二一度三
今日正午 二四度九

今夜 白頭山探險映畫及報告講演會

午後七時半 於本社大講堂 【第五日】

實業野球리그 來十二日부터開戰

京城實業野球聯盟主催의 秋期實業野球리-그戰은 來十二日부터 京城球場에서 開催될터인데 參加팀은京電、府廳、鐵道、殖銀、遞信等이다

▲十二日(土) 京電—府廳(後一時) 鐵道—殖銀(後四時)
▲十三日(日) 府廳—鐵道(後一時) 殖銀—遞信(後四時)
▲十六日(水) 遞信—鐵道(後四時)
▲十九日(土) 鐵道—京電(後一時) 遞信—府廳(後四時)
▲二十日(日) 殖銀—京電(後一時)
▲廿三日(水) 遞信—京電(後一時) 府廳—殖銀(後四時)

同德庭球部開城遠征

開城高麗公論社主催의 第一回全朝鮮個人女子庭球大會는 來六日午後一時부터 開城水晶山코-트에서 擧行하기로 되엿는데 同德女子高普庭球部에서는 이大會에 出戰코저 六日午前八時京城驛發列車로 遠征하기로되엿는바 引率者는 鄭甲、邊華羅兩氏이며 出戰選手는 張瓊煥、姜鍾宜、吳鳳雲、崔福貞、兪淑根、尹玉寅、朴光天、李貞雨、李姬、金淑在等十名이라한다

野球爭霸戰對陣 高麗팀出場

京日主催의 第十三回全朝鮮野球爭霸戰은 來五日부터 京城球場에서擧行할터인데 이大會에出場할 十一團體의 對陣을 二日午後에主催側에서 다음과가티 決定發表하엿다

▲第一回戰
▲五日=A、平實—大田(後一時) B、府廳—大邱(後四時)
▲六日=C、清津—全州(前十時)
▲準準決勝
▲六日=D、釜鐵—兼二浦(後一時) E、殖銀—A勝者(後四時)
▲七日=F、仁川—C勝者(後一時) I、高麗—B勝者(後四時)
▲準決勝=ED勝者—F勝者

秋期럭비戰開始

朝鮮럭비俱樂部主催의 秋期럭비리-그戰第一日의 龍中對善隣戰은 二日午後四時半부터 龍山球場에서 열린바 結局三十一對零으로 龍中軍大勝하엿다

龍中 31 (14 17 : 0 0) 0 善隣

담기침 천식 백일해

더운때에

걸리는기침병에주의하자

뜨거운 햇볕이 내리쪼이는 여름날에는 마른공기와 먼지 때문에무서운 기침병에 걸리게됩니다 기침이 무서운것은 여느결에위험한 變症을 일으키는수가 만흐니즉폐염 폐결핵으로 변하기쉬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름겨철이라고 그리대소롭게 생각지마시고 담、기침에 질들을뿐만아니라 여러한變症을防止하는作用을가진 靈藥 龍角散으로 하로바삐 곳처주시기바랍니다 龍角散은 효과가 적확함으로 세계각국인사께환영밧고잇어서 世界의모든 樞要都市에서 권위약으로 頒藥되고잇으며 더구나 조선사람의 체질에 꼭맛는만큼 더욱유효합니다

登錄商標 龍角散

龍角散의適應容態書

(咳痰)/담으로 항상 괴로워하는분
(喘息)/천식으로 그르렁거리고 숨찬분
(頓咳)/기침이 잣고 발작 호흡곤난한분
(流感)/류행성감기로 기침나는분
(肺病)/폐병으로 늘 밧튼기침 하는분
(血痰)/담에서 냄새나고 피섞여나오는분
(聲嗄)/목소래가쉬고 또는 안나오는분
(小兒)/백일해와 홍역 기침하는 아해

아모리 중한難症이라도 二三週日 계속하야 복용하시면 꼭 근치됩니다

定價 二日半分 二十錢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六十五日分 三圓

東京日本橋區本町三丁目 本舖 株式會社 藤井得三郎商店 振替東京九一番 電話浪花(67)[illegible]

▽全朝鮮藥房에서판매합니다△

延白地方紹介版

一望無際沃野千里
黃海屈指의穀庫
◇……米年産高百萬石을突破
廿個面包擁의大郡

延安은 米의寶庫오 黃海道의關門이다 一望無際의 沃野千里는 年產高百萬石이란 多量의 米穀을 產出하며 出浦六時間에 世界直輸市場인 仁川港에 到着할수잇도록 交通이 至便하며 朝鮮黃海線이 土城을 分岐點으로 延安、海州를 經由하야 沙里院에 接續하엿스니 黃海內陸을 縱橫하야 水陸交通이 完全히 發達되엿다 一自、延白兩水利組合의設立과 黃海線鐵道가 開通됨으로부터 急角度의 勢로 長足的發展을 거듭하야 戶口의增加와 商工의繁榮은 날마다 日就月將하고잇다 市街道路의 整頓、交通機關의完備、金融機關의充實 이實로新興의 大都市!! 이에 心臟을 解剖하야 江湖에 紹介함도 徒勞가 안될까한다

沿革

元來延安은 高句麗 時에는 冬音忽이라 名하엿고 新羅朝에서는 海皐라 改하엿스며 高麗成宗王初에는 鹽州라하야 防禦使를 置하엿고 顯宗王時는 海州에 屬하엿다가 高宗王時에 永膺縣이라 改稱하얏고 元宗王時는 碩州라 忠烈王時는 溫州라 命하엿고 (鳳州、五原、陽原等의 稱名도有함) 忠宣王時에 至하야 延安府라 改稱하야 都護府使를 置하다 李朝高宗王丙午에 平山郡牧丹 指弓 龍道三面을 延安에 附屬하고 壬子에 白川郡一圓(九面)과 合郡하야 (大正三年行政區域變更時) 延白郡이라 稱하고 郡廳을 延安邑에 置하고 二十個面一百七十五個里를 管轄하고잇다

地勢

延安은 黃海道東南에 位置하야 面積이 六十萬餘方里오 人口가 十五萬을 算한다 西으로 海州郡을 接하고 北으로 平山及金川을 隣하고 東으로 禮成江을 境界로 京畿道開豊郡과 接하고 南으로 江華郡을 臨하야 京畿道江華郡을 相對하야 海峽을形成하엿다 東北一郡에는 山岳이 重疊起伏하엿스며 西南을 通한 一望無際한 平野는 本道內에 屈指하는 總面積九萬四千四百六十五町步에 大廣野이다 羅津 浦川 楓川 花陽川 漢橋川等은 平野를 貫通하야 灌漑의便을 與하고잇다

理解力이 富한人物이다 일즉이 階段을 밟버 充分한學業을 마치고 舊韓國時代로부터 明治大正昭和年間에 官界에 顯職을 歷任하엿다가 그後 熟練한政略과 遠大한抱負로 延安面長에 轉職된바 事務에 圓滿을善하며 面內發展에도 功績이 現著함으로 面民의 信任은 人人頌聲이오 處處口碑이다 公職으로도 延安金融組合評議員 延白水利組合評議員 黃海水利組合常務委員 延白農會評議員 延白郡學校評議員等等 要職에 處하고잇다 氏는 實로 延安發展史上에 잇지못할 主要人物이라 아니할수업다

各界의重鎭人物

法曹界의元老 金鍾濩氏

世界大勢가 大亂風을 부러다가 우리延安의 保障인 一個英雄을 喚起하얏다 風風雨雨六十星霜에 公益을 爲하야 心과力을 다하엿스나 不運한 朝鮮사람의事業 成功이무엇이랴 無情歲月은 無端히 英雄을 老케하엿스니 이는 恰當金鍾濩氏다 氏는 일즉이 漢學을 專修하야 文章筆法이 精通하고 그후時代要求에 應하야 舊韓國時代法官養成所를 卒業하야 法學博士의 榮位를 得하얏다 우리 延安으로의 처음마지한 자랑이다 보다도 全朝鮮으로 처음이든 열매이다 이여 同所敎官으로 任命되엿다가 平壤地方裁判所檢事로 海州地方裁判所判事를 歷任하엿고 그후 辯護士의 職으로 海州邑內에서 二十有餘年間 法曹界의 元老로 人民의 權利를 擁護하야 公私正義線에서 活動하고잇다 昭和五年以來로 衆望所歸에 黃海道評議會員을 最高點의 得票로 連二回나 當選되여 道政에 參與한以來 人民의 福利增進上 努力에 努力을 加하야 道內重大한 寄託을 不棄하엿스며 延安發展上 敎育 土木 其他諸般施設上에 特殊한 功績이 多大함과 同時에 社會一般의 囑望이 가장 놉흔 中樞的元老이다

代表的元老 孔炳憲氏

延安社會의 元老이오 公私信望이 가장두터운 孔炳憲氏라면 雖樵童牧豎까지라도 尊敬지아니할수업는 延安의代表的偉人이다 모든施設 모든組織 모든進興 모든發展 許多事業에對하야 한아도氏의心과力의 胎物아님이업다 且氏는實로延安社會의寶鑑이며 眞燭이다 對人에 謙讓溫和하며 處事에 英斷明斷하야 無言而爲하고 無爲而行하는 百戰老將이다 일즉이 延安商業界를 操縱하야 陶朱

의秘術을 發揮하엿다 氏의三十前後그때로말하면 모든程度가幼稚한守舊時代이엿지마는 氏는오즉 智識과敎育의必要함을先覺하고 奮然이同志幾人과協力하야 延安最初인 鳳南學校를 創立하고 氏가 校監에 選任되여 犧牲的 血과 心으로奉仕하엿다 果然 오늘날 延安社會의 智識普及과 文化發展에 모든 表現의 存在를 보게된것이 氏의 產物과精華가 아니라할수업는 敎育界의 恩人이며 延安의 活佛이다 有嗜自然者으로 氏의 抱負와 德望은 거의 延安大衆의 信仰이 集中됨을따러 氏는 三十五歲時로부터 公私間多方面으로 社會戰線의 代表的으로 出馬하게되여 처음 延安郡參事로 이여 延安面長으로 在職十數年間 萬人敬慕下에 淵深한 抱負를 發揮하엿스며 다음金融界의 要樞인 金融組合長으로 張風善化를 目的한 興風會長으로 普通學校學務委員 鄉校直員 延海水利組合副組合長 黃海水利組合 創立委員 面協議員兼黃海道評議員等要職을兼帶하야 흔이 連日忘飯의時도잇섯다한다 이로보아서도 그의 人格如何와 信任如何를알수잇다 그러나 氏의深淵한 胸腔中에 隱藏한萬斛恨을 누가 알수잇스랴 無情歲月은 無端이앗까운 偉人을 늙켜다 絲絲白髮이 氏의過去 六十有年間 風風雨雨에經歷을 하소연하며 말하고잇는것갓다 ◇寫眞은 孔炳憲

多情한老青年 吳啓善氏

時不利兮 騅不逝라 叱呑萬斛恨을 付之一笑 웅켜쥐고 草堂春睡足 大夢을꿈꾸는第二孔明 當世偉人 吳啓善氏(六○)일즉이少年名士로 青雲을꿈에하고 宦海를 戲弄하며 官不離身三十載에 萬丈紅塵의 단꿈이 有志竟成을 自期터니 壯志를未遂하야 大局이 變幻하니 馮唐은易老하고 李廣은難封이라 世에好漢이 업나니 好漢을識하리 누구이며 英雄이 업나니 英雄을惜하리 누구이랴 成敗利鈍은不可逆圖어니 可以退則退 高士의達觀이라 悠然退隱於南山草屋하야 閉門不關聰前月 分付梅花自主張하엿다만은 일군에 목마른時代的要求는 氏個人의詠風弄月과 雲耕夜讀의 淸趣를到底히許치 아니하엿다 그리하여 己未以後로 社會工作과青年指導에 前線闘士로 總指揮가되엿다 그리고老少各社會에 事之巨細를 不問하고 반다시氏의手를經하고 議를諮하지 아니할수업는 最高參謀部이다 이여衆望所歸에 延安面長을 曾經하야 歷事的抱負를發揮하엿스며 以外各方要任이 만하다 寬仁大度하야 不拘少節하고 文章言論이 驚人動座하며 交結四海名士하야 名聲이 遠近에 雷傳하고잇다 아-氏와 類한 英雄實 大人的稀世의 偉人이 未知커라 凡幾人이랴? 實로 延安社會의 重鎭이며 長城이오 元老이며 師表이다 熱情家이며 手腕家오 多情的老青年이며 多恨的不遇者이다 潛龍豈是池中物이라 一得風雲欲上天을! ◇……寫眞: 吳啓善氏

老練한政略家 禹夏榮氏

氏는 一見威嚴冷情한것가트나 其實은 多情溫厚한데다 包容性과

膽略兼備活動家 文應昌氏

膽略이兼人한氏는 일즉이 壯志를 胸懷하고 決然이 故鄉인 平壤을 등지고 一步上京하야 순식게 軍閥에 登龍되엿다 鵬程萬里의 압길의 希望이 기다릴 제 움에 때마츰 前韓國時代軍隊解散當中에 不幸이도 한사람이 되엿다 이때 氏는 變幻無常한 紅塵宦海에 素志를一轉하야 옛날歸去來詞를 생각하면서 五柳村을 찾기로하엿다 어지하야 延安에因緣을 맷게되엿든가? 하나님의뜻이다 延安發展을 爲하야 擇하여 보내신바이다 延安最初인 普明學校에 要任을 마타 風雨勞苦를 不辭하고 心血誠力을 傾注하야 廣厦千間을 一朴로支撑하엿다 따라 耶蘇敎會에 빼여내인 사도로 敎務를 專任熱誠하엿다 實로 延安敎育界慈母이며 宗敎界의 방울이다 그후生活上關係로 小規模的商店을 經營하엿스나 元體敬滑한手腕과 敬愛하는 信仰下에 今日儼然히 巨商看板을 高掛하엿다 누가六十六歲의 老齡이라하드냐 鑠鑠한 氣質 英拔한 風性은 오히려車弱한 青年을 凌駕할만한 精力家이며 活動家이다 ◇寫眞…文應昌氏

剛直高潔한 裵東麟氏

氏는 元來本郡出生으로 稟性이 剛直하고 志操高潔한 延安社會의 重要人物이다 人間優秀의元則과 社會發展의關鍵이 무엇보다 敎育과智能에 잇슴을 넷날守舊的 暗黑時代로부터 氏혼을로 先覺高調하엿다 그리하야同志幾人으로 더부러 延安敎育歷史에첫파지로 私立鳳南學校를創立하고 氏가 設立者로 學監을兼務하야 獻身的으로 奉仕하엿스며 現在延安幼稚園의 設立者로서 天眞爛漫한 귀여운子女를 保育하며 牧者이다 其他延安社會發展上 모든施設이 거의氏의

獨特한手腕家 宋善日氏

廣洋한 臥龍池의包擁과 屹立한 飛鳳山의秀氣로 掀天動地的 英雄兒를 鍾出하엿다 그는延安名產인 宋善日氏이다 傑出인文學者로보면 勿論九尺巨軀에猿臂虎體오 喑啞叱咤에千人이 蹙倒할것가티 생각하기도 쉬우리라 만은其實은 纏綿의 力도所持치못한美人的體態이다 六尺未滿의 一身에는 筋肉과皮骨全體가 單純히膽、智그것뿐만에 合成體인가한다 놀랍다 零零貧困에 一個店員으로 不出十歲星霜에 手弄數百萬金하고 身爲商農界重鎭하니 엇지偶然의 事라하랴 住[illegible] 大學은 天然的學校이다 [illegible] 卒業하고 中等學校나마 [illegible] 하엿다 그리하여 [illegible] 英明한氏의 [illegible] 氏의明朗한眼光은 [illegible] 하고 비로소自立的으로 [illegible] 하엿다 먼저 [illegible] 物品科油業等으로 開店하엿스나 小資本이니만치 小規模的이엿다 이여 仁川米油組合特約店과 日本火災保險會社延安代理店을 經營하엿다 이로부터 氏의 [illegible] 百折不屈하고 七顚八起하면서 남달리 明哲한[illegible]하고 敏活한手腕을 試하야 京鄉遠近에 信用의信이 一瀉千里에 席捲之勢로 自然無人不知하고 無處不行하게되엿다 그리하야 모든勝利는 約束한것과 가티 氏에게로 總集合이되다시피되엿다 延海兩郡에 數個農場을 設置하야 農事改良을 몸소 奮勵하며 氏의主業인 數個精米所는 二百馬力의 發動機로 一日二千餘石의 白米를 精出하야 京鄉各地와 日本內地諸處에 輸出하야 延安의特產물 자랑하고잇다 따라氏에게 愛用되며 生活을支持하는 人員이 勿慮千으로 數한다 以外에도 百貨店 牧場等을 經營하는 中이며 特히延安에 公設運動場이 아직업슴을 恥하야 氏의 所有인 三千餘坪의 土地를 延安社會에 提供하엿다 아프로도 어떠한 大事業家가될는지 萬人의 囑望은 자못 總集中하고잇다 ◇寫眞…宋善日氏

實踐主義者 徐圭璘氏

[illegible]이 아니한바업다 氏는實로延安社會의 敎育을 북도다준 恩人이며 文化를 북도다준 恩人이다 多年間 延海水利組合評議員으로 水平線上에 立하야 代表的 信望이 가장有力한 人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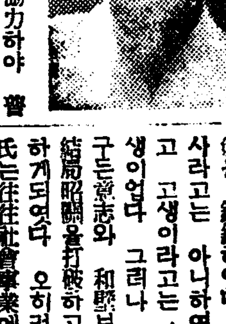
西鮮의寶庫인 延白平野를 中心으로 一萬三千餘町步를 蒙利區域으로한 全鮮水利組合中優秀한 成績을占한 黃海水利組合財務主任인 重職을 兼하고 農事改善의第一線에立한 徐圭璘氏는當年四十五歲의壯年으로 公私間誠實穩健함에는 一般이 欽服치아니할수업다 特히 敎育熱과 慈善心은 本能的이며 延安幼稚園長으로 昭和三年부터今月까지 獨力奮鬪하여왓스며 青年敎養指導에 熱血을傾注하야 延安俱樂部幹事長 青年會長等을 歷任하엿다 氏의鄉第인本郡湖東面 細農貧民等의 景況을 惻隱히생각하야 昭和四年度以來로 每年貧民八十餘戶의戶稅를 代納하엿다 이얼마나 義的이며 快的이나 爲善者는天必報之라 昭和八年七月에 湖東面一般有志는 氏의功德을永久記念키爲하야 同面羅津浦上流居安橋東側에 石碑를建立하엿스니 이로써足히 氏의功績如何를 斷評할수잇다 禁酒斷煙과 讀書修養의實行者이며 光風霽月의 神采와 流水의雅量 古人에讓할이업슬 延安人物史上新記錄이다 今般面協議員에選擧된 氏는더욱社會各方面으로 만흔 援助와 活動을 더하야줄것을 밋는바이다

青年의模範人物 張命昌氏

音樂家는 아니다만 氏名은 張命昌 雅號는 張球通 보기드믄 珍奇的名號를가지니만치 白玉가티 高潔하고 天使가티溫慈한人格이다 일즉이普校를거쳐 京城徽文高普를 優秀한成績으로卒業하고 이여 負笈東渡하야 東京高等工科를 專修하엿다 在學時代로부터 學生界에 모든敬愛와 信仰을一身에 集中한바되여 留學生親睦會長等 重任으로서 學生界를支配하엿다 學業을마치고 歸家한後 社會戰線에 처음出馬하면서 爲先一方으로 商業을經營하는同時에 農村啓發과 青年指導를 最大急務로 己任하고 勤勤孜孜하야 或은 勤農者에게勤賞을施하고 或은 苦學生에게 學資를補助하며 其他 社會共公事業에 氏의心과 力이 可及하는限에는 絲毫도 躊躇치안코 率先實行하엿다 世에 圓滿한 人物이 쉬우랴만은 오즉 氏야말로 延安一의 財產家 敎育家 商略家 工學家 活動家 博愛家 熱情家等 모든點에 하나이라도 缺欠업시 充滿한 俱體的模範人物이다

[illegible] 當年三十二歲의 青年으로 [illegible] 延安社會는 氏를 [illegible] 延安와 名聲는 氏가 [illegible] 잇슴으로써 高貴하야질것을 밋는다 ◇寫眞은張命昌氏

延安의先覺者 張容九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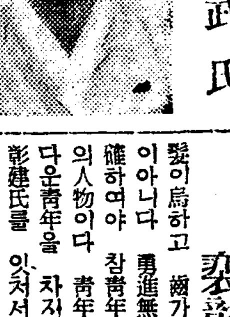


昔에 貧困한家庭을 떠나 今에三十萬金大財主가된 張容九氏는 百折不屈의 精神과 金石可透의信念으로 처음부터 商業을 經營하엿다 그리하야 力行勤勞하고 實際節儉하야 艱苦와 結晶으로 不過十數年間에 快히 素志를 一貫成功하얏다 氏는 商略家뿐만이 아니라 進一步하야 敎育先覺者이다 距今三十年前 옛時代에 文化이니 敎育이니 時代的新潮를 누가꿈이나꾸엇스랴만은 오직氏의 萬里慧眼은 이를觀透하고 同志幾人과協力하야 普明學校를創立하고 物質的精神的으로全幅的援助를 다하엿다 在學하는子女가四人이오 京城高普에通學하는子女가五人 合九人이다 氏는面協議員을 連二回나 連選된 聰明洗達한 延安一流의 事業家로서 社會信望이큰人物이다 ◇寫眞……張容九氏

磊落한志士 片富烈氏

延安社會에 片富烈氏라면 누구나 모를사람이업는 不遇의志士이다 新舊學識이 豐富한點으로 學者라하나 淸貧한 政治家이다 일즉이 基督敎青年會長으로 이여延安青年會長 運動會長으로 平生의 經綸을 支配하엿다 氏의五十平生의 經綸을 回顧하면 모다가 朝鮮에 난風雨이며 時代가준波瀾이다 自我를 모르는氏의 一身에서 精神的觀念과 公益的主義를 除한다면 氏의存在는 업슬것이다 威力으로, 그志를 빼치못하고 富貴로도 그心을 奪지못할 鐵膽其人이다 今에 關西公普學年延長期成會長으로 活動하며 靑松爲友鹿爲群하야 고든맘을 잡고 歲月을 낙고잇는 多恨多情者이다

力行務實人物 方承武氏



守에 泰山盤石갓고 動에 迅風疾雷가타며 堅確한意志와 敏滑한手腕으로 處榮辱禁物로 實務를力行하는 方承武氏는 갑[illegible] 過十年內外에 數十萬圓大財源主가되엿다 [illegible] 切實直으로 斯界에 [illegible] 하고잇다 明哲한理智 [illegible] 枚擧하고 扶弱擠強는 氏의正義的素質이다 現延安面協議員 普通學校學務委員 黃海水利組合評議員 等의 要任에 當하야 延安社會에 貢獻이 枚擧키難한 名望이 가장 노픈 人物이다 ◇寫眞……方承武氏

老益壯活動家 全敬華氏

馬에赤兎、人에子龍!! 商에信用人에 模範인 延安街頭의 代表的三層洋屋의 和信連鎖店主人翁은 當年六十六歲의 白首老人이다 氏는 本是開城出生으로 早失父母하고 孤身隻影으로 風潮水火에 九死一生으로 商路에 委身하여 鍛鍊하엿다 그리하야 장사라고는 아니하여 본장사가업고 고생이라고는 아니하여본 고생이업다 그러나 金氏의石보다 구든意志와 和璧보다 貴한信用은 結局昭關을打破하고 凱歌를高唱하게되엿다 오히려 老當益壯의 氏는往往社會事業에 青年을 압서活動하는 일이만흐며 天稟이

刀圭界의倉扁 朴承元氏

氏는 長湍出生으로 自力苦學하야成功한 意志堅確하고 技術이 卓越한 現代倉扁의 名醫로 天下大方家이다 일즉이 京城世富蘭偲醫學을 卒業하엿스바 在學時에도 그病院에서 實習으로 助役하면서 그學費를補用하엿다 그리하야 天生才醫가 出衆한 氏는 研究에 經驗을 거듭하야 診病施療에 滿足한 바 가지고 淸衆醫院의 扁額을 延安에 나라내게된以後로 奇術神方을 앗깜업시 發揮하니 病者를 救療하고엇슴을 따라 每日患者가 還至如市하고 잇스며 各種設備가 거의完全한中 精新한十餘間에 入院室까지 備置되여잇는바 장차 머지안흔 압날에 相當한 淸衆病院으로 實現될것을 밋는바이다 氏는 「그리스찬」의博愛主義者이니만치 貧病孤獨者에게는 自費往診 無料施療의 仁術에 使命을 忠實히하는 慈善家이다 邑村遠近의 信仰은 杏林界第一人으로 當世 活佛이며 救主라한다

青年界의驍將 裵彰建氏

饑이 爲하고 齒가 少하다고 青年이아니다 勇進無退하고 意志堅確하여야 참青年이라 따라 有爲의人物이다 青年다운青年을 차자라면 延安邑 裵彰建氏를 잇처서는 아니된다 氏는 百折不屈하는 精神과 始終一貫하는 信念으로 自然延安社會에 代表的 青年勇士의 光譽를 바다게되엿다 일즉이 當地學校를 마친後 京城培材高普를 修了하고 이여 渡東하야 專修大學經濟學部英[illegible] 和六年四月에 [illegible] 昭和九年度에 [illegible] 青年指導에 先鋒이되여 活躍하는中 [illegible] 力產業株式會社 京城에 設置하고 該社取締役社長으로 抱負와手腕을 發揮하고 잇는 當年三十六歲의前途多望한 人格者이다

醫療界의神將 簡貞敏氏

氏는 京城出生으로 才醫가超群하고 性情이 貞敏하야 널리聲敬을밧는 當年三十二歲의 青年名醫이다 昭和五年度에 京城世富蘭偲醫專을 修了하고 이여三年동안 京城帝大病院에서 眼耳鼻咽喉科를 專心攻習한後 慶南統營郡에서 三年間 醫業에 從事하다가 東京으로 가서 痔疾專門 講習을 一個月에 맛치고 歸鄉하야 來延하는 即時로 前廣濟醫院에서 海東醫院을 開業한바 眼耳鼻科에 能熟한技術은 勿論이오 特히 難治인 痔疾에 對하야는 新研究新發明的 妙方奇術이 有하야 一着手에 百發百中이라한다 이로부터 身體保健을 無端히 侵略하는 疾病의 魔卒들은 百戰百勝의 勇將인 氏의 神術下에 敗北滅種되여 大衆의無上한 幸福이될것을 밋는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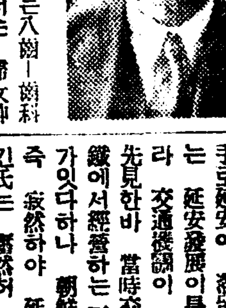
有爲한青年學士 裵榮建氏

延安社會에 가장무거운 信仰을 가지고 法律、經濟界에 最高權威의 重鎭이 되고잇는 裵榮建氏는 年方三十三歲의 政治家이며 實力家이다 莊嚴한儀表와 堅實한 意志는 一般이 가장尊敬하는바이다 그리하야 同儕間 代讀士니 道知事니의 稱讚을 밧고잇는點을 보아서도 그의人格如何를 證明할수잇다 일즉이 當地普通學校를 거쳐 京城培材高普를 優秀한 成績으로 마치고 이여 法政大學法文學部獨法科를 卒業하엿다 在學時에도 青年會長이며 總務等을 歷任하야 模範的으로 學生界를 支配하엿다 昭和五年四月에 歸鄉하는 即後로 黃海道廳地方課에 就職하엿다 元來 自力自立의 信條를 目標로한 氏는 不過一年에 職을辭하고 歸家한後 未來를爲하야 社會를爲하야 研究와 修養으로 心力을 傾注하고잇다 먼저 延安의 가장 重要點인 高普校의 建設을 高調로 鼓吹하며 委靡不振한青年社會의 風紀善化를 努力하고잇다 따라 大延安建設의 囑望은 오로지 氏로 말미암아 實現될것을 一般은 期하고信하는 同時에 氏의 健全을비는바이다

醫療界의重鎭 金永珍氏

延安醫療界에 가장名聲이 노픈 醫師 金永珍氏는 天稟이 寬厚仁慈하야 萬人의 敬愛를 밧고잇다 [illegible] 本是 京城出生으로 [illegible] 卒業하고 約二個年間 [illegible] 修了한 後 海州救世病院에서 約十年間 臨床實務와 아울러 만흔 研究를 거듭하엿다 距今六年前에 延安에 開業한後 豐富한技術과 經驗을 應用하야 淸衆의使命을 다하고잇다 特히慈善心이 富하니만큼 無產大衆에게는 加一層親切히診斷하고 同情的施療가 만흔바 開業以來로 數만흔 患者의 시드린 가려는 生命을蘇生케한 救世救主이다

齒科界의泰斗 邊錫鐸氏



昔日에 듯지못하든八齒—齒科醫院이라면 延安에서는 婦女紳士、邑村 누구누구를勿論하고반다시 邊錫鐸氏(三)를 指稱하게된다 延安이라고齒科가 한아둘뿐이라만은 學理에 透哲하고 技術에 精妙한 所致이다 氏는本是平北郭山出生으로 梯級的學業을 次第終了하고 京城齒科醫專을 優良한成績으로卒業한후 距今七八年前에 來延하야 開業하엿다 稟性이 豪爽明快하고 學術이 高明精通하니만큼 業務日就하야 儼然이 斯界에 獨步的으로 成功을보게되엿다 ◇寫眞 邊錫鐸氏

名勝古蹟

▲飛鳳山‖은 邑主山이니 三峰遠景과 萬丈雄勢 海西名山中의 一

▲臥龍池‖一名南大池는 邑南山外에在하니 周圍가 二千七百里 面積이 二百餘町步이다 朝鮮三大池中의 第一位로 每夏月蓮花가盛開하면千古有名한 中國錢塘湖로도 幾分讓步할만한 名勝地이다 옛詩人의 警句一句를 적어보면 紅亭縹緲水中央 十里平湖鏡面光 星裏心魂渾似醉 坐來毛髮欲生香 淩波更惜沾羅襪 照日偏憐拂淡粧 恨不同携蘇東坡

▲大捷碑‖邑鐘路에在한바 壬辰功臣忠穆公李廷馣先生의 冒死勝捷한 大功勳을 記念한碑石이다 雨雨風風四百載에 無語獨立如有訴

▲顯忠祠‖壬辰兵變에守城功臣을配享한院祠로서 距今六十六年高宗辛未에 毁撤되엿드니 距今十年前에 士林의發論으로 다시 復設되여昔에는南山下에建在하엿든것을今에는 邑西社稷壇址에 宏然이新築하엿다

▲孝子碑閣‖出天大孝李昌梅의 墓閣이니 距今約二百六十年前그孝行이 千古一人이라 親이老에 必嘗肉奉하고 孝志와孝誠에至誠을다하엿스며 親이歿에 毀瘠節하야 繫織于天하고 上墳泣血에 神感于地하야 墓前屈膝의 跡과 踏足의 痕이며 前俎豆陳設의 痕跡이 近三百年後 今日까지 宛然如新하니 雪不封에 只今令人感歎이라 距今約一百九十年間에 道伯이 啓聞하야 旌閭立石이러니 距今十三年甲子歲에 延安有志의 發起와 捐財로 碑閣을 刱建하야 天生大孝의神跡異行을 永久保守하게되엿스며 感慕參拜者 四時不絕하고잇다

▲北神堂‖邑北飛鳳山南麓峽谷間에在한바 絕勝의 幽景은 遊人을忘返케한다 建設年代는未詳하나 넷날龍蛇의役에 功臣을記念하야 建設한것인가한다

▲鳳岫亭‖北神堂側에在하니 北神堂重修時에 此亭을起하엿다 入口에 刻石한 玉流洞天四字는 塵世를떠나 仙區에 入하는感이 有하며 亭下石間細孔으로 藥泉이湧出하야 眼疾等에 飲之洗之하면 立即見效하는 有名한藥泉이다 年久頹圮하엿슴으로 距今十二年乙丑에 邑內有志의 發起鳩財로 一新重修하엿다

▲龍鳳亭‖邑南山東麓高頂에 立하엿스니 距今十九年戊午에 邑內有志가 鳩財創建한바 佳花異木과 閑雲歌鳥 人의心神을 爽快케하는 延安唯一의名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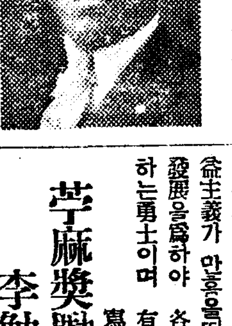
▲觀蓮亭‖邑北鄉校越飛鳳書院舊址에在하니 距今二十五年에 邑內財員이 鳩財刱立한바 泉石이 幽雅하고 風景이 淸新한 名亭이다

▲延安溫泉‖邑에서 約一里半에 處在한바 朝鮮黃海線 延安溫泉驛에서 約七町을 南下하여잇스니 溫度와 包含藥性이 良好하야 皮膚病 神經痛 消化不良等 諸症에 特効가 잇슴으로 每日 遠近浴客이 絡繹成市하며 四圍가 全部 泥炭層인바 世界的으로 有名한 泥炭層溫泉은 伊太利에 一個所와 밋延安과의 二個所뿐이라한다

其他 平康堂 聚遠樓 君子亭 寒亭 樂民亭 鼓鼙 制勝樓等名 樓閣亭이 잇서지만은 只今行人으로 遺址를 밟을때에 오즉感慨의情을 이르킬뿐이다!

農村의先驅者 宋容言氏

겨우 三十歲의青年으로 衆望所歸에 面協議員까지 被選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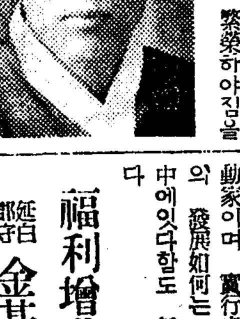


면 그의人格如何는 그야말로不問可知이다 氏는 本是延安邑出生으로 普校를卒業하자 이여社會線上에 出馬하게되엿다 氏는實노 青年社會의木鐸이며 公共事業의實杖이엇다 무엇보다 農村啓發이 最急務로하야 繁鬧한城을떠나 距邑一里許農村으로 移住하야 몸소農務를奬勵하며 農者를 指導하야 勤儉貯蓄과 自力更生을實施하도록 努力하고잇다 일즉이繁華公子로 이와가튼實務的事業에率先體行함에는 놀나지아니할수업는 意思不及의 事이다 따라 氏는 延安社會事業에 中樞人物이될것을 一般은 밋는바이다 ◇寫眞…宋容言氏

工業界의元祖 宋永奎氏

氏는本是延安胎生으로 工業의天才가 拔群하엿다 貧寒家庭에 태여난環境으로 그天興의才技를 發揮치못하고 十五六歲에 남에 鍛冶場에 店員이되여 助役하고잇는 不過半個年間에 발서 鐵工에 對한 妙理를 七分透得하엿다 그리하야 不過二三十圓의小資金으로 小個鍛冶業을 自營하엿다 元體特異한 技工으로 製作物의 體裁優美堅實함과 絕對信用爲本으로 勤勞誠儉한結果 業務는 마치 順風掛帆的影響으로 日就月長하야 於是乎五六萬圓巨資의 成功을 보게되엿스며 從來하는 店員이 三四十名에 達하고잇다 氏의製作品으로는 大概가農具各種을 主로하야 每月販賣高가 三四千圓을 超過하는 延安工業界元祖이며 青年實業家의 成功者이다

材木商成功家 高應權氏



氏는 本是 長湍出生으로 頭腦가明晳하고 勇斷果敢한青年이다 延安의發展이 急角度로 進興됨을따라 戶口날로 繁榮하야짐을 본氏의 慧眼은 먼저木材의多數需用될것을 識破하고 勇敢히若干小資金으로 斯業을 經始하엿다 果然氏의 預料에 어김엇시 業務는 旭日昇天의勢로 如風吹潮하야 不過幾年에 巍然이大成功을 보게되엿다 鐵中에錚錚인氏는 自我의利己的野慾보다 博愛的公益主義가 만흠을따라 延安社會의 發展을爲하야 各方面으로 活動하는勇士이며 有望한志士이다 寫眞…高應權氏

苧麻奬勵의鼻祖 李勉植氏

氏는本郡掛弓面葛石里에居住하는當年三十五歲의 青年實業家이다 多年間漢學을專修하다가 이여實業方面에從事하엿다 朝鮮의 唯一자랑인 苧麻를西朝鮮地方으로서는在來로부터 地質 風土關係라하야 其栽培를 留意치아니하엿다 氏는이에 徹底的原因을探究키爲하야 南朝鮮地方苧麻所產地를 視察하면서 種植과栽培의 方法을 博探見習하고 歸延後氏의 田圃에 依法試驗하야 본結果 成績이 意外良好하야 現今大規模로 栽植하는中이며 따라延安土質氣候가 苧麻栽에 가장適合하다하야 널리宣傳하는一方奬勵에熱中하고잇다 [illegible] 이에關한 學理의論文을 쓰는中이다 新業이 압으로完全히發展될것을 밋는바 延安農村에 새로운收穫이 올것을期하는 同時에 氏의 加一層始終一貫으로 奮勵努力하야 偉大한功績에成功하기를

延安自動車王 趙昌燮氏

가튼商業 처녀코도 成功敗는갓지아니한것이다 原因이라면勿論運也과 數也라 關係도잇다하겟지만 첫재 時勢的機會를 잘타지 아니하면 안된다 이에經驗力이만코 推察力이밝은本是海州出生으로 自動車學校를 卒業하고 이여運轉手로延安에 滯留하든 趙昌燮氏는 延安發展이長足的進興되움을따라 交通機關이 勿論重要할것을 先見한바 當時交通機關으로는 朝鐵에서經營하는 一個所의 自動車部가잇다하나 朝鮮사람으로는 寂然하야 延安의 寂寥를 늣긴氏는 奮然히 겨우 中古車破損二臺의 自動車로 自營自動車部란 看板을 붓치어 瓢瓢이 소리를 외치게되엿다 그야말로 時來風遺格으로 時機에 如意珠를 어든 活龍은 不過四年間에 十餘臺의 最新式車로 淸溪 瀾綠臺等 要地에 獨線을 占得하야 定期縮地術을 連絡縱橫하고잇다 따라 昔日 數間茅屋이 今日 二層洋式事務室로 變하야 市街의 色彩를 粧飾하고잇다 (寫眞은 趙昌燮氏) 되기를 비러마지아니한다

延安中堅人物 申鉉聲氏

延安中央 市場北側에 櫛比高聳한 建物의主人公 申鉉聲氏는 自來 一郡居甲이오 社會運動의先鋒이다 百萬長者인 舍兄 申鉉[illegible]氏를 背景으로 모든社會事業의 先頭에立하야 勇往邁進하는 勇將이오 中心人物이다 豪濶한 體貌와 包容의度量 初見의人이라도 自然敬仰치 아니할수업다 氏는 確乎不拔의 意志家이며

交通

海路—白石浦(延安邑南三里)는 每日仁川來往에 定期發動船이 잇고 其他西南海岸一帶와 羅津等 十餘個所의 浦口가 잇서서 船舶의 便이 有하고

陸路—京義線과黃海線이 京義線土城驛에서 分岐하야 延安을 經由로 海州及沙里院에 至하고 海州白川淸溪里 綠陵市其他重要地에는 定期自動車와 [illegible]시가 잇서서 交通에 安全便宜하다

邑內各種機關

金融組合	二
漢城銀行支店	
水利組合	二
東拓會社	
鮮滿開拓會社	
精米所	三
仁川穀物檢査所	
電氣會社	
穀物商組合	
[illegible]	
[illegible]	二
普校	
[illegible]	
幼稚園	
延安保育會	
青年會	
人事相談所	
醫院	七
入齒所	四
自動車部	二
延安劇場	
印刷所	二

米穀

米—百萬石 豆—四萬五千石 麥—六萬石 其他雜穀五萬餘石

延白郡守 金基俊氏談 福利增進에努力

郡行政의 運用如何는 郡民의 休戚에 至大한 影響이 有함을 思惟하고 常時細心의 注意와不斷의 努力으로써 自己의 職責을 다하랴 念念하거니와 赴任日淺하야 郡內의事情에 精通치못함으로 短期間에 郡內狀況을 視察한後 產業 敎育 土木及農村 振興等施設의 緩急을 보아 各關係官公署와 言論機關 諸位와 協調하야 最善의方策을 定하야 郡民의 福利增進에 遺憾업기를 期코저 할뿐이다

"延安을爲하야 誠心誠意것" 延白警察署長古谷氏談

氏는 大正九年에 警察界에出仕하야 同十二年에 警部補로 昭和二年에 警部로 昇格되여 同八年에 信川警察署長으로 任命되엿다가 今年七月에 延白警察署長으로 榮轉되여 赴任하엿다 氏의命令은 信川傳說로도 篤厚한바어니와 天性이 英明淸廉하야 公으로나 私로나 社會向上과 地方發展에 對하야 積極的努力하는분이다 往訪한 記者에 對하야 氏는快한顏色으로 右와如히 말하여주엇다

祝辭

延安面長 禹夏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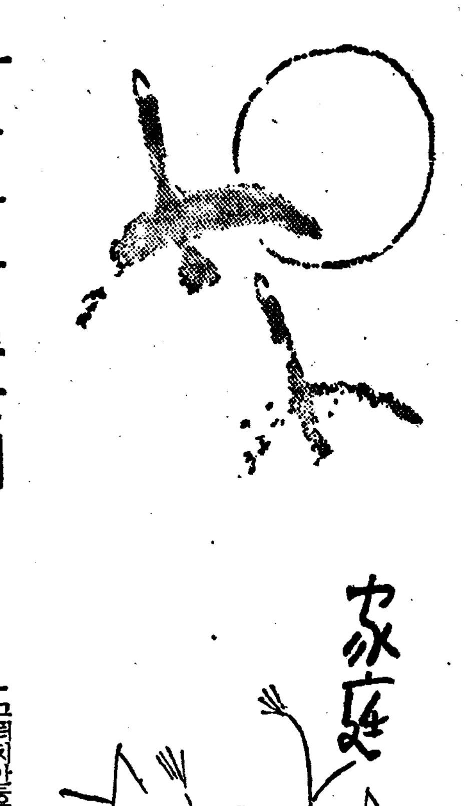
沃野千里에 年產百萬石인 延安 米庫 產業發展과 文化施設이海西屈指인 新興延安! 繁榮延安! 影子를 滿天下에紹介하기爲하야 苦心努力한 支局長李孝承氏에게 雙手를 들어 意味기픈感謝를 드리며 社會指導에 先鋒이며 言論機關에 權威인支局長! 더욱勇健하게 奮鬪努力하야 大延安建設에 對한熱誠을 始終一貫하실지어다

片富烈

海西의關門 全鮮의穀倉 一望無際의 廣漠한田野 年百萬石米를 產出하는 大延安 延白兩水組가 完成되고 黃海線鐵道가 開通됨에 伴하야 諸般文化施設과 民衆生活形式이 長足的發展과 向上을 나타나게되엿다 그리하야 新興延安의心臟은 無限히 이제 延安은 生活戰線에 落伍者를 抱容할만한 能力을가지고 그들을부르고잇다 이번紹介版發行의重任을 負하고 專心活躍한 支局長李孝承先生 우리延安言論界에 가장權威인 關鍵으로 十餘星霜 努力의結晶이 곳이紹介版이다 이에對한所得影響이 엇지 적다하랴 延安이 先生에對한囑望이 크니만치 自重하야 開拓의 餘地가 만흔 우리延安을 爲하야 加一層奮鬪努力하여 주기를바라는바이다

謹告

처음부터 마음먹기는 될수잇는데까지는 山野遠近을不問하고 坊坊谷谷이며 家家戶戶를 無漏巡訪하면서 人物產業 名勝古蹟 其他珍事奇事 무어이나 遺漏업시 實狀그대로 滿天下에 紹介하야 보려고하엿섯다 元來秋後로豫定하엿든것이 今般本社로부터 指定을바다 突然急遽하게된 時日關係로 不得已當初의 豫定을 貫徹치못하게 된것은 比할데업는 遺憾이다 大略郡勢와 郡內各界名士幾位만을 紹介함에 止하고 未盡한것은 이다음機會로 미루게되엿다 그러나 畵花者! 그香을 畵치못하고 畵虎者 그骨을 畵치못한 것과 가티 그의 人格과 手腕의 神秘的 苦心이 그 骨子的理想과 精神的意義에 對한 紹介로야말로 엇지그眞一을 表實할수잇스랴 따라本人의 紹介만으로도 오히려 未洽함이 만흔 것을 自白하니 다만 널리 寬容하여주심을 바라며 直接間接으로 後援하여주신 人士에게 衷心으로 謝意를 表하는 同時에 아울러 指導와 鞭撻을 더하야주심을 바라는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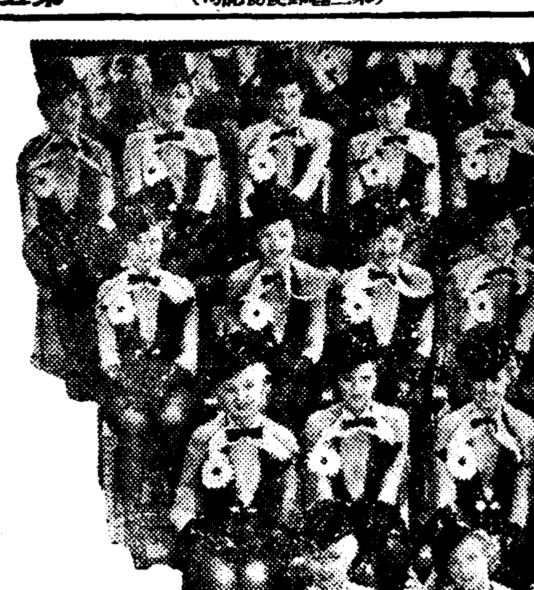


秋天夢想曲

[illegible] 아기는 토성(土星)이라는 별이잇습지요. 이별의 적도(赤道)주위엔 아주 크다란 고리와가튼 둥울레가 싸고잇습니다 금이지 쉬지 누가압니까만 지구에서 바라다보면 그러케 보입니다 그런데 말슴이지요 만약에 이런 둥울레가 우리지구에도 잇다고합시다 밤하늘에 이얼마나 장관이겟습니까 이지경이된다면 우리는 달만가지고 별만가지고 노래햇슬리만무하겟지요 이 그림은 사진이아닙니다 만약에 지구에 이 둥울레가잇다면 적도근방사람은 밤에 이런하늘아래에서 속삭이겟지요

사람마다얼골에 결점은잇다

이것을 슬쩍감추는 것이 잘한다는화장의솜씨



아모리 어엽분 얼골이라 하더라도 어딘든지 한가지 결점은 잇는것입니다 그러나 그점은 도로혀 어엽붐을 도울는수가잇습니다 그러므로 결점이잇다하야 비관하시는것은 잘못입니다 그러치만 결점이 너무드러나고 눈에 띄이도록 지나친것은 또한 보기에 숭합니다。이것은 잘화작하여서 수연하게 화장으로 감추도록 힘쓰지안흐면 안됩니다。

이마가 유달리 넓은 사람이 잇습니다 이것은 머리쪽찌는모양으로 조절하는것이 제일효과가잇습니다 이마가 넓고 머리숱이 큰사람은 머리지진가락을 한개쯤이마에 내여 놋습니다 이마는 넓으나 머리통이적은사람은 머리카락(끄불끄불하게 편것)을이마아페내려노호면 좃습니다、화장으로 조화시키는 법은 눈섭을뽑아가느다랗게 헐난자리에 그리고손독송이나 솔로호리게합니다 붉은 살빛으로 조금지트게 칠하고눈섭은 위는두고아래쪽을뽑아서 눈섭을 우으로올너간것처럼보이게하는것도 조호나 이것은 여간능한 화장술을 가지지안코는 실패하기쉽습니다

그리고 이마가너무좁은사람은 머리를 쪽저올릴때 꼬불머리를 느리내리거나지말고 머리밋부터 우으로 땅겨올리도록 하시십요

그러치안호면 이마를보기조케잘미러서 털을조고맘아 버리는것도 좃습니다 이마가 좁은사람이 대개이마에털이숭숭나잇는수가 잇습니다 이것을 옛날이마미듯하지말고 면도나무엇으로 잘밀어서 머리스털과 이마사이의 경계를 훤하게하는것이조흡니다。

그다음 코가 너무 큰사람은 화장으로 감쪽가티 숨길수잇습니다

붉은 어두운빛갈로바르고 다갈색으로 코양여페 그늘을지웁니다 귀미트로잇스는 머리를휜하니 꿀어올리면 큰코가더크게보이므로 거긔는 숨기지는것이 좃습니다

코가너무나즌사람은 전면으로는 잘감추어질수잇습니다 뺨(볼)지트게바르되 코스등만 허게하고 코잇는데는 될수잇는대로 어듭게바르지말도록 하여야합니다 여프로는 좀치를해서 잘되지안호나 코머리로부터 수령으로선을 그어서 그것이닷는곳에잇는 머리털을 조곰지지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입이너무큰 사람은 보기에 그다지아름다웁것이 아닙니다 뿐만아니라사람이 매친곳이업고 좀싱거워보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칠은조곰안드게 전체에 고루고루바르도록 하는것이조습니다 이와반대로 입어너무적은것도 조흔것은아닙니 이것은 극히간단하게 연지는 조곰진케칠하고 입술가으로 은은하게연지를칠하면 좃습니다

군때무든데

옷에 음식물이 떠러진것을 그냥두면 지지안습니다 그러므로 떠러지는족시 물을 꿈어서 음식물떠러트린자리를 빨도록하십시요 여러번게속하야빨면 아무리안빠지는 군때라도 감쪽가티 지는것입니다

손가락다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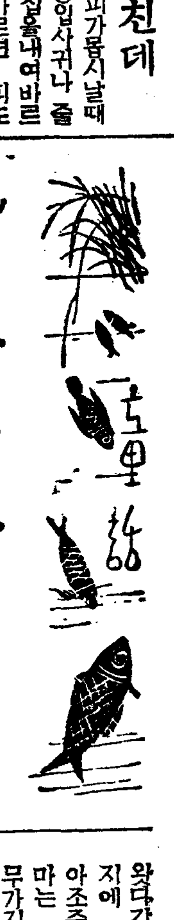
손가락을 끄허서피가몹시날때는 곳 배방죽(蓖)입사귀나 줄기를 문질러 그집을내여바르던지 파징을내여바르면 피도 끄치고 곰지도안습니다

비오래쓰는법

소제하는비를 오래도록 쓰시랴거든 비를쓰기시작할때 소금물에 추겨가지고 쓰시면 그비가 잘허러지지안코 오래도록쓰게됩니다

"이사가는맴이"

南基薰



논에는맴꽁이의 우는소리가 맴꽁 맴꽁 산에는 매미의 우는소리 맴-맴-。내소울에는어린동무들의 고기톡찹고헤엄치고 하면서 아조재미나게놀고잇는 푹푹찌는더운여름이엿습니다 옥순네집뒤에는 조고만 동산이잇섯는데 거기에는 양버들과소나무 밤나무가 이만때만되면새파란입사구와 가지가지 이쪽저쪽으로작고작고 뻗어나와 바람에불리고 불릴때마다 힌구름이 이리저리로 몰려단이는것은 꼭술래잡기를하는것 갓습니다 지금은 아조아조 나무새가빽빽하여젓지요 그래서 나무가지들은 서로서로다정하게 바람이부는대로 끄리를대다 입을마치엿다하며 몰러단입니다 이러케 바람에 불리여 왓다갓다할때마다 양버들가지에 꼭부터 안젓는매미는 아조죽겟다고 야단을치지요 나마는 바람은끈치지안코 나무가지들은 그대로 조흔듯이 기뻐한듯이 쉬지안코이리저리 춤을추고잇습니다 바로이때 어머니매미는 오늘이나 나무가지가만히잇나하고 살금살금날려와 갸웃이 내려다보앗습니다 큰일낫습니다새기매미가 한부로흔들리는나무가지에서엇절주를모르고가지가 흔들릴때마다 벌벌떨면서우는듯이 어머니를 부르는듯이맴-맴-하고 소리칩니다 어머니매미는 깜짝놀리서주춤하엿스니 이것은 다른것이아니라 언제든지 이만때 여기를 오기만하면 식구들을 맛나보앗는대 오늘은웬일인지 아버지매미도 업고 새거매미혼자서만 울고잇는것을 보앗기때문이엿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어더먹고 가튼이슬이 오늘은 햇님이 먹엇는지 바람이가저갓는지 도모지 눈에뛰우지안햇습니다 살금살금 이리저리로 차저도라단여보앗지만 아버지매미도업고 이슬도볼수업섯습니다 어머니매미는 얼는 앗가잇든대로가서 동무매미들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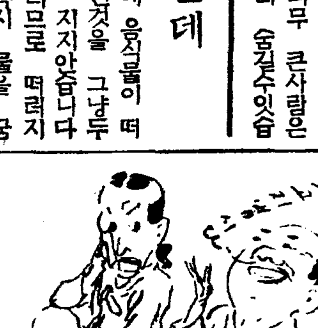
『얘들아 큰일낫다 오늘은이슬도말르고 내아들은 나무가지가 못쓸게구려서 죽을지경이란다 너이들도 다-가티좀가보자』

이러케 울듯이말하는어머니매미의말을들은 여러매미들은 똑가티입을모아서『아니뭐야 별소리를다한다 그게 뭐-무서야 그럼우리모도들 가보자』하면서 매미는 한떼가몰려서 가만가만이날려가보앗지요 정말이슬도업고 아버지매미도 어듸로 다라나버렷고 곱게뻐처잇든 나무가지들은 새끼매미를 안처노코 막-재만대로 흉을추고 잇군요 그러니 이일을어쩝니까? 그래서 동무매미들도 비로소눈이 둥그레저서 대체웬일인지를 모르고 쩔쩔매는판에 장사매미 한마리가 바람을헤치고 푸룰푸룰 날려드러가서 새기매미를안고 나와습니다 그러지만 이날은이슬한방울도 못어더먹고、그대로 잠욱자게되엿습니다

그이튼날아츰이되자 어제그곳을 다시차저가보앗지요 그랫드니 오늘은 다른날과 가티 이슬이만히내린채 그대로잇섯습니다 그래서인제는되엿고나하고 가뻐하면서 가만이가만이 날려가서 이슬을먹고잇자닛가 바로 고때 별안간어디서인지 터벅-터벅-하는사람의 발자취소리가나드니 잠간잇다 몃사람이 도끼를 기다란장때에다 주머니를다려가지고매미가잇는나무밋트로 왓습니다 모혀안젓든매미들은 아조아조큰일이 낫습니다 전에는 아모도몰라서 잡허갈 걱정은업섯는데 인제는 저 못쓸사람들이 우리를보앗스니 까딱햇다가는 산채로저 사람들에게 잡혀가겟구나하고 궁리하고 궁리하다가할수업시 저-깁숙한 다른산으로 이사를가기로햇습니다 그래서 간신이간신이 이리피하고 저리피하며 사람들에게 쪽기여 단이다가 밤이되자 사람들이 업는틈을 타서 할수업시 정드리고살든 이곳을 떠나서 저-깁숙한산으로 아조영-영-이사를가습니다 외딴인지이날은밝고 깨끗하게 보이는반쪽달님이 산마루터에 걸려잇서 가는길을 찻기는 조호나 그래신 히뭇히뭇한잣가와가튼 사람의 모양이보이는것가태 도한무서웟습니다 그러치만 매미들은압뒤를돌새업시 서로서로 살것다고 압서거니 뒤서거니어서어서깁숙한산으로드러가자(고잣고잣고)날러갓습니다。끗

선남선녀의 궁합보는법

재래의궁합은허황한일 체질을보아 고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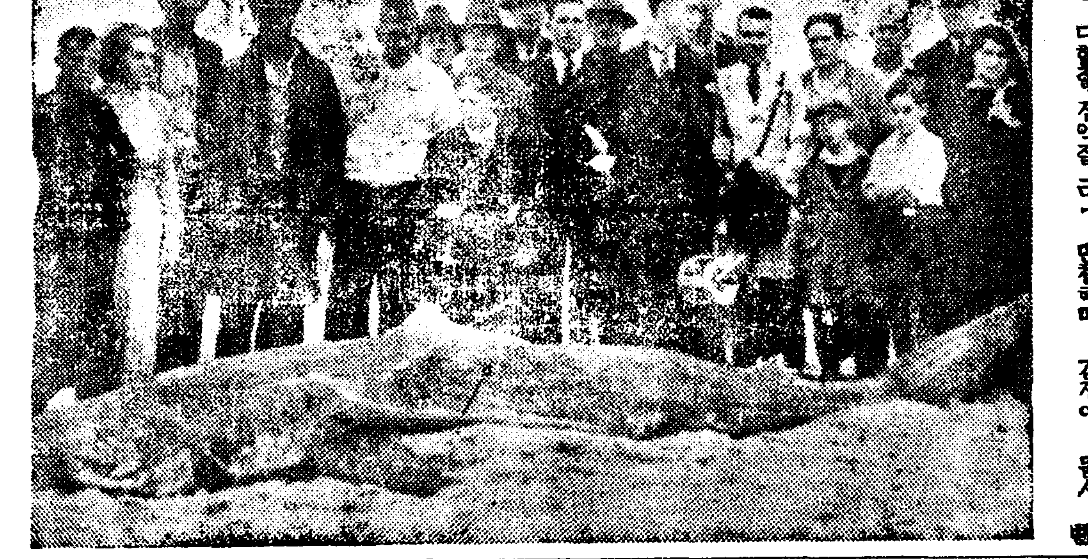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혼인하는데 흔히궁합이라는것을 보는것입니다 그러나 요사히 궁합이라고말하는 것은 모다미신에서나온 생년월일을 가지고 보게됩니다 생년월일을 가지고 그사람들의 결혼생활을 점친다는것은 여간허황한것이 아닙니다 그러타하야 아모것도보지안코 혼인을 할수는 업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생년월일의 궁합보다도 이것을 의학적으로 해석하야서 남녀의 체질과 성격을 참작하는것입니다

례를들면 성질이조급한남자가만약 그와가튼 녀자와 결혼한다면 이결혼생활은 불행하여 질것입니다 웨그러냐하면 조급한 성질을 가진사람끼리 모이면 매사에 의견이 충돌되여서 싸홈이 자조일어납니다。기질이라는것은 틀린 그사람의 생활환경과 체질에 의하야 결정되는것입니다.

체질을 분류하야보면 대체로 신경질、다혈질、점액질、근골질등으로 논하볼수잇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체격은 튼튼하며 그대신으로 한번 노하면 불꼬가튼 성미를 가지고 잇습니다 신경질의 사람은 체격은 호리호리하며 약하나 감정이 빠르고 동작이 민첩하며 감정이 뭅시 빨하게를 자조하는까닭에 매사에 실패가만습니다 그다음 근골질인 사람은 근골이 발달되고 강하야서 회를잘내는수가잇습니다 그리고 조곰하면 우울해지고 번민을잘합니다 점액질의사람은 기름기가 만코 활발치를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냉정하야감정에움지거지안는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체질은 어떠한 상대자와 배합이되어야 조흐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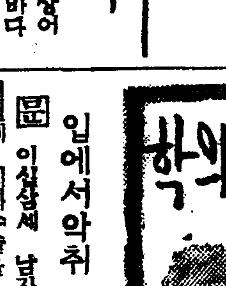
다혈질—근골질
근골질—신경질
신경질—점액질
점액질—다혈질

로 결합되면 리상에 갓가움다고볼수잇습니다 다만 우에서든것이 모다한한이상스런성질을가진 사람도잇고해서 공식적으로드러낼수업스나 벳날 생년월일의 궁합보다는 과학적 근거가 잇는것이며 실지에갓가운것입니다



굉장히큰상어

열다섯자반이나되는 큰상어가 호주시드니-히 바다에서 잡히엿는데 중량이일천여백폰드나되엿으로 이것을 잡기는 잡엇지만 무척로끄러올이기가 곤난하야 다섯시간만에야 겨우 끄러올엿스며 물웅아리가 어떠케크든지 여섯자가 칠신넘드랍니다



입에서악취

問 이십삼세 남자이온데 수일전에 치과수술을 바덧습니다 의사는 탈지면가튼것을 끼채그대로 두엇난데 그것이 입병에 별상관잇슬가요 도악취가 나는대 무슨약이조홀가요

(市內崇一洞 讀者)

答 치과수술을 밧고 탈지면을 끼워다하는것이 도모지요령을 어듬수업습니다 아마수술한 창구(創口)에 (가-제탐퐁)을한듯하오 엇지하야 치료를 계속하지아니하여는가요 입에서악취가 발생함은 물론이요 오래도록 그대로둔다면 위험하니 속히 의사에 진찰을바드시요

(世醫專齒科 金詰庸)

소화될때복통

問 이십일세된 남자인데 만삼년전부터 밤이소화될때쯤되면 명치밋치 쓸이고 주머가튼통치가 가슴으로 올러옵니다 소화도잘되지안습니다 무슨병이며 치료는 엇지하여야 되겟습니까

(新興生)

答 십이지장궤양인것갓습니다 자극성음식은 해롭습니다 유하고 소화잘되는음식을 선택하여잡수십시요 복약은 좌기처방을사용하여보십시요

一、重炭酸曹達 一五、〇
炭酸카르시음 三〇、〇
炭酸마그네시음 一五、〇
酸化炭酸蒼鉛 八、〇
右混和每食前一茶匙服用

(聖母病院長 朴秉來)

맛변한육종에는 『프토마인』을주의

다시 끄리고 구어도 마찬가지 열에는 끗덕안는독소

음식에 배탈이 잘 나기는 한녀름보다도 실상이른 가을입니다。그 것은 일긔가 하로에도 차다 떠웟다 심하게 변하야 음식이 상하기도 쉽고 위생이 잘못 되기도 쉬운 까닭입니다。첫재로는 배를 차지 안케 하도록 하고 둘재로는 상한 음식을 자시지 말도록 하여야 합니다。그 두가지의 주의는 녀름부터 늘 말슴해 온 것이지만은 서늘한 바람에 식욕이 왕성이어 행여 그런 주의를 게을리 하실까 렴려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육식중에도 제일 재미업는 것이 육종입니다。육종으로부터서는 흔히 푸토마인이라는 중독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륙십사년쯤전에 셀미라는 학자가 부패한 단백질(蛋白質)이나죽은 동물의 몸에는 독소(毒素)가 잇다는 것을 발견하얏습니다。그독소를 히랍말 이름 지어서 프트마인이라고 하는것이랍니다。단백질이 부패하는때 생기는 부산물(副産物)입니다。그 속에 잇는 세균(細菌)이 질소(窒素)를 포함한 물질에 작용하야서 일어나는 화학적 독물(化學的毒物)이라고 말합니다。 그이외자세한것은 잘 아지를 못 합니다。그저 식물성(植物性) 알카로이드 독과 흡사한까닭으로 그묘은 부패성알카로이드라고도 일르고 또 혹은 동물성(動物性)알카로이드라고도 부릅니다。그러나 나중에 와서 식물에도 그러한독이 잇다는것을 알게 되얏습니다。동물성알카로이드는 그때부터도 적당치를 못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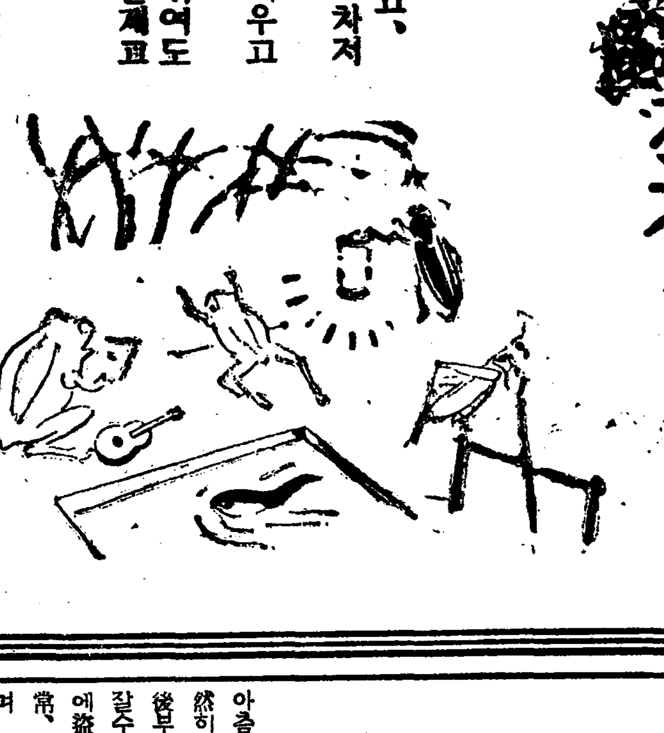
하여튼 그 육종으로는 아모런맛도 업고 아모런 냄새도 업는 것입니다。그래서 마치 보통의 육식이나 조금도 다름이 업습니다。흠론 아조 완전히 부패한것이라면 부패한데맘아서 냄새도 다르고 맛도 다른것지만은 처음 부패하기 시작할때쯤은 본래 냄새나맛으로서 얼는 눈치채 내기가 어려운것입니다。더구나 거기 프토마인의 독소가잇는냐 업는냐는 도저히 알아 낼수가 업습니다。그런데다 그 독의 도하나는 아모리 노픈 열에라도 변하지 안는것입니다。주다시 끄리거나 굽는다고 하야서 그 독이 결코 업서지지를 안는다는 말입니다。그러에 불구하고 우리네、가정에서는 상한 육종을 다서 끄려거나 구워서 흔히들 먹지 안습니까? 그러케 하니까 프토마인중독이 자연 만흘수밧게 떠 잇겟습니까?

중독된 증상은 배가 아프고 욕지기가 나고 토사를 하게됩니다。그와동시에 눈동자가확대되앗다가 점점 수축되고 맥박이 미약하고 갈다러가 느른하고 심한 경우에는 바람까지 일어 납니다 그래다가 만히는 졸리지요 만은 생명을 일는수도업지 안습니다 어느병이나 무서울지 안하병은 하나토업습니다 만일 중독자가 생기엇거든 속히 토하거나 설사할약을 먹이어 독을 쏘다버리게 하십시요 정히심한경우에는 의사를불러다가 위장세척을 하십시요。

『여름밤』

개똥불은
초롱에 불을밝히고、
멧둑어세끼、불빛 차저
나온다。
올챙이는 헤염 배우고
어린개고리가
어논、저논、건너뛰여도
개골 개골、절잔흔재표
리는
울기만 한다。

(글쓴사람 오장환)



여름을타서몸이노곤하고

밤에잘수업고盜汗冷汗으로苦悶하며 多少의步行에도動悸喘息으로

肺와心臟이弱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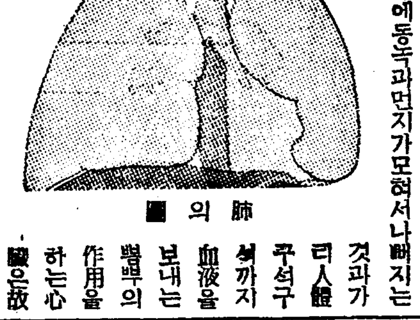
貧血症과腺病도이러케하면 顏色도조와지고健康해진다

렌도겐對症圖

아츰저녁으로 서늘해지近日 突然히弱해저서 몸이노곤해지고午後부터는 微熱이나서녁에는 잘수가업고 暫時잠이들면 全身에盜汗으로 氣分이나빠지며 恒常、上氣、肢氣로 煩悶하며 多少의 步行에도 動悸喘息으로苦痛하는분이顯著히만허지는것은氣壓의激烈한變動으로 只今까지體內에潛在하고잇든 潛在性綜合毒素가涼風과同時에거치러지는까닭입니다

肺와心臟에

이「瘀血」이心臟에停滯하면 뿜뿌에동두과먼지가모혀서나빠지는것과가리人體구석구석까지血液을보내는뿜뿌의作用을하는心臟은故 血行을妨害하며 여러가지病毒性疾患을招致하는것입니다



肺의圖

外部로부터의 結核菌의侵入은其抵抗力이弱한機會를타서 一期二期로悪化하야 回復할수업는 結果를招來합니다

瘀血新療法

이무서운「瘀血」을現代醫學의立場에서 古方醫學의 再檢討는從來의거머리와부항에依한 瀉血法은 破血劑라고稱하는峻下劑療法等이 病人、구석구에게나 使用할수업는缺點을除去하고內服藥의힘으로副作用이업시「瘀血」을 體外에排泄하야血行을調整하고順次로苦悶하는病狀을快癒로 引導하는新療法의創見에成功하엿습니다 어떠케하야 本療法은醫病의 實績을내는가 詳細한것은血液循環과 瘀血療法을 一讀하시라

「瘀血」은

自覺과症氣가업는분은업다고말하는것가티 感染에依하던가 又母로부터의 遺傳이던가 何如튼 障을이르키어 多少의 步行에도 動悸喘息으로 顏色이 나빠지고 좀이잇스면肺의機能은 衰弱해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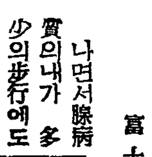
排便의變色과「瘀血」

粘性으로 賤보다도무서운毒性을 가지고全身의循環系를 거칠게하는「瘀血」을順히中和分解하야便通과同時에 體外에排泄하는小屋先生創製의 フルチ錠은古醫學의眞髓와現代醫學理論의 一致가나혼 新解毒劑血劑로서大端한好評을博得하고잇스므로 永年의梅毒으로困難하신분이馬病血을 除去하야 血行을整齊하야黑便이나오지아니할때까지服藥하시면 自然히 苦悶하시는症狀이나어버립니다

讀內임히술담배의 毒과肉食毒、鉛毒、尿毒等이업키어 體質하야 前述의 潛在性毒素即古方醫學의「瘀血」이되여 血液을 되게하야

微熱、盜汗(腺病)으로苦悶한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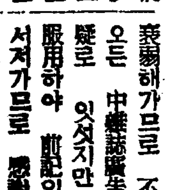
富士縣 中村良作



나면서腺病質의내가 多少의步行에도 動悸喘息으로 每日三時頃부터微熱、盜汗等으로 苦悶하고 血色이나빠서 나날이 衰弱해가므로 不安한날을 지내오든 中 新聞廣告를보고 半信半疑로 잇섯지만 곳フルチ錠을 服用하야 前記의病狀도 漸漸업서저가므로 感謝에마지안코繼續하야 服藥中……

動悸、喘息이나어서 心臟病이大端히나어

高松 杉方ふみ



其後 近處의藥店에서갓다가每日服藥하고 잇습니다。最初에는 別로效果도 나타나지안터니 繼續하야 나는오직 フルチ錠을 信用하야 먹고잇습니다。그래서最近은 그러케 甚하든動悸와 喘息에煩悶하든것이 나어서 힘을어더나올때를기다려 繼續하야養生中입니다

發賣總元 東京吉原房院

小屋眞明先生創製

フルチ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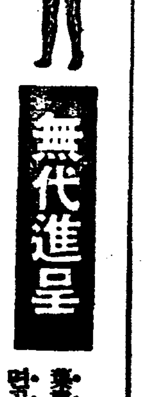
「瘀血」排除에 非常한好評

主効 神經衰弱 高血壓 腦溢血 中風 心悸亢進 梅毒

藥價 十一日分 三圓 廿二日分 五圓 五十日分 十圓

古醫學에서新發見

病毒排除 血液循環と瘀血療法 (四六判五十頁)



無代進呈 葉書로申込하면곳送付함

必讀 ▼頭痛、耳鳴、肩痛 ▼動悸、喘息、腰痛 ▼記憶力이薄弱하고 手足이마르는분 盜汗으로煩悶하는분 부름으로苦悶하고熟眠치못하는분 (中風、神經痛、梅毒、神經衰弱、心臟衰弱)

申込所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二ノ十 古醫學研究所 電話京橋(56)二一五八番・二六五八番 振替口座東京大五五〇八番

季節의餘除 避暑地錄告

釋王寺餘錄 (上)

徐光霽

이臺上에 무엇이든지 자조보고 배울에 보지고 情부치게 말린기와가러 避暑地帶로는 第一조코 第一情이 드리다 그야 海濱으로는 海雲臺, 西海으로는 九味浦, 北으로는 元山가튼 海水浴場이 잇고 金剛山, 白頭山, 大德山과

洞 [illegible] 等地로 名勝地 [illegible] 奇巖怪石을 探勝하는것도 조키는 조흐나 여름에避暑하는것이 目的이라면 다만 避暑의目的이라면 집에다 크다란乾葡를 사놋코 그속에 어름을 잔뜩 너허놋코 드러안지면第一 시원하고도 힌안드는避暑가 되것지만 적어도避暑地帶를 차저갈나면 더위를避할만한곳이 첫재이겟지만 山과

들어잇고 발이고나서 [illegible]할만한 곳이잇서야하며 近傍에 여러로 散策할만한 名勝古蹟이잇는곳이 第一일것이다
그點으로보아 釋王寺에서는 海水浴을하고 싶으면 四五十分이면 元山松濤園에 갈수잇고 三防의藥水와 瀑布를 구경하려면 한時間에 갈수잇고 海金剛以上의 奇岩怪石을 자랑하는 叢石亭(一名叢島)를 구경하려면 이역시數時間으로 갈수잇스며 金剛山을 探勝하랴면 釋王寺에서 乘車하야 安邊에서 박구어타면 바로外金剛으로 드러갈수잇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避暑를갈라면 釋王寺를차저간다。
每年 初伏이 들때쯤되면 몸시 더워진다 나는 몸이 남유달이 뚱뚱하고커서 太陽을

빗는사람보도 모기때문에 더위를 더타는모양이어서 벌써부터라면 어느해나 나는初伏날을出發日로定하야 末伏을 지내고 돌아오도록하엿다。
서울서 떠날때에는 밤車를 탄다 第一조타 왜그러나하면 서울서 아츰車를타면 釋王寺에서 내리게되어 낫車를 탈라면 여기서 나저거에더울고 그러니 서울서 밤열한時車를타면 새벽네시쯤 釋王寺에 나리게된다。
네온싸인과 엘레트르라에서 흘러나오는 都會의 아우성소리를 이저바리고 풀냄새 흙냄새가나며 산새가 지저귀는 農村의 새벽하늘을 처다보며 藥水涌洞으로 발을 옴겨어놀때 그곳사람은아죽 새벽장에서 깨지를안코서울 旅館에서

[illegible]내며옷은 [illegible]들이 서잇슴뿐이다
다方旅館下人에게 가방을맛기고 [illegible]가 코를[illegible]는藥水藥하야 거러간다 길엽에는 百餘尺이나되는 靑은 소나무들이 보기조케 뻑뻑히잇다 一조장거러가면 藥門이잇고 거기서 五大分 거러가면 藥水가잇다
洞口에서 藥水까지 不過十分內外밧게 거리가지 안흐나 그거러가는사이에 여페서는 고도맑은 개울이흐르고 좌우여프로는 數十年된 老松이하늘을 찌를만큼 노피노피소사잇다
이大自然속에 발을옴겨주고自我내는것을 생각할때에 넘으나 적고 無氣力하다는것을깨닷게된다

學藝

文章論

現役作家들의伎倆 —그들의個性과領分에關한小考—

② 安懷南

數年前에 梁柱東氏가 朝鮮의 文壇을 가르처 作文界라 일커럿고 數個月前에는 만흔文人들이「三千里」紙上에서 朝鮮文學의 世界的水準을 云爲하며 그것을 强調하엿다。兩便이 다 올흔말슴이라고 햇스면 조켓는데 그러면

……計……

筭이 안맛는다。作文界에서 世界的文學水準까지의 사이가 너무가까울기 때문이다。그러나 나는오늘날의 우리創作界에서도 作文程度에 不過한것을 볼수잇게되는것이요 또한 世界文壇에 내노하 遜色이 업슬만한것도 生產되여잇다고 안다。한참동안우리의 一部 作家와 評論家들이『에』와『의』를 區別할줄도 몰른다하야 物議를 일으킨바 잇섯거니와이것은 小學校兒童들도 못그러워 할일이다。
『그에 욱건。』
『그집의 갓다。』
이러케 쓰면 普通學校 一年級에서 第二學年에도 進級을 못하는것이다。그러커늘 이런분들이 小說을쓰시고 남의作品을바르로 文學的價値가 잇느니업느니 批評이랍쇼 야단들하섯스니 그꼴不見의 程度는 짐작하고도 남음이잇슬것이다。이러한態度의

……前……

評을가진作家(?)와 評論家(!)들은 가슴이 두근거릴것이나 나는 참아 部分과前部를 添附하고십지는 안흔바이요 前回에서 남의 文章을 護慰하는것가티 至難한일은 업다하엿지마는 그것은 그래도 一定한 레벨에 到達하여잇는 文章에對한 感想이지 아무리 批評基準이 漠然한것이라 치드라도『에』『의』의區別를不能明하는데 이르러서는 말할나위도업는일이다。『에』와『의』는 제대로 고처서쓰게되엇서도『에』외『에』는 混同하는 名文章家가 아직만흔데 이따위의 것은 完全한文章으로도 目標할수가 업는수가 大部分이며 外에 歐文投의 標本으로도 用例를 들수업는 程度의것이 許多하나 如此本論에서는 그러한것 까지 一一히 問題를 삼을수는 업는일아다。
部分的으로는 우리의 現狀이 이러하거니와 獨自的한文章과 世界文壇에 紹介하더라도 優秀한 作品을 가진이들도 며며잇스니 일로써 判斷하면 우리의

……文……

壇은 作文界라고一蹴할수업지만 그러타고도 世界的水準을 云謂하기에도可能치못한것이다。作家들의 作品속에는傑作佳作도잇고 凡作愚作도보히려니와假令한大作家가 어찌다 失敗한作品을 發表하엿더라도 그地位와經歷이 文學青年에게까지 低下됨을 意味하는것은 아닌것가티 設或어떤 文學青年이 한개의 驚異的快作을 나어다하드라도 담바 大作家의 水準에 上昇하엿다고는 밋지못할것이며 우리朝鮮文壇이야말로 作文界도 아니요 堂堂한 世界的인建設을將來目標로하며 精進하여잇는 洋洋한 文學青年의 時期이라고하는것이 適當할것이다。
抑說。作家諸氏의 文章을 個別로 批評하여보기전에 나는平素부터 한가지 疑問으로 생각하여오든바를 이機會에 披瀝하기로 한다。그것은『하고』에對한 用法이대
『이리오너라!』
하고 나는 살림거지원 대문아페서 두어차례나 나려불럿다。
(嚴興燮氏作「그들의간곳」에서)
두조음의 서정을 빌어가지고 와、
『우리 금변신수좀 봅시다』
하고 그러케 말하엿슬때……
(朴泰遠氏作「悲凉」에서)
『안된다 그까짓놈 학교가 다 무엇이냐? 고만두고 거지나 돼서 나가거라!』
하고 여전히 모친은 악을씀다。
(李箕永氏作「背叛」에서)
이러한 境遇가 非一非再하지마는 前用符號인「」를便用하엿스면 그것으로 完全히 言語라는것이

……表……

明되여거늘 行까지 따로잡아쓰면서 무슨까닭으로『하고』를부티는것인가。알만해도 어색한짓이며 우리文章에서『하고』를 除外하고 보면
『이리오너라!』
나는 대문아페에서 두어차례 불럿다。
『우리 금변신수좀 봅시다』
그러케 말하엿슬때
『안된다 그까짓놈 학교가다 무엇이냐』
여전히 모친은 악을씀다。
이토록 췌신 流暢하게 될것이다。그러나 더욱 나를 놀라게 한것은 以上三氏뿐만 아니라 우리文壇의 全體를通하야 實로二三人을 除外하고는 모다 이러케쓰는데 이것은 文法的으로 詳考하더라도 조치못한것이다。先輩 李光洙氏의 長篇에서와『글짓는法ABC』를 지은 李泰俊氏의 수만흔 短篇속에서도 가튼것을 發見하게되는대 淺學菲才한 나로서는 大端히 悚懼스[illegible]일이다。못간대「衣裳哲學」의 著者「칼라일」의文章도 英文法上으로 보면 誤謬가 만타하는데 그렇게도 한편이다。

移民文學의 過去와現在

⑤ 韓植

또이大會를前後하야 獨逸移民作家들을 中心으로한『獨逸著作家防衛同盟』과『獨逸自由文庫防衛同盟』은 協力하야 세가지큰 會合을하엿든것이니 一은히틀러焚書를 期會로한 自由文庫의 記念祭이며 二는 그들과가튼

……運命……

에잇섯든『빅톨·유ㅣ고』의 五十年의記念祭이엿든것이며 第三은 그들의 現在의同志『엘윈、킷슈』의 五十生誕祝賀의 그것이엿든것이다。그中에서도 元라인찌히大學敎授이엿든『후리ㅣ도만』『이유ㅣ고』의記念祭에서 말한 다음과가튼 말은『빅톨·유ㅣ고』에關하야 諸君에게 말하는것은 한사람의『에미그란트』(移民)에對하야『에미그란트』에 말하는것이다。『빅톨·유ㅣ고』에對하야 諸君에게 말하는것은 한사람의 自由人에關하야 自由人에 말하는것이다』는 대단히 意味기픈 말일것이다。
그런데 今日까지의 獨逸移民文學의 作品內容에對하야 좀더 仔細히 말하여볼것가트면 두가지의 傾向으로 볼수가잇스니 그中의 하나는 移民文學의 直接的內容을 맨드는政治的迫害 더욱 猶太人의 追放에 對한 가장 悲慘한 나치스의 政策들을 말하는것이니 우리는 그러한例로서〃프리드릭·볼프〃의『말록크敎授』(上演할때에『만하임敎授』로 改題함)에서 그의 代表作을 볼수잇는것이다。作者自身의 生生한 體驗을 그린것인대 우리는 더욱 그에對하야

……感銘……

기픈 親近性을 印象바를수가잇는것이다。그러하야 가장 必然的이고 當然한 題材라고할수잇지만은 何等 그의 文學的影響이 全世界에 共鳴되는것도 無理아니라고할것이다。또現在 獨逸移民文學者가운데서 가장 代表的인〃리베라리스트〃〃하인릿히·만〃은 그의 王道統에 잇서서는 散文集『[illegible]哲學』에 잇서서와가티 그들의 [illegible]를 必然的으로 그의 文學的內容을 作製하고 잇는것이니 明白히『허몰레·맛스죤』에 對한 가장 [illegible] 批判을 表現하고잇는것이다。그는 불조아데모크라시의 [illegible]가 [illegible]한 具體的 悲慘한生活을 遠하야 점점 데모크라시의 노픈 階段에 다다르고잇는것이다。그리하야〃쿠라우스·만〃等의 맑스主義에 가까운 立場에 선 作家들과가티『파시즘』에 對한 共同戰線을 取하면서 서로 그들의 進步的文學의 內容을 形成하고잇는것이다。移民文學의 第二의 特徵으로서는 그 歷史的 레ㅣ마의 內容에 잇는것이다。이것은『나치스文學者들로부터

……指摘……

당한것임에는 틀림업다。事實에잇서서도〃하잇히·만〃의 長篇歷史小說『앙리四世의靑春時代』에쓰엿『페르찌난드·아사베라』『千年前의 猶太人史家를 그렷다고하는〃포이트·왕가〃의『子息』『엘바』島脫出後의 나포레온을 그린〃로ㅣ드〃의『百日間』은 모다 이範疇에 들수잇스나 歷史的레ㅣ마에 取材하는 그들의 着眼에는 가장注目할것이잇는것이다 그中에도〃쿠라우스·만〃의 最近作『悲愴交響曲』에서는 故國을 追放당한 移民의 運命을 그리나 그와가튼 苦惱와 希望의 呻吟으로부터서도 내일의 歷史를 確信하는者의 心理를 로시아가 나은 偉大한 音樂家 차이콥ㅎ스키ㅣ의 晩年의 後半生의歷史를 그림으로써 暗示할려고한것이다 그러나 이와가튼 過去의 人物들을 拉致하여가지고 그의歷史를 그리는 傾向이 만히잇다하드라도 그것은 決코 나치스의 新聞이 말하는바와가튼『過去의 歷史가운데에서 自己들의 敗北을 合理化하며 歷史의 精神속에 逃亡하여간데로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氣象圖』 出版記念會

金起林氏의 長篇詩集『氣象圖』가 出版되엿슴으로 그 文友에게 諸氏가 모혀서 記念會의 하로人밤을 가지려하는바 時日과場所는 左記와가튼데 될수잇는대로 만히 參加하기를바라다고한다。

時日 九月五日午後五時
場所 市內太西館
會費 壹圓(當日持參)
發起人(無順)
鄭芝溶 李箱 朴龍喆 崔載瑞 李[illegible]河 徐恒錫 金復鎭 李殷相 白石 林學洙 李秉[illegible] 李軒求 洪起文 安夕影 咸大勳 安懷南 金奎澤 毛允淑 俞鎭午 李相昊 金尙鎔 崔貞熙 金煥泰 李源朝

○……○……○……○……○……저녁煙氣오를때

나의關心事

두篇의勞作

朴致祐

世代理論과 表現病理學 그리고時事的인關心事로선 西班牙內亂이잇다
世代理論에 特別히 關心을 가지게된것은 昨冬以來의일이다。勿論 한世代의平均기리(長)는 얼마나、三十一年三個月이냐 三十三年四個月이냐 하는等屬의 史學者的 또는 統計學者的인 興味에서가 아니라 純全히 歷史哲學的 特히 時間論的인興味에서엿든것이다 가령 歷史와 世代는 各其『本質上』어떠한 關係에 서게되는가 歷史的 時間과의『時代』와 元來는 生物學的時間인『世代』와의 關係時는 어떠한가、世代는 歷史的時間의 意味를 分擔할수잇는가 잇다면 如何한 意味와 限度에서일가? 等等의 問題를 究明해보려는것이 世代에關한 나의 興味의 全部라할수잇다。아직은 그러나 아모러한 主見도업시 그저『로ㅣ렌츠』라던지『딜타이』라던지『만하임』『올데·이·갓세』와가튼 諸學者의 世代理論을 주섬주섬 읽어가는 程度以上은 못되여 漠然하기짝업스나 그때도는지도 明春까지에는 좀 딱딱한 論文한篇을 만드러보리라고 벼르고는잇다。
『表現病理學』이라고 하니 무섭게 꽝장한 새로운試驗갓기도하나 알고보면 그런것도아니다。表現의病理에關한 哲學的인 究明이라고나할까。어떠튼 表現의本質이라던저 構造에關한 哲學的인解明을 通해가지고 特히 現代에橫行하는 諸病態的인 表現現象의 病理를 하나식들식 論理的으로 究明해보는것도 興味잇는 一種의 現代批判일수가 잇다。그다지 힘드는 勞作도 아니것기에 放學동안만으로서 넉넉히 못내할 일이든것이 막상 始作해노코보니 그러치도 안허 多少 낭패의感도 업지안타。
時事的인 關心事로선 무어무어해도 西班牙內亂이 가장크다。元來 伊에戰爭이나 中央아니 西南이니 하는中國의 內亂과는 本質이 다르다 暴力에 依한 思想의 解決 思想의決闘라고나할까 어떠든 宗教戰爭以後론 처음보는 가장激烈 殘忍한、더구나 가장目覺된 形態의 思想戰爭이다 참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싸홈이라기보담은 思想과思想과의 싸홈이다 그러기때문에 이內亂은 單純한 內亂이 아니라(조금誇大한말갓지만) 西班牙國民이야 죽던 살던 이런 問題보담도 어늬 思想이 結局가선 이기는가가 보담 重大한 世界史的問題일터입 그러한 性質의 內亂이라할수잇다。어떠케 落着될지는 알수업는 일이지만 어떠든 나는 이러한意味에서 이싸홈에 相當히 무서운 關心을 보내고잇다。
○……○……○

白頭山探險의科學的成果

白頭山登攀의 高山衛生學的考察

③ 醫學博士 申聖雨

【第八】皮膚에는 紫外光線으로因하야 諸般障害를 볼수잇다 勿論 單純한 紫外光線作用뿐만은 아니겟지만 그밋지는 影響이 크다고 볼수잇다
日光을 物理學的으로 解剖하야보면 肉眼으로 볼수잇는 範圍에 光線으로 波長이 400ㅡ740PP되는 赤外線 即太陽熱에 作用을하는 所謂熱線 長이 100ㅡ400mm되는 赤外線 即太陽熱의作用을하는 新謂熱線과 波長이100ㅡ400mm되는 紫外線은 우리의 肉眼外에잇는所謂化學線이라는 二種의 光線으로되여잇다 如此한 紫外線은 人工的으로만든수도잇스며 治療上應用範圍가 廣大하다 如此한 紫外線이 우리生體에는 必要로 必要하야 업지못할 一要素가되야잇스나 生體에밧는 程度如何에 따라서 오히려 反對로 刺戟的作用이 有한것이다 大氣中에 含有되야잇는 紫外光線量은 太陽으로부터 地球에 이르기까지 大氣中에 水蒸氣 或은 塵埃等에 吸히 全部가 吸收되는것이다故로 勿論四季 土地의高低 溫度等여러가지 條件에 依하야 紫外線量에 差異가 甚大할것은 勿論이오 高山地帶에는 一般的으로 多量의 紫外線이 包含되야잇슬것이다 紫外線이 生體에作用하야 諸種의 反應이 이러남으로 白頭山에잇는 紫外線作用에 依한障害及其豫防에對하야는 大頂에서 論述코자한다。
【第九】物質代謝 西洋各國及日本內地에잇는 研究發表를綜合하야보면 特히 蛋白質에 新陳代謝에잇서서 中山地帶에 잇서서는 窒素分 即蛋白質에沈着을보게되는故로 體內蛋白에 分解作用은 加擔치아니하야 好影響을밧게되는것이나 4000米以上高山地帶에 잇서서는 窒素新陳代謝가 甚하야 窒素消費量의 增加는 結局 體量의 減退를 보게되는故로 理論上으로본다면 攝取한 窒素(蛋白質)量보다도 分解되는 量이 만타고한다 그實驗은 尿中排出되는 窒素量에 依하야 말하는것이다。그다음에 水分代謝는 逆히 또만히되는故로 減尿狀態에 잇다고한다 以上말한 物質代謝의 一部分은 高山에 關係가 기픈것은 勿論이나마 其外에 모ㅣ든 條件을 遂하야 正確한 結果를 나타내기 어려운 問題이요 諸者諸氏의 意味가 적울것으로알고 이에 못치려한다。
【第十】血液의 變化라하면 高山地帶에 在하야 이러나는 血液機質의 變化如何라할것이다 血液中에도特히 赤血球數의 增加와血色素의 增加라고말하며 또學者間에는 異論이 잇서 高山地帶에잇서서 血液內赤血球及 血色素의 增加는 紫外光線量에 따러서 步調를 一致하게 하는故로 雨天일것가트면 아모리 高山이라도 赤血球가 增加되지안는다는者도잇스나 兩說을 主張하는 學者數를로 난호아 比較하고보면 大體로 赤血球 血色素量이 增加되는데 學者數가 만흔것갓다 即造血臟器로서의 骨髓機能의 亢進으로 因하야 遺血組織이 新生되데잇다고 볼수잇는것이라고말한다。或者一派는 血管이 收縮되는 同時에 血液의 濃縮되는緣由로 赤血球가 만허진것이라고말하얏스나 別로히 反應이 無하다

山岳病의發生 條件及原因

【第一】發病과山岳의高度
以上에論述한 山岳病은 얼마나노픈程度에 잇서서 비로소發病되느냐고보면 學者間에 差異가有하다。『못쏘ㅣ』氏는 一六〇〇米에 비로소 發生된다고말하며 岡村氏의 富士山登山時 發病狀態로보면 二一六八米地帶에 五、四%、三五七五米地帶에 九二%의 發生率을보앗다고 말한다 그러나 氏의말에 依하면富士山과가티 海面으로 直立急峻한山은 登山時에 急激한 氣象的變化를바더 苦痛이 一層甚한아 相當히 노파登山한다 하드래도 數日을 經過하야 氣象에 若干 習慣되면 本病을 發할수잇는事實로 보아서 알겟다고 報告하얏다 要컨대 大體學者間에 一致되는點은 約2100米(7000呎)假量으로부터 本格的으로 高山病의 症勢가 나타난다고 볼수잇는것이다。
(第二)氣象과高山病
本病發生과 氣象과는 勿論關係가잇서 멀리 十八世紀에『주데이늬곤베이』는 晴天寒風의 日氣는 曇天에 比하야 發病되기가 容易함을 말하얏고 岡村氏는發病實數는 晴天에 만코 發病率은 反對로 雨天 暴風雨(雪)時에 만타고 한다 要컨대 雨天時에는 甚한寒冷 濕度 登山時困苦 恐怖不安焦燥等의 感情도 赤反射作用으로 發病을 助長식힐수잇다 故로 高山地帶에特有한 原因(後述)以外에 氣象變化도 亦是一條件이 될수잇는것이다

科學

將來의兵器 —主로電氣用品에關하야— (7)

方聖熙

無電操縱兵器

이것은 其名稱과가티 사람이 하지안흔 軍艦 戰車 水雷 飛行機等 兵器를 遠隔의 엇더한 安全地帶에서 操縱하는것이다 其原理는 亦是無線電信과가티 電波를 軍艦 飛行機等에 放射하여서 이電波의 作用으로 操縱하는것인데 無論 이無人의戰機中에는 미리 엇던 振動數의 電波가 올때는 엇던部分의 機械가 共振하며 電流를밧어運轉되도록 各種類의 器械를 裝置하여둔것이다 이것도 勿論詳細한것은 不明함으로 最近六、七年間에 各國에서 實驗되는것을年代順으로 摘錄하여 그實跡을表示하여보겟다

無線操縱兵器의 沿革

一九三〇年에 獨逸에서 飛行機에 無線電波 發送裝置를設고서 約一〇粁에잇는 小艇을 無線電波로서 操縱하야 成功하엿다
一九三一年에는 米國海軍이無人의 驅逐艦을 無線操縱하엿고
一九三二年에는 伊太利陸軍이 地雷無線點火를 成功하엿고
一九三三年에는 伊太利空軍이 地上에서 無人의 飛行機를無線操縱에 成功하엿다
一九三四年에는 英國海軍이快速의 水雷艇을 無線操縱하는 實驗을行하엿고
一九三五年에는 獨逸에서 그 有名한 怪力線을 發明하여實驗한 結果好結果를 어덧다고한 시ㅣ멘스會社에서 航空機의 無線操縱에 成功하엿다。
同年八月에는 英國海軍이 헨돈飛行場에서 飛行機의 無線操縱을 한 結果 如左한 成績을 내엿다한다
陸上에 設置된 無線操縱裝置의 힘단추를 이것저것 누르는대로 無人의 飛行機는 저혼자無線하더니 左旋、右旋하며 轉回를 數次하고 自由自在한 飛行을 約十哩의 廣範圍內에서하드니 無事着陸하엿다 고한다

無線操縱兵器의效力

이無人의 兵器가 如何한 効力을 가젓슬가는 누구나 想像키쉽것다
爲先平時에는 近日 英國가튼에서는 高射砲의 射擊練習時의 被射體用으로 或은 激浪中의 燈臺船等으로 씨서 實用되고잇다
戰時의 用途는 勿論亦是極秘의機密이므로 推測할수업스나 怪力線 毒瓦斯의 猛射中의 空中 或은 敵地의上空을 無人의 飛行機가 爆彈을 滿載하고 아모두려움도업시 飛行하며 爆彈投下를 할것이요 海上에서도 亦是 無人의 水雷艇이 快速力으로 두려움업시 水雷를 猛發하며 敵의 大艦을 向하여 거리낌업시 突進할것이다
未來戰에잇서서 上述한 怪力線威力의 彈丸이 橫行하는中에서는 致히 人力을 가지고서는 充分히 武器를 操縱活躍치못할것이니 必要上으로보아 밧쏘이 이 無線操縱兵器는 出現할것이며 相當한 効力을 나타낼줄밋는다
그러나 아직 이것도 確實한 實跡의 報道가 업스니마치 速斷키어려우나 怪力線보다는 意外로 實用化가 쉬울것가트다
上述하여온바 問題에對하여서는 區區한 見解가잇서서 將來에는 明白히 新兵器로 出現하리라는者와 全然不可能의 說이라하는者가잇다 그러나 이問題가 極秘軍機에 關한것임으로 實跡이 曖昧할뿐이요 其根據의 理論은 上述한바와가티 現科學上에 確認된 事實임으로 全然架空的이라고는말할수업다 더구나 一國의 興亡을 決하는 戰爭用具임으로 그研究는 想像以上으로 激烈한것이여서 充分한 出現의 期待를가질수잇슬것이다。
雙方이 此等 威力의 兵器를 使用하면 勝敗間에 兩者가 다가티 滅亡하고말것이니 如何한 好戰之國이라도 相互間의爭鬪를 武力으로 解決코저는아니할것이다
卽完全한 科學의 發達은 決코 人類自身을 조곰도 害하지안코 人類生活의 安全度와및便利를 助長하며 爭議의 和解를 强制하고 自然科學뿐만아니라 精神科學의 發達과함께 武力에 依함이업시 必然的軌道를밟게하며 모든것이 漸次國際的으로 行케되여 平和를 助長할줄밋는바이다。 (끗)

新刊紹介

▲現代式販賣法 [illegible]著 (內容) 第一編 總論 第二編 販賣 第三編 商品 第四編 顧客 第五編 店員 第六編 [illegible] 其他 發行所發賣所 京城府堅志町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定價一圓二〇錢
▲映畫朝鮮 第一冊(內容) 近代文明과 映畫藝術 映畫藝術의 基本論 劇評 十一回公演을보고 朝鮮映畫人의座談會 京城特別文[illegible]其他 發行所 京城府瑞麟町二六 映畫朝鮮社 振替京城二五二五番 定價二十五錢 送料二錢
○카톨릭靑年 九月號 發行所 京城府明治町二丁目一番地 카톨릭靑年社 振替京城二三四六番 定價十五錢 送料一錢
▲거자사 九月號 發行所 平壤府新陽里六五의六 거자사社 振替京城五三二一番 定價五錢
▲朝鮮工業協會報 第三十八號 發行所 京城府長谷川町 京城商工會議所內 朝鮮工業協會 振替京城一六九五四番 定價二十錢

內外地放送 事務協議會 京城에서開催

요사이內外地共히 放送無線電話의 新設及電力의增大其他內外地間에잇서서 放送無線電話의 連絡交換放送이 頻繁하야 放送無線電話의 普及과發達을 볼수잇는데 此等放送施設計畫과監督取締等의 適否如何에依하야 內外地相互間에미치는影響이 莫大함으로 遞信局에서는 放送無線電話의圓滿한 普及發達을圖하기爲하야 十月八日부터三日間內外地合同放送無線電話事務協議會議를 京城에서開催하기로되엿다는데 同會議의 最終日에는 遞信局關係者及放送協會關係者의 會議도開催될터이므로 全國의權威者가 一堂에모이리라한다

讀者社交

▲今月十七日付社交室의 發表된 咸南北靑新浦湧泉生의게 쏨함 貴下께서讓渡하실小說「靑春」을 生이譲受코저하오니 價格을表記住所로下敎하시옵소서
黃海線延安溫泉驛前 ㊞精米所 君松
▲生이 京城市內에서 板硝子、鏡臺額面의乘業을 經營하고자하오니 仕入方法과 參考書를下敎하시옵 (京城 一讀者)
▲社交室을通하와 讀者諸位께 拜聞하옵나이다 本人의親友平南出生李亨根君의現住所를 아시는분을 社交室을通하야알여주시면 感謝하겟나이다 府內 宋命根
▲漢藥高等學院이 어데學院인가요? 生은시골서 처음와서廣告만보앗사오니 內容을仔細히 알게하여주시옵소서 府內昌信町二八 李春植
▲尋謹 朝鮮에金氏가하도만허도 本貫이監浦金氏는 한분도만날수업사와 本貫으로 우리監浦金氏를찻고저하오니 이讀者欄에通知하여주시옵소서 監浦後生

림질약 淋疾藥
淋疾患者에 엇더한藥이 第一조흔가?
이것은內務省大臣을會長으로하고、[illegible]
成者十六名을委員으로하야 愼重審議를한後그品位를決定하야、[illegible]
本藥局方에收載하고、또內務省衛生試驗所에서檢査[illegible]
가我醫藥界의指針이되야잇슴으로
本社의淋疾藥은、政府指定醫藥學界와最高權威者가選定한日本藥局方收載
그리고 內務省衛生試驗所封緘의治淋劑六種를主藥으로하고何等副作用이업도록配劑한(公認治淋劑)다
淋疾患者는賣藥所에서여러가지의廣告에迷惑치말고 곳有田도락구로申込하라
價 淋 特製 八日分 四圓 別製 八日分 一圓八十五 [illegible] 十六日分

梅毒
本社創劑의 梅毒藥은 政府制定 日本藥局方驅梅劑二種과 [illegible]數種을主藥으로하야 副作用이[illegible]업는 出願許可濟公認梅劑로서 과초의감창、가래톳의 치료는물론、제이긔전신매독、잠복매독、유전매독、매독성루마지스등도본제의내복으로 곳 배독작용(排毒作用)을하며 매독으로 일어나는 골래증과 국부와 전신증이 점점히밤하여져서 치병의목적을달할수잇다。무서운 매독을 손에게 유전치안토록 하루라도 빨리본제의 구매제(驅梅劑)자용하야 꼬치시요。
價 特製 (十七日分) 六圓 別製 [illegible] 三圓八十四

高價藥配劑公開
有田ドラッグ
有田ドラッグ專賣所々在地
京城郵便局前 有田도락구
龍山漢江通 有田도락구
平壤本町 有田도락구
釜山幸町 有田도락구
群山開福町 有田도락구
全州高砂町 有田도락구
光州本町三 有田도락구
木浦榮町二 有田도락구
大邱京町 有田도락구
馬山京町 有田도락구
麗水 有田도락구
浦項本町 有田도락구
三千浦本町 有田도락구
鎭南浦 有田도락구
海州南本町 有田도락구
新義州櫻町 有田도락구
元山本町二 有田도락구
咸興本町二 有田도락구
羅南生駒町 有田도락구

肺病 肋膜炎 肺炎가다루 藥
本社에서 發表한肺病肋膜炎의全快者는어느거나左記에公開한 高價藥配劑의別製治肺劑와有田血液素를服用하면서一方으로 옳바른療養으로實際에全快되도록하는것으로서住所氏名을明記하고全快後健康證가되여寫眞까지 公表한것으로서正確하고도信用할수가잇다。我有田別製治肺劑는歐米는勿論、
國際醫學界의最高權威者들에게서選定된日本藥局方治肺劑와多數高價藥等二十三種의配合에依하야綜合的治療効能을 表現할여가지症狀을輕快케하는公認治肺劑이다 現今은藥局의販賣가甚히嚴重함으로廣告藥又는誇大廣告는絶對的으로不許하나左記의高價藥配劑公開가튼것은政府도應許하는바이다
結核治療劑 (時價一키로瓦의單價)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 五種藥綜合配劑
鎭咳祛痰劑 一種 七百四十圓 外一種藥配合
結核解熱劑 二種(一種 二百三十圓 一種 三十一圓)
強胃強腸劑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 四種藥綜合配劑
食慾促進劑 一種 二百六十圓 外一種藥配合
鎭靜劑 一種 五十二圓
消化劑 一種 四十七圓 外一種藥配合
酵母劑 一種 五十圓 一種 五十錢
滋養強化劑 一種 五十二圓
호르몬劑 二種(一種 千六百圓 一種 千二百圓)
本社의藥劑가肺病과 肋膜炎에如何히有効한가를누구나라도곳알게되는것은食慾이增進되고[illegible]기침의緩和와痰의減退等으로이것으로부터도回復期에들어선다는證據임으로放心말고養生하지안흐면안됩니다 [illegible]나타나기始作하면 體重이날마다날마다增加됨으로 [illegible] 보시라。
價 特製 治用(八日分) [illegible] 別製 治用(八日分) [illegible] 治用(十六日分) [illegible]
有田藥房

連載野談 〔오〕
布囊記 (不許複製上演)
申鼎言 作
金熊超 畫

섬의잇는련애 (三五)

백운국선과 제후소저가 정절 산중에서 크나큰 변을 당하매 이제는 그두몸이 다가것지 죽는것밧게 남은것이 업게되엿다.
백운국선은 솔나무에 매달리어 자긔의 목숨이 업서지게된것보담 제후소저가 필경 자처할것을 생각하야 통곡하고 제후소저는 죽엄으로써 몸은 더렵히지 아니하려니와 백운국선이 자긔로 말미암아 비명횡사를하게되는것을 생각하야 크게 곡하기를 마지아니하얏다.
그런데 여러 도적들은 곳제후소저를 뫼아가지고 그깁흔산중에서도 더깁흔 골짝이로 들어갓다.

한곳에 이르러 비롯오 제후소저를 말우호로부터 끌러내려 손과 발을 묵거노코 그 보물보퉁이를 끌러노앗다.
「이얘, 이것참 보물이로군。생전에 처음보는 보물。이번행보는 다른때 백번행보 보담 첫신나이。더더구나 저런 어엽븐 미인까지 데려오고。호호호。」
하며 여러도적들은 일제히 크게 웃숨을 내노흐니 산골짝이가 뜨렁 뜨렁 울리엿다.
「자!。이번 논아 먹이는 어찌해야할고。저보물은 노느기가 어렵지 안치만 저 새악씨의 처지를 어찌하나?。」
하며 한도적이 제후소저를 첫치하기가 어려운것을 말하엿다.
여러도적은 그보물 보다도제후소저에게로 눈이 쏠리엿다.
「자!。조흔수가잇지。저 새악씨를 차지하는 사람은 이보물 노너먹이에 바들 목슬 밧지말기로하지。」
하고 그중에서도 두목이되는도적이 제후소저를 처치할 방책을 말하엿다。
「조소。두목말슴이 꼭 올흔말슴이요。」
하고 여러 도적들은 손뼉을치면서 그말을 찬성하얏다.
「자!。그러면 몹우목에 빠질사람을 내가 물러이니 빠질사람은 빠지겟소하고 두목히 대답해。」
하며 그 두목이되는 도적이여러 도적을 향하야 차례로써
「너는 어찌할려이냐?。」
「나는 빠지겟소!。」
「너는?。」
「나도 빠지겟소!。」
「너는?。」
「나도 빠지겟소!。」
「너는?。」
「나도 빠지겟소!。」
두목이 뭇는대로 여러도적들은 저마다 몹우목에 빠지고 제후소저를 차지하겟다 대답하얏다.
「정작 빠지기는 내가 빠질려야!」
하며 두목도적이 또한 빠질뜻을 말하얏다。
「누구는 정작빠지지。거짓말로 빠지겟다하엿소?」
하며 한 도적이 얼굴을 붉히고 불쾌한 목소리로써 소리를 질으며 제후소저를 돌아보앗다。
「글세말이야。누구는 정말이지 거짓말이라한놈이 잇땅。」
하며 다른 여러 도적들도 일제히 불쾌한 소리를 질럿다。
두목도적이 여러 도적의 불쾌히 떠드는양을 말업시 보고 잇다가
「다들 그만두어!。내가 두목이니 내가 빠진다면 빠지지 다른놈이 빠질놈이 또 누구란말이야。모두 이러케 나두나두하고 빠지겟다 떠들면이 말지말 할것업시 말성이 만흘것을 이칼로 대번에 업새버리고 말려야!。」
하며 두목도적이 크게소리를질으고 칼을 들고 벌떡 이러서서 제후소저를 노려보앗다。
「아니, 두목이 혼자할일이라고 두목의 마음대로 혼자서 이러고 저러고해。만일 두목이 짐내빼빼히 구면 우리는 두목을 업새버릴테야!。」
하며 여러 도적들도 아우성을 치면서 일제히 칼과 몽둥이를 뽑고 이러섯다。
두목도적과 그여러도적사이의 형세는 지서로 험악하야 필경 피를흘리는 광경이생기게되엇다。
이때 귀수구르한 도적이 한참 말이업시 안젓다가
「자!。여러동무가 내말대로한다면 내가 아주 조흔꾀를말할터이니 어찌들 할려야。」
하며 아주 신통한 꾀가잇다것을 말하얏다。
「그것。조흔말。우리가 다듯러어나 그꾀를 말하오。」
하고 여러도적들은 그 꾀은 도적에게 그꾀를 말하기를 권하얏다。
「자!。나는 행운부이니 잘들 빼돌려야。그대신에 한목빼너어 주되 저새악씨 차지하는 동무가 그 한목은 내놔야해。」
「올흔말이요。그래、말구。서 말해요。」
「다른게 아니라 공집기 제비를 뽑바서 공을 집는 동무가 차지하도록 해요!。」
「올치。그것참 묘말이요。」
하고 여러도적들은 제비뽑기를 찬성하얏다。
이때 두목도적은 두눈을 부릅뜨고 꾀은 도적의 말을 듯다가
「안돼。제비뽑기는 다 무엇이야。」
하며 크게 소리를 질럿다。

라디오

三日 (木曜)

◇午後六時 管絃樂 DK管絃樂團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五分 課外講座『白頭山의植物』 朝鮮植物研究會 張亨斗
◇七時三〇分 講演『學校愛이야기』 總督府視學官 張膺震
◇同八時〇〇分 唱劇調 一、短歌 竹杖芒鞋 二、唱劇調 沈淸歌 李東伯 鼓手 丁元燮
◇同八時四〇分 라디오·드라마『夫婦』一場 演出 同人 効果 宋申佐 蕪硯會
配役 金英秀…(小說家) 宋在善 貞玉…(그의 妻) 河邊玉 淑子…(貞玉의從妹) 崔銀淑

第一放送
◇午後六時〇〇分 (東) 偉人이야기 東京放送童話研究會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 本多龍成
◇同七時三〇分 (東) 科學講演
◇同八時〇〇分 (東) 長唄 富士田新藏
◇同八時三〇分 (東) 琵琶
◇同八時五〇分 (東) 歌謠物語 田中絹代

四日 (金曜)

◇午後零時五分 報念外 給棠 玉外
◇同一時一五分 家庭講座(三) 金基鳳
◇同六時 兒童劇『메리와兵丁』全一景 配役 메리…朴絹鎭 징…孫允烈 어머니…朴景順 獨逸兵…朴民化 佛國兵…李桂鎬 陸好吉 指揮朴興珉 伴奏 紫橋童心會 効果尹長燮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가을과屋外運動』 李富鉉
◇同七時三〇分 講演『朝鮮舊習의美點과弊害』 普成高普 黃義敦
◇同八時 五峰山歌外 一、五峰山 二、에영곡 三、밀양아리랑 細笛 高一心 姜龍洙 伽琴 李忠善
◇同八時一五分 (東)室內樂 奏鳴曲D短調……弘田龍太郞作曲 알레그로 모데라—토 안단테 메누엣트 피나—레 빠이올린 杉山長谷雄 피아노 제—로스단
◇同八時四〇分 歌謠 一、[illegible] 別曲 二、時調 金花香 金美花 大笒 金永模 杖鼓 金一宇
◇同九時 [illegible]와伴唱 一、[illegible] 갓、다스름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伴唱 갓、大大夫 나、[illegible] 鼓手 沈相健 舞人 韓成俊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 英語會話 講師 J·뷔아·헷드만 堀英四郞
◇同一〇時三〇分 美容衛生講座 早見君子
◇午後零時五分 講談 大島小伯鶴
◇同六時 (大) 이야기 中田清一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
◇同七時三〇分 (東) 趣味講座 鈴木武峰 掛川尚賢
◇同八時 (東) 民謠 一、아이누古謠、太田도리와 保田시우가 네 二、追分 [illegible]美佐子
◇同八時一五分 (東) 室內樂 杉山長谷雄
◇同八時四〇分 (東) 小唄 젱즈·단 菊池 마리
◇同八時五〇分 (東) 라디오·코메디 曙月美惠子外

五日 (土曜)

◇午前一〇時 野球試合實況 "朝鮮野球爭霸戰" —京城球場으로부터—
◇午後六時 童謠 一、齊唱무지개 二、同꽃 三、獨唱새야새야 四、齊唱선반의사과 五、獨唱 우리집 六、齊唱 汽車 七、獨唱고향하늘 八、齊唱 참새 旺新學院兒童 伴奏 金泰哲
◇同六時二五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朝鮮의古蹟』(全鮮巡廻中) 末松保和
◇同七時三〇分 講演『東京書信』 [illegible]國民의責任』
「文部大臣 平生釟三郞」 朝鮮總督府通譯官 西村眞太郞
◇同八時 歌曲 一、界面初數大葉 二、弄 三、羽樂 四、界樂 五、編 金壽仙 [illegible]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祺 杖鼓 金一宇
◇同八時三〇分 野談「[illegible]」
◇同九時 赤壁歌外 一、秋風 二、執杖歌 三、平壤歌 四、제비가 尹一枝 朴玉蓮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 速成獨語講座(二十)
◇同一〇時三〇分 主婦時間 築地 가데
◇午後〇時五分 (東) [illegible]
◇同六時(名) 童話劇 菊池滋彌外
指揮 高橋 기요시 唱歌 [illegible]
◇同六時二五分 講演 末松保和
◇同七時三〇分 (大仙) 가을에우는벌레소리
◇同七時五五分 (東) 라디오·버라이어티 風流俱樂部同人

붉근胸章

西歷一七九二年 佛蘭西가 로베스피엘의 指導下에 잇슬當時『붉근胸章』이라고 自稱하는 指揮者미테 한結社가 組織되야잇서 가지고 로베스피엘이 治罪하려는 貴族들을 避身시키는 것을專業하얏다 로베스피엘이 探査한바로는 英國上流社會의 한紳士라는것박게는 더 알수가 업서서 그의 部下 쇼부라운에게 그 一黨의 逮捕를 命令하기에 이르럿다 그런데 실상 그紳士는 파시·부랑케니卿이다 그는 表面無能한사람으로 그언해맘그릿트조차 그남편이 그런것을하고잇다는것은 全然 몰랏든것이다 말그릿트는 본래佛蘭西의 俳優요 로베스피엘과 氣脈相通하는 사이다。쇼부라운의 部下가 되야 남편의 일을 密探하고 잇섯다。그러다가 極히 危險한 境遇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裏面을 알게되자 다시남편의 救援運動으로 轉換한다는 것이다 알렉산더·코르다의 製作으로 하롤드·영이監督하고 레스리·하와드와 말·오베론이出演하얏다 (四日부터市內團成社에서上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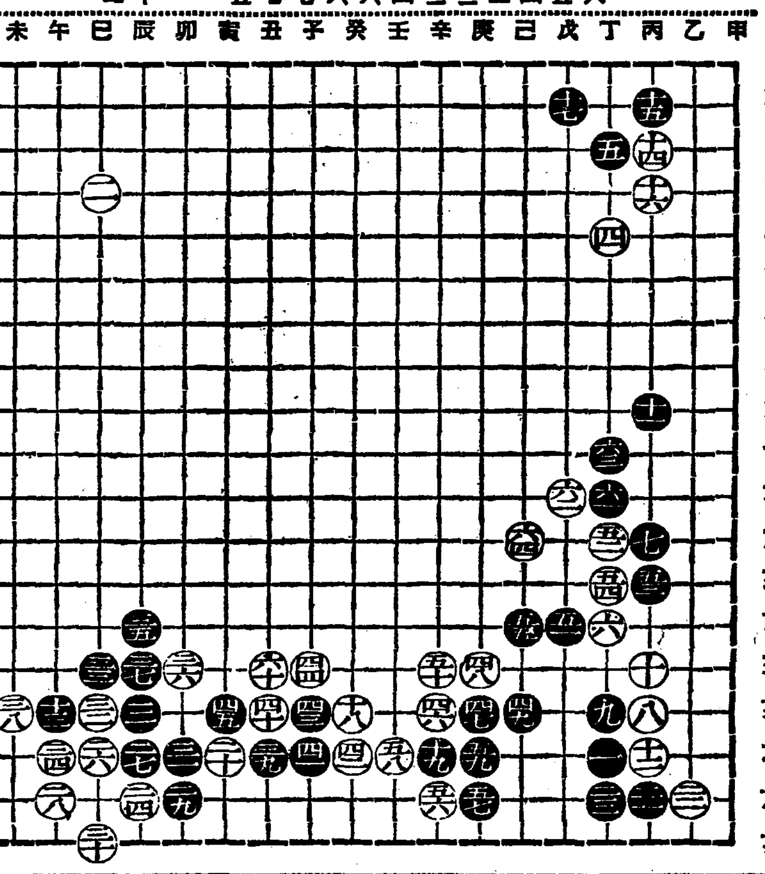
江口、宮夫妻의 舞踊發表會

日本의 新興舞踊界에서 第一人者라고손곱는 江口隆哉、宮操子夫妻의舞踊發表會가 來四日(金)밤 朝鮮아-티스·까이드聯盟의 主催로 府民館에서 열리게되엇다한다。兩氏는 일즉이 渡歐하야 世界的巨匠인『메리·뷔그만』女史門下에서 研究하엿고 渡歐中에 各國主要都市에서 舞踊發表會를여러 實嘆한名聲을어덧스며 昭和九年歸國後에는 東京에研究所를두고 新進舞踊家들을 指導하는中이라는데 京城에서의 案內役인 鄭淸元氏의 말을드르면 兩氏의藝術은 훨신高尙하면서도 難解의것이아니라 한다」
會費二圓·一圓·學生圓五十錢 寫眞은 人事次로 本社를來訪한 江口·宮夫妻와 鄭淸元氏 (左)

☆曆☆
九月四日 (金) 舊丙申七月大(十九日) 己丑·火·婁·執
●秋分二十三日(舊初七日)
●白露九月八日(舊廿三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4—

白 尹周炳
黑先 柳鎭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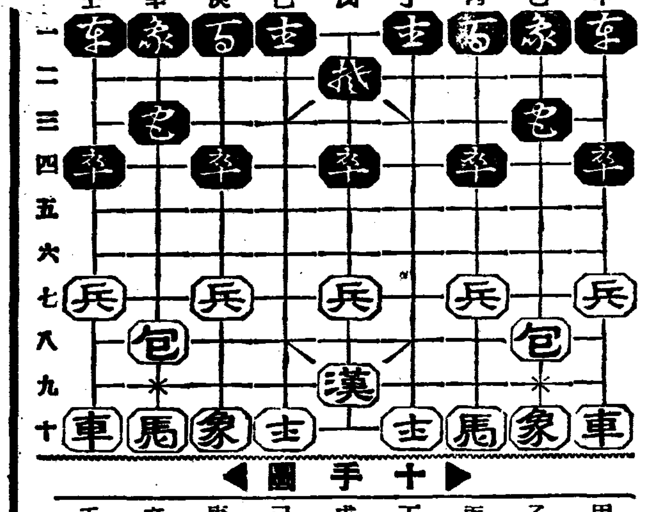
●	己의十六
○	辛의十五
●	戊의十四
○	丁의十二
●	丙의十三
○	丁의十三
●	己의十四
○	辛의十八
●	庚의十八
○	壬의十七
●	庚의十七
○	丑의十五
●	丁의十一
○	戊의十一
●	丁의十
○	己의十二

蔡極文氏評日 白壬癸子十五六區內가 多端缺陷함을 連結裝置는 手段爛熟을 可히 賞揚할만하다 요다음 黑이 抽手暇를 어데시니 何處進路가 最要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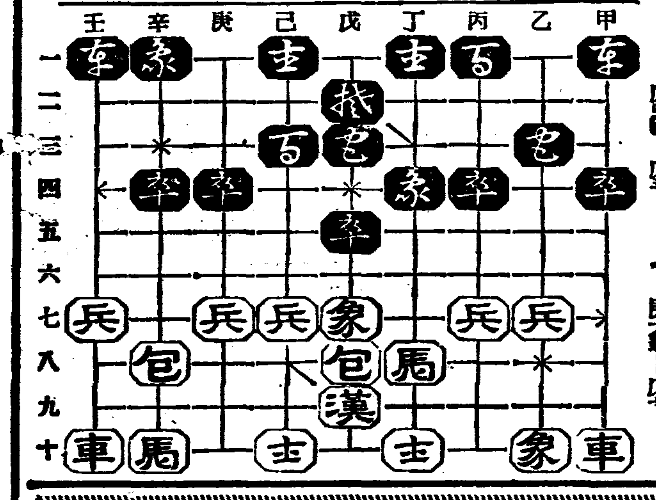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一)

楚先手 李在鳳
漢 金宇石

◀始局圖▶



◀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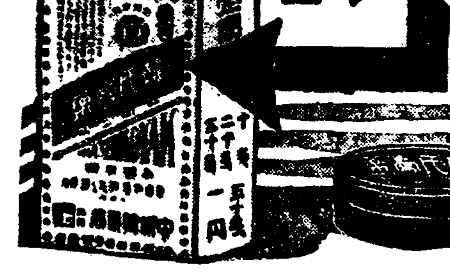


庚一●—己三 丙十馬—丁八 辛三●—戊八 乙八包—戊八 戊四●—戊五

甲七兵—乙七 乙一●—丁二 戊七兵—己七 壬四●—辛四 庚十象—戊七

종기면 꼭낫는 四代世傳 韓氏膏藥

主治効能
諸般腫瘡、痰結痰腫濕腫、腰腫、乳腫、骨濕疼痛、牽引痰瘰肩背、腰痛、痔核、痔痰、項腫、頭瘡、濕疹、胎毒、疥腫、頑癬、打傷瘀血、咬傷、火傷、金瘡、石瘡楊梅瘡、連珠瘡、便毒、腮腫、癤瘡其他一切毒氣에 붓치면 毒氣가삭고 멍울이풀니여 압흐지안코나흐며 破腫後에붓치면 고름(膿)을빨고 新이速히되고 낌이、불거리 달우러나는腰痛等에붓치면神効함



【平壤中城韓藥局四代世傳검은藥】
商報請求酬應

▲藥業者諸位께急告!
●見本品無料進呈!!
韓氏膏藥의効力偉大함을尙今未知하시는분에게見本品으로左記規定에依하야無料進呈함
一、定價十錢物、二十錢物、三十錢物、五十錢物
一、藥房名을印刷한用紙에請求하시는분에限함
一、請求患者는代金先送請求에限함
平壤府港町九四番地
中城漢藥局本舖
電話一四七八番 振替京城一〇〇八七番

● 腦의疲勞
事務讀書工夫徹夜等頭腦過勞時에
ノーシン (노ー신)
옷服用하라 頭腦의疲勞는速히快復하야 明快
해지며愉快히工夫할수잇는安全한藥이다 全國藥店에잇슴
●

父母도먹고 아들도먹고
孫子는特히먹어라

九月二日より九月八日まで 上映時間內表

お化花嫁	11、30	3、10	7、00
カイロノ戰慄	12、13	3、53	7、45
朝日オリムピツクニユース			
輝く水上日本	1、23	5、03	8、55
素晴しき空想	1、40	5、20	9、14

……入場料金 40錢 60錢……
浪花館

當三日特別大公開
シーズン第一陣に放つ超豪華プロ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午前十一時三十分
第二回 午後 二時 〇分
夜之部 同 六時五十分
新興キネマ特別提供
阪妻谷津撮影所製作
原作 林不忘生前作
監督 石上純
オールトーキー
魔像
阪東妻三郎一人二役主演
藤野秀夫、歌川八重子 特別出演
新興キネマ大衆超特作
原作 小島政二郎
報知新聞連載
監督 田中重雄
オールトーキー
薔薇ならば
伏見信子、河津淸三郎主演
姬宮接子、田中春雄、菅井一郎、田中絹子助演
廿世紀フオツクス超特作日本版
原作 アレン·リヴキン
監督 アラン·ドウアン
洋上魔
エドモンドロウ主演
永樂町 電三〇三番
中央館

朝鮮日報社 釜山支局 長距離電話釜山二八九七番

特許 世界的大發明!

▲非常時日本이나혼 新案特許點滅機
私設電燈
新案特許 第二一六二〇二九三〇五號
普及型 特價一組金一圓卅錢 電池器具附屬品一切付 送料(內地十四錢 朝鮮臺灣十九錢)

◆發明日本의躍進은 드듸여이榮冠을잡엇다!

電燈會社에 電燈一個를 架設하여달라고하면먼저 架設料로二圓이나三圓을徵收하고 其外에 百圓(二百圓)의莫大한工費를 支拂치안허서는 아니될 境遇가잇습니다 그래서 架設後에는 假令五個의 電燈을 架設하여도 每月每月定額料로서 最低五十錢以上은 支拂하지안으면 아니됩니다 常備燈이 아니고 點滅使用하는 場所에 架設하는것은 全혀 不經濟로서 그렇다고해서 從來의카바이드燈、石油랑푸等은 架設上不便할뿐만아니라 火災의危險이 同伴하야 不便이 만치만 우리私設電燈은 危險絶無一切의 架設料無用으로 누구나 簡單히 架設할수가잇스며 移動携帶自由 그리고 一式具備하야 單只一圓卅錢也 電池料는 그使用에 겨우 十錢內外이고 電燈代用으로서는 아마 他의 그追從을 不許하는 經濟電燈입것입이다 그리고 絶對로 漏電할念慮가 업스며 非常時燈火管制時에 家庭의 唯一無二한 安全燈으로서 目下絶讚과 共히 喜悅히 팔님니다 完成目下發表計劃中의 發電池는 (日本特許三、外에 英、米、佛、蘭國特許) 電燈電力이 업는山中에서라도 물에만너흐면 곳 單獨發電하여 使用할수가잇스며 保存中에도 從來의 乾電池와 蓄電池와가티 自然放電의 念慮가 絶對업고 一般蓄電池와가티 充電의 電流를必要로하지안흐므로 高價한充電器與充電氣料의 必要도업고 時間充電의 手數도 업스며 또 極板은 反復하야 永久히 使用할수가잇으며 其苦心의 結晶과 發明價値는 萬人이 衷心으로感激하는바입니다

御注意 昨今發賣中의類似品은 저이에 依賴하지 안으신 模倣品이오니 特許登錄番號를確認하야 注文하여주시압

乾電池特許 第八五四一〇號
乾電池方法特許 第一三三六〇三號 第一三三七四九號
乾電池實用新案 第一三三七四九號 第九七二二三〇號 第一〇四二三七號

特許電池 本日
第五二一七六號 第六二三五八號 第六二三六九號
外國特許 英國第二〇六七九七號 米國第一五三二六六號 佛國第五六七六五號 蘭國第二〇六七九七號

特徵 ▲從來의것과가티 自然放電이 업다 ▲架設料不要 ▲漏電할念慮업고 必要에應하야 點滅自由 ▲絶對로危險이업다
用途 玄關—緣側—階段—臺所—湯殿—便所—物置—船舶鐵山—登山—廊下—寢室—キヤンプ用—寫眞現像—燈火管制—

★特約店申込至急!!

—カタログ進呈—

製作總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室町一丁目十二
株式會社 金剛社
電話日本橋(24) 二〇四七·二二七七番 二七八·二二九七番
振替東京六一一〇三番
發送部 日本橋區室町一丁目十番地

凄慘! 茂朱의災亂
一家全滅도數多
茂豐面金坪里만死者十一名
處處에痛哭聲만震動

【全北發電話白安基特派員】이번홍일 대홍수로인한 전북도내 피해통계는 긔보한바 잇서거니와 도내에서도 죽은사람 수효가 만명이나 내인 무주군(茂朱郡)의 진상을알고저 긔자는 동군당국의 연락교섭과 경비전화(警備電話)까지걸러서 죽은사람의 성명과 긔타진상을 다음과가티소개한다

동군(同郡)은 경북도계에잇는 산중 소군(小郡)으로 궁벽하고 험한곳을 지층하야 「무주구천동」이라는 별명까지듯는 산중드메로된곳이라 어시엔일 폭풍우에 어떼이십여「미리」강우가 잇스면서 폭풍을 산울며올겟도이요 락하자 칠십여곳이 사태가나기 시작하야 무풍면금평리(茂豐面金坪里)김려준(金黎俊)(三六)의 식구다섯과 머슴까지 일가족이 전멸되엿스며 동리 박팔봉(朴八鳳)(三三)의 식구넷도 전멸당하엿고 마침 박팔봉의집에 차저온 손님 금천군부항면월목리(金泉郡釜項面月木里) 리성로(李成魯)의차남 리동규(李東圭)의 안해 박갑순(朴甲順)이까지 산이문허지는바람에 치여죽엇다고 한다 그외에도 한집에서 어린아이하나만남기고 죽은이 만남기고 죽은집도만타하며 죽은이십칠명은 전부산비레에살다가 산이문허저 집을덥는통에 압사되엿다하며 행방불명네사람중에 세사람만 이류에 휩쓸려 아죽것 시체도찾지를못하엿다 그리하야 금평리가튼곳은 이십여호 조그만한 촌락으로 열한명이죽게되엿스며 이가(二家)전멸한곳은 시체운반할길도없어서 목하동면에서 처상순비를하며 공포와 전률에싸인 침괄산명정단한 이동민의 참혹성은 산골을울려전지를 진동하고잇다고한다

도는 무주흥곡산으로 금산(錦山)장계(長溪)진안(鎭安)무영(茂營)간 교통은 전부두절되엿스며 이십구일부터 금산간만 겨우개통되여잇다고한다

▲死者姓名如左

▲茂朱郡茂豐面金坪里 長男金在均(三一) 右妻朴姓女(二九) 長孫金鐘淳(五) 二孫金鍾波(三) 雇人鄭者房(四〇) 以上一家族全滅
▲茂朱郡茂豐面金坪里 戶主朴八鳳(四三) 妻李姓女(三五) 長女順愛(七) 長男龍水(二) 來客朴申順(三五) 以上一家全滅
▲茂朱郡茂豐面縣山里 戶主李鍾出의母崔同淳(六一) 同弟嫂鄭順丹(二六)
▲同里 林敎千(六〇) 右妻朴姓女(三五)
▲茂豐面德崎里 崔用浮(四五) 右妻申姓女(三五) 二女 蓮順(七) 三女順徵(四)
▲同里 申公熙(三七)
▲同里 張奉述(二〇) 張外述(一七)
▲同里 崔順三 妻朴姓女(四〇)
▲雪川面斗吉里 裵必齊(一七) 右妻李姓女(一五) 同親族在南(一) 述伊(一)
▲同里 曹明波母 李彦照(七〇)
以上全部山崩壓死 行衛不明
▲茂朱面大車里 趙姓女(二二)
▲同里 李成春(二五) 母金姓女(五〇)
▲雪川面斗吉里 權致徹(一七)

마만것피해가 생긴지 행방호자 못우려중이다

死者一名 負傷者二十名 家屋倒壞十戶 同半壞五十餘戶 同流失二戶 家屋浸水十戶 田害十五萬圓 畓害六十萬圓 其他十五萬圓 合計九十萬圓

暴風雨의被害는 全南各學校에도

【光州】금번의 폭풍우로인하야 각방면으로 그피해가 만커니와 도한전남도내의 각학교피해도만허 죽재에 나타난것만은 려수공립보통학교(麗水普通學校)의교사가 도괴되엿스며 송정공립학교(松汀公學校)교사급 파사에 침수가되고 자동영성간이교(長興永成簡易校)등의 교사가 도괴되얏다는대 그외에도 피해는만대하다한다

一家三名死傷
暴雨에山이문허저

【青丹】황해도일대에도 련일 폭주하는 호우로 인하야 농작물의 만흔피해는물론 인명의 사망까지 잇다한다 이제 들은비에 의하건대 연백군 룡도면 청계리(延白郡龍道面淸溪里)삼백이십번지 리정우(李亭宇)집에서는 지난삼십일 오후열한시경 폭주하는 비로인하야 집뒤산이 문허저 격랑에 섞긴 진흙이 올면 벽을문허치고 방안에 가득차게되매 편히 잠들엇든 전긔 리정우의처 김봉호(金鳳浩)(三〇)는 떠밀리는 진흙에 못처 질식되여 죽사하고 기타 두명의 가족은 중상중이여 방금 치료중이라한다

再襲三襲의暴雨
全平野가水國化
五千餘罹災民의生路가漠然
善山郡下의水害續報

【善山】남조선일대를 웅습한며 종류의 폭풍우는 지난소화구년이상의 천상을입우어 경북선산군내의 피해도군내 각면의교통일제가 두절되여 상세히판명되지는못하엿스나 인명의 사상자도다수에 달하엿스며 귀미,고아,선산(善山,高牙,龜尾)삼면의대평야는 재유상답하는 수해로 망망대해로 화하평야는 연일폭우로 감수되지 아니하고 궁자그대로 대해로화하여 농작물은구할이상전멸의 참상을 보게되여 오천여의 주민은 일변피땀을흘려가면서 지은농사도 일조에대해로변하고 아프로 그들의생도가마연할뿐아니라 그중에도 가옥을유실한 다수이재민은 우선먹고입을것은 물론 몸담어지할집까지 일어버리고 초근목피로 거리거리에서 방황유리하는 참상은 실로눈물을 흠할수업는터이라고한다

農作物全滅狀態
義城郡西部一番

【安東】경북의성군 서부일대에는 금번들어 범서륙칠차의홍수로 일반농작물이 거개침수되여 오륙할의 감수를면치못하리라는중 더욱이 지난이십칠일 오후구시경부터 천고에보기드문 대폭풍우가 또다시습래하여 락동강과 위강이 대범람되얏는데밥수긔에든 도작과 일반농작물은 강아일대에만도 루천정보가량이나수확개무를 면치못하리라는바 전쟁지가튼 빈들판에 재민의호곡성만 창천중인데 상세한수자는방금조사중이라고한다

再三襲來한豪雨로
羅州平野또浸水
再三浸水로二千餘町步는全滅
榮山江水位六米로增

【光州】지난 이십칠일래의 폭풍우의 피해액도 아즉 조사가 끗나지못하고잇는동에 일일오후한시부터 또다시 폭우가 전남일대를 습래하야 어업새벽까지 폭주하얏는데 고흥(高興)군의 이백여십미리를 필두로 일백팔십미리내외로서 이일오전열시현재 영산강(榮山江)수위는 륙메-돌이 증수되여 라주평야(羅州平野)는 천오백여정보가 전멸상태이며 거번 폭풍우로 인하야 송려선(松麗線)의 불통이든것을 보선구원의 결사적복구로서 겨우 개통되려고하자 일일내의 풍우로인하야 보성,순천(寶城,順天)간이 또다시 불통되얏다한다。

그리고 담양(潭陽)군의 피해액만도 거번과 금번을 합하야 총피해액이 삼십여만원을 돌파하려라한다。

前夫所生慘殺
後夫敎唆라고

【大田】현재가티 사는남편에게 잘보이라고 전남편에게서 나은 아이를 죽인잔인한 어미-온양면신인리(溫陽面新仁里)한모의처 김성례(金成禮)(二七)는 지난사월에 딸을나엇슴에 불구하고 그남편을버리고 청주군 수강리(淸州水江里) 백(白)모에게 개가하얏다 그러나 전남편에게서 나흔어린아이을 현재남편이 항상 미워함으로 남편에게 잘보이라고지난달 이십일을 오후여섯시경 어린아이에게 정종먹이다가 것으로 핼피로를돌려 질식시켜죽사케하얏다 이정보를도로 당지경찰서에서는 전긔 김성례를검거하야다가 엄중 취조중이라고한다

黃海道에도
被害三千町步

【海州】황해도 일대에는 지난 이십칠일에 강한태풍(颱風)이부럿는데 이로인하야 농작물에대한 피해가 실로 적지안타한다

그피해상황은 방금 도농무과(農務課)에서 조사중으로 아직 진상이 판명되지아니하엿스나 밧(田)곡식의 피해는 더심한정도에이르럿스며 벼도 강풍에 이삭이 돌아 떠려저서 참담한 현상을 이루고잇다고한다

그리고 피해면적은 삼천여정보에 달하야 도내농촌에서는업친데 덥친격으로 한발피해에 태풍의피해까지 겸하야 자못 이심이불안하다고한다

南江九米突增水
鼎岩里一洞全滅
宜寧邑內에도百餘戶浸水
數十年來初有水亂

【宜寧】이십륙일부터 나리는 폭우에 락동강지류인 남강(洛東江支流南江)은 급시로 증수되여 각지와의 교통은 두절되엿든바 이십칠일 오후팔시부터 다시 폭풍우가 나려 각지와의 전신,전화까지 불통하게되고 남강은 구미돌십이나 증수되여 의녕면 정암리(宜寧面鼎岩里)는 전호수일백이호가 전부 수중에 침몰되엿스며 오백여이재민은 산상과 철교우에 피난하엿고 강에서 삼키로나 떠려진 의녕읍까지 침수되여 의녕면 동동(宜寧面東洞)전외시장(前外市場)은 일백삼십호중 백호가 상상(床上)에 침수되여 륙백이재민은 이곳저곳 노픈곳에서 야숙중이며 면당국에서 밥을 지어 구호중이다 금반수화는 의녕유사이래로 처음보는바이며 교통과 전신의 불통으로 피해의 상세한바는 알수업다한다

安康地方被害
九十萬圓程度

【安康】지난달이십칠일이래의터풍과폭우로 말미아마 안강지방은 고산은고도화하고옥야는 대해화하엿는데 아즉통신과 교통의 두절관계로 자세히알수는업스나지금판명된데에의하면 피해액은 대개 다음과가튼데 상금장마가 계속됨으로 금후라도업

農作物全滅狀態
二千災民彷徨
新灘津水害慘狀

【大田】금번미증유의 폭우로경부선신탄진(新灘津)부근에는 전답삼백팔십여정보가 침수매몰되야 전멸상태에빠저잇스며 그손해액은 실로만삼천원의 거액에 달한다 이것은 실로사십년래의 대홍수로 이재민오백호 이천여명의 전도는암담하다 전답의침수는 사오일을계속하야 발수커의배는 전연수확을 바랄수업스며 충남명산의수박(西瓜)야채(野菜)등이 전멸되야 외방으로 다액의 수출이잇든 신탄부두도 아주실망상태에 빠저잇다

◇水害畫報—
(上)榮州郡槽岩大提防決潰光景 (中)同昌津里三津部落의全滅慘景 (下)再潰된伊山面新岩里友軍堤防과 全洞浸沒의慘況

宜寧堤防全崩潰
三메-들남거고減水

【宜寧】지난팔월이십륙일오후열시부터 폭우가나려 이십칠일오전칠시경에 이르러 의녕남산천(宜寧南山川)은 삼메-돌이나증수되여 제방이 이십오메-돌이 붕괴중이라함은 긔보하엿거니와 당일오전팔시경에 나리든비가끄치고 남산천물이 일메-돌가량 감수되여 난을면하고 방괴공작에 성공하엿든바 다시동일오후팔시경에 폭풍우가이러나 풍세에 나무가너머지고 집이쓰러지며 간판과기와장이 날려떠러지는등 전등까지 정전되여 재작년일본내지 관서풍화(風禍)를련상할만한 암담한수라장을 이르켓스며 남산천의 물이다시 삼메-돌이나 증수되여 록천주민의 생명과 가재를보호하고잇든 널비삼메-돌 기러이키로반이나 되는 의녕제방이 이개처일백칠십메-돌이나 붕괴하기시작하야 수백군중은 어의방괴에 진력을 다하엿스나 창해일속으로 소둑업시 십일시경에는 넓이삼메-돌이상센치밧게 남지안헛슴으로 방괴하든군중도 이를단념하고위험지대의 주민을 학교에피란시켯든바 오전일시경에 이르러나리든비가 끄치고 감수되여 위긔일발의제에 난을면하엿든바일반가옥과 산림의피해가 막대한 모양이라한다

定州支局後援의
自轉車大會盛況

【定州】정주상무회주최 본보정주지국후원의 제이회전조선남녀자전거경기대회는 예정과가티지난달 이십구일에 정주공설운동장에서 백여선수의 참가리에개회하엿는데 장내에는 편군각처에서 모혀온 수만관중으로 성황을일우엇고 삼십일에는 비가오는관계로 삼십일일까지 연기하엿서 동일오후칠시에야 무사히 폐회하엿는데 입상자는 아래와갓다

一流決勝
一着朴成烈(沙里院) 二着許一在(定州) 三着金銀燮(新義州) 四着張基奭(烏致院)
二流決勝
一着劉實淳(平壤) 二着白一男(平壤) 三着金寬河(定州)
三流決勝
一着金承鉉(平壤) 二着韓仁成(平壤) 三着田廻成(平壤)
꼬스라-決勝
一着韓殷(定州) 二着崔龍欽(批峴) 三着金敎鉉(定州)
女流決勝
一着韓春化(定州) 二着許千惠仙(定州) 三着車致姬(定州)
郡市對抗決勝
一着沙里院 二着定州 三着新義州

六年間亡命中의
李秉吉逐被逮

【元山】조선어엽업의 리조화(李鍾林)과 관계하엿다는 원산부명석동 리병길(李秉吉)(三〇)은 화개변간이나 경찰의눈을 피하야 (安邊昭和鑛山)에서 변성명으로 일하고잇는중 원산을 몰입이잇서서와다가 그와가티 붓잡힌것이라고한다

激浪에휩쓸리여
漁夫八名이失踪
新浦,三湖等地엔棧橋破損不少
咸南道沿岸의被害

【咸興】지난 어선출업에 한하연안을 엄습한 폭풍은 상당한흉심한 피해를 주엇다고하는데 삼십일일까지 도수산과에 들어온 보고를 보면 신포(新浦)항에서는 청어연승선(鯖魚延繩船)일척이 승조원여덟명을 태우고 출어(出漁)한채로 행방불명이 되엇스며 동항내에 계류(繫留)하고잇든 어선세척이 파괴되엿다 그리고 신포(新浦)항에서는 잔교(棧橋)이개소 삼호(三湖)에서 일개소가 파괴되엇스며 홍원전진항(前津港)에는 동항으로 주가사호가 침수(浸水)되얏다고한다

古典藝術의重要材料
탈춤의保存運動
鳳山郡主催로公演

【沙里院】조선 고유 무도예술(舞蹈藝術)의 하나로 전조선에 이름이 노픈 봉산탈춤(假舞)은 만근 조선의 고전음악의 예술의 쇠퇴와 함께 한해 두해를 거듭할수록 그거룩자가 살어저가는 운명에잇서 여긔에뜻잇는사람은 가석히 녀기지 안흘수업는바 봉산군과 사리원읍 당국은 어번 사리원에긔조합련성식을 긔회하야 실낫가티 남어잇는 탈춤을 역사적사료(史料)로서 보존코저 지난삼십일 선무대회(舞大會)를 경암루(景岩樓)아래 광장(廣場)에서개최하엿다 총독부에서는 이탈춤에대한시대적반영(時代的反映)유래(由來)변천(變遷)을 계통잇게 조사하기위하야 문서과(文書課)에서촌산(村山)진촌(津村) 오(吳)촉탁(囑託)외오륙명이 내려와서 실지구경을하는일방 조사를하엿고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서도 긔사를독파하야 주간보도히 사진촬영(寫眞撮影)을하고야 갓은 탈춤과 봉산의 민요(民謠)를 전조선에 엇서 전에 업는 아 사리원에 중계 방송 하「스록크홀놈」대학교수 베루크만박사가 봉산의 설무와 민요를 연구코저 일부러 총독부원들과 가티 사리원에와서 실지설무를 구경하엿다한다

價格裁決申請
咸慈線道路用地
知事의裁決如何를注目

【咸興】장진강 수전회사에서 공사를 하게된 함자선(咸慈線)이등도로의 하갈(下碣)사수(泗水)간 약이십리가량의 용지매수는 금년봄부터 수차지주와 교섭을 하다가 결국리덕모(李德模)등이 십사명의 승락을 엇지못하고도지수용령 적용을 전제로하는긔업인가(起業認可)신청까지 하야 칠월오일부로 인가까지 내렷든바 그후에 회사에서는 수용령 적용을 압둔 최후적교섭을 하여보앗든바 그것도 하등효과를 보지못하고 근일중 함남도지사에게 지가재결(地價裁決)신청을 하게되엿다고한다

그런데 이바대지주 이십사명은 모다 대지주들로서 그들은 방금 회사에서 매수교섭을 시작하고잇는 제어저수지(貯水池)용지의소유대지주들로서 만일 이번 함자선(咸慈線)도로용지의 매수가격이 결정되면 이것이곳저수지용지의매수가격으로 결정되는것이 어김업다고하야 그와가티 극히강경히 버티고 잇는것등이런점으로서 어번도지사가 어떠케그지까를 재결할는지가 극도로주목되고잇다。

大同消組에서도
救濟金募集活動
地域別委員을選定

【大阪】대판재주동포들이 각구에서 조선내 수해리재동포구제금품모집운동이 이러낫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시내서정천구 하해론강정에잇는 대동소비조합(市內西淀川區下海老江町 大同消費組合)에서는 지난이십륙일밤칠시부터 동조합사무실에서 김경중(金敬中)씨사회하에 긴급리사회를열고 금번조선내 수재구제대책에 대하야 난상토의한후 좌긔와여히 지역적으로 구제금품수집위원을 선정하야 래구월이십일내로 적극적모집하기로 하엿스며 동조합에서는 수재구제에 대한 뉴쓰오천매를 발행하야 재주동포의 거주부락에 산포하기로하고 모집한금품은 본보를통하여서 리재지에 즉접보내기로 하엿다고한다

下海老江方面-金榮柱 李榮沈 京得 愼鎬燮
大開町方面-吳照台 宋秉緖
上海老江方面-姜泰均 李石地
浦江、大仁方面-金建五 金福述 金文圭
十三、野里方面-韓相昇 韓忠吉 宋七濂
三國方面-崔炳順 李鶴奉
山口、南方方面-沈昌鎭 申敬得

熙川標榜强盜
北鎭에서逮捕

【新義州】지난이십팔일밤 열시경 희천군남면송곶동(熙川郡南面宋串洞)팔백오십구번지 김삼룡(金三龍)(四九)방에 침입하야 중국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려온 조선○○단인데 현금을 내이라고 협박음흉으로 현금이업다고 대답하엿든바 무수라다를한후 안방으로부터 삼룡의아버지인 김순보(金順甫)를 문외로 다려고나와 전긔와가튼 수단으로 협박을하야 현금 사원팔십전을 강탈도주한 범인은 지난 삼십일일 북진서원이 체포하얏는데 범인은

雲山郡北鎭面鎭洞一六八 金龍洙(二二)로 취조한결과 금번초산군중면(楚山郡中面)에 이러난 강도사건도 동범인으로 판명되엿다한다

魔의洛東江沿岸
死線의災民을차저서
보이는것 들리는것 모도가눈물뿐
本社救助船上에서 鄭永謨手記 (一)

락동강 칠백리의 수백만리재민의 눈물과 한숨을섞근 마(魔)의강 락동의탁수는 동여시 구비처흐른다 구월이엽 오전열시 이번대수해이후에 처음떠나는 구호선 동강환(東江丸)은 떠남다

락동강의 하류 구포에서 본사제일선편이다 부산에서 추려의로 운반한 쌀과옷 식료품、약품들을 준비하야가지고 락동강연안의 소식이 두절된 수해지로향하야 출발하엿다 얼굴는 오늘도 호려 몽솔비는 떠붓고잇다 우리의 구조반 일행의사명은 결사적으로 위험을무릅쓰고 거즈른 황토물결을헤치며 상류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살이세여서 사십마력의 발동긔도 이리휩쓸리고 저리휩쓸려 좀처럼올라가지를아니한다 연안의 리재민들은 오래간만에 발동긔의 소래를듯고 반가히 뛰여나와 마스도에 놈히날긴기는 본사긔를보고 감격의소래를지르며 두손을들어 환영의동을 표한은 오직 눈물겨운현상이엿다 처처에무너진 사태는 표사 전신에 화상(火傷)을당한 병자를 련상케하며 폭풍우로 문허진 철도선로의 제방을 옹보수리한수십개소의 가마니의 모래푸대는 직어맨 걸인의 누더이옷을 보는듯 수해의참상을 말하고잇다 상류에서 문실린 가장즙물과 가축등이 수업시 떠나려와 배의운행을 방해할도 참아보지못할참상이며 피와땀으로 지은연안수백정보의 전답을 덥흔탁수는 리재동포의한숨과 원한으로 무섭게잠겨잇다 구포를떠난지네시간만에 김해상동(上東)을거처 생림면(生林面)에다다러 일천십백명의 리재민을찻고저 닷줄노앗다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新設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右新任
新浦支局 北靑分局長 李 眞 衡
右新任
茂山支局 ○○分局長 ○ ○ ○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瀛浦支局
位置 平北瀛浦面
支局長 金 永 瑞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金泉支局
位置 金泉郡邑內
右任支局長 宋 在 洙
支局長 安 思 基
右解任

廣州支局
位置 廣州郡邑內
右任支局長 鄭 明 敎
支局長 鄭 寅 敎
右依願解任

殷栗支局
位置 殷栗郡邑內
右任支局長 李 基 昉
支局長 洪 太 模
右解任

謹告

論山支局
連山分局長 尹 華 重
右新任

長城支局
珍原分局長 金 權
右新任

南海支局
記者 李 燦 善
右新任

河東支局
記者 鄭 燦 永
辰橋分局長 鄭 潤 柱
右解任

春川支局
記者 金 極 榮
右新任

鐵原支局
電話 一四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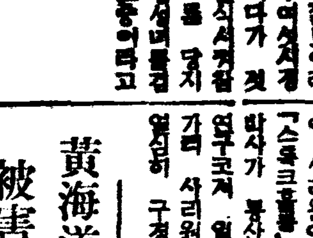
殷栗支局
記者 金 相 謙
右新任

南川支局
總務兼記者 鄭 元 模
寫眞班記者 李 範 在
右依願解任

沈村分局
總務兼記者 李 完 永
右新任

石岩支局
記者 韓 泰 淳
右新任

把撥分局
記者 鄭 龍 達



愛慾의彼岸
【91】
李光洙 作
金康穆 畫

그러나 오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강선생의 그림자는 혜련에게는 이저버려진 긔억이엇다。그러나 그 이저버려진긔억은 오늘 아침에 새로운 빗과 열을 가지고 부활하엿다。

『내가 왜 좀더 선생님을 붓들지아니하엿슬까』

하고 혜련은 다릿 난간에서몸을 이르켜서 강선생이 숨어저버린 뎌원쪽을 바라보앗다。

이날 종일 강선생의 그림자는 혜련의 속에 파고들어서떠나지를 아니하엿다。강선생이야말로 혜련이가 무의식중에 그리워하고 차즈랴고 하든『그인』인것만 가탓다。

『나를 차자오신 그대
말엇시 가셧네。
그 눈이 던진 암호를
못 푸는 내 심사여』

혜련은 강선생의 목자의 노래를흉내내어서 이러케 생각해보앗다。혜련은 강선생이 저를 차자올 때의 심사와 저를 보고갈 때의 심사를 알고시펏다。

『그러타。그 목자의 노래는 강선생이 내게 보내시는 편지다!』

혜련은 바닷가에 안저서 이러케도 생각해보앗다。혜련은 강선생에게 대해서 억제할수업는 그리움을 느꼇다。

『내가 사람을 이다지 그리워해본 일도 잇나』

혜련은 속으로 이러케 생각해보앗다。

『오늘은 웬 일야? 혜련이가 무얼 그리 생각만 허구 잇서어』

하고 문임이 저진 몸을 가지고 혜련의 겨테 와 안즈면서,

『무슨 걱정이 잇서?』

하고 근심스러운듯이 뭇는다。

『아니』

하고 혜련은 고개를 흔들엇다。

『저 보아요。주상씨가 사진 허가를 마라왓스니 혜련이 사진을 한번 박앗스면 조켓다구』

하고 문임이가 눈짓으로 한편을 가리친다。문임이가 가리치는방향에는 과연 주상이가 사진긔계를 들고 이쪽을 바라보고 서잇섯다。

『사진은』

하고、혜련은 고개를 흔든다。

『한번 박혀。그처럼 그이가 애를 쓰니。』

하고 문임은 팔시구비로 혜련의 엽구리를 잠깐건드린다。

『아주 다들 야단야』

하고 문임은 손으로 바다에 오글오글하는 사람들을 가라치면서、

『저긔 머스 원산 게시다。미스 코리아 게시다、하고 남자들이 혜련을 보고들 야단야。오늘은 또 혜련이가 무슨 생각만 하고 가만히 안젓는양이 조타고──』

할 때에 김장로가 바다에서 나온다。

김장로가 나오는것을 보고 준상이가 가까이 걸어와서、

『사진 하나 박히게해주세요、세분이。』 ○ ○는지 모릅니다마

나치스公債政策

金融的背景內容

나치스의財政政策은 目下 두가지의重大任務가 잇다 即첫재는 그五十億馬克에 達하는 勞働供與手形으로因한先高金融의 整理이다 둘재는、軍需品調達의金融이다。

×

第二次의일은三菱으로써 크는 나치스政府의勞働供與手形이 大體昨春에 一段落을 告하야 政府는 곳 그先高金融의 整理에 着手하엿는데 整理의 內容은 勿論 勞働供與手形의 長期國債로의 借換이엿다 그러나 整理는 勞働供與手形에 限치안코 大藏省證券도 그中에 包含하엿다 나치스執政最初의 二個年에는 長期公債의 發行은 不可能하야 財政上의 赤字는 모두 大藏省證券等을 短期公債로 제우지안흘수업섯고 이大藏省證券이 勞働供與手形과 한가지로 整理의 對象으로 되엇든것이다。

×

그러면 整理公債의 發行과 同時에 一面 再軍備로因한金融을 아니할수업섯고 再軍備金融은 지금까지 短期金融形式을 取하엿다 이것이 大藏省證券으로 하거나 勞働供與의形式과가티 手形의形式을 取함을 不問하고 어떠튼지 短期로되어잇서 本質上 相異가 업다 國債는 短期手形과 再軍備金融의 兩者가 不可避한 金融이 아니면 안되엇다 이에 잇서 나치스財政當局의 困難은 ...

白蔘販賣統制

仲買中間搾取排除

從來個人取引으로갑을까것다

二百萬圓會社創立

開城人蔘販賣株式會社創立을 計畫하고 白蔘의 統制하리라는데 對하야 在來의通信販賣業者들은 「人蔘販賣를 우리손에서 뺏기면 못산다」는 主張下에 新會社로부터 一

榛居專賣局長談

題에對하야 榛居專賣局長은 三日午前 記者團과의 定例會見에서 如左히말하얏다。

白蔘은 從來個人間의 取引이 엇던關係로 仲買人에게 價格을맛기어 甘汁은 仲買人에게 吸取되엇슴으로 今回資本二百萬圓(四分一拂込)의會社를 創立하야 白蔘販賣의 統制를 圖하기로 되엿는데 會社의 名稱은 開城人蔘販賣株式會社라고 命名하고 近間實現되리라고思한다

無水酒精專賣

朝鮮서도實施

無水알콜專賣에 就하야서는 總히 調査計畫을 樹立하고 提出해두엇는데 이에對하야서는 아즉何等의 말이업다 朝鮮에서無水알콜專賣는 하지안코 石炭液化等에 進한다는 說도잇스나朝鮮獨自의 立場으로서도 傍觀的으로 잇슬수는업다 더구나國策으로서 새로운 分野에就하야서나 또燃料國策으로서나 强制的實施하는點으로서나 朝鮮에서도 專賣制度를 取치안흘수 업다(榛居專賣局長談)

手販賣코저 豫想하는中인一方 人蔘紹介業者及 換錢居間等三百餘名은 東手無策으로 失業케되어 各方面으로 開城經濟界에 重大問題가되어잇는데 이白蔘統制問

鮮滿拓殖創立

九日總會를開催

創立準備中의 鮮滿拓殖會社는 九日午前十時부터 銀行集會所에서 創立總會를 열리인데 十三日에는 同社의 滿洲側姊妹會社인 滿鮮拓殖股份公司(資本金一千五百萬圓半額拂込)의創立總會를 新京에서 열기로되엇고 이로因하야 目下入京中의 二宮治重氏以下

風水害影響

採鹽減少

專賣局의 今年度의採鹽狀況은 過般來의 風水害로 幾分의減收를招來하얏스나 今後의 秋期天氣如何에依하야서는 今年度의豫定高 二億三百萬瓩에 達할러이오 八月三十一日까지에는 豫定의八割二分이採鹽되고 八月末까지의豫定採鹽額七千九百六十八萬六千瓩에 對하야서는 九割三分인 一億六千五百七十一萬四千瓩를 採鹽하얏슴으로 現在로는七分八厘의減收라한다

不二農場全滅

不二興業에서는 南朝鮮의 風水害被害를 調査키爲하야 三井專務와 辻事業主任이 現地에出張하야群山調査中인데 群山農場(千拓地)沃溝農場(臨坡、全北農場)은 浸水하엿다가 倒伏折損하야 收穫은 絕望이라하며 이結果 同社今年度의收穫은 一、二割의減收를 免치못하리라한다

朝運被害甚大

朝運社의 調査에 依한 朝鮮運送의被害狀況은 如左하다

▲全羅南北—貨物의被害稍微

▲慶尙南北—同上

▲群山支店—貨物의流出이잇는外는 貨物被害업다

▲釜山支店—釜山鎭의倉庫事務所浸水二尺에達하나荷主의諒解를得하야荷拂

▲全州支店—被害가相當하나 詳細不明

▲馬山支店—倉庫保管貨物의流失被害相當多大

▲順天支店—貨物流失僅少

▲麗水支店—被害最甚하야 岩鐵道倉庫의二棟 破壞保管貨物年全部流失被害額數萬圓豫想

▲三陟出張所—被害甚大하야交通杜絕詳細不明

▲咸安營業所—保管貨物全部流失被害甚大

米倉在庫米數量

米倉會社의 一日現在 在米高는 五十六萬二百四十四石으로 前旬에比하야 十二萬八十四百九十石增加 前月에 比하야 二十九萬五千三百九十八石의 減少이다(以下單位石)

釜山	一九二、五二六
馬山	八、七〇三

重要商品界事情

人絹統制規約

修正案이成立

人絹會에서는 지난七月卅一日大阪호텔에서 大會社對中小會社의對立紛糾로 七理事會社總辭職으로 因한時局對策委員會를 열고 問題의 現行統制規約改正의 最先에對하야 協議한結果 懸案이 相當히 잇섯스나 結局意見案의一致點에 到達하야 다옴과가티 修正骨子案을 作成하엿스므로 三日午後一時부터 新大阪호텔에서臨時總會를 열고 附議하야 承認을 求키로 되엿다고 한다

◇

(一)統制規約의 하나인 現行增錘制限案의 修正은 그複雜性과 影響을 考慮하야 現狀대로함

(二)一般換短規約을 變更하야 十先操短規約에는 現行一萬錘以下의 會社에는 三千錘를 一萬五千錘에서 控除、錘數三千錘를 三千五百錘로함。

◇

그래서 右案에 依하면 一社의 五百錘擴短控除分增加에 하는事實上의 運轉增加錘는 三割二分五厘의 換短率에서 算出하야 百六十二錘에 該當하므로 十月末一萬五千錘以下의會社十三社로잡고 約二千錘의 增加일것이라고하며 中小會社의 修正要求를 容認한 이번의 修正은 增產의點에는 別로 影響이 업슬것이라고하며 이程度로 雙方의面目을 세워 妥協되지안흘가 보는데 果然圓滿히 解決할는지 注目되고 잇다

......

이번水害를보고

農業保險提唱

各方面에서急務라고

今次의洪水禍는 朝鮮의農業保險問題에의認識을更新케하야 各方面에 農業保險의急務가提唱되는데 實際問題로서의 同制度着手는대단한決意와充分한 準備가必要한듯하다 卽가령이것을 災害保險으로하드래도 罹災率이極히高함으로 保險業이採算不能이오 實現되드래도 累年發生하는被害地를 保險對照로하기困難하고 保險料率算定 或은保險金額과如한 도基點의發見이困難하야 實現할수잇다면 國營에依하는外에 업다

이에代할것으로서는 農業者自體의共濟制度로서 農業者의協同經營、乃至 農會等이 相當히効果的으로 動할時는 이共濟制度는 相當히可能性이잇고 農業保險으로서 具體化할수잇는것은 共濟制度以外에업는듯하다

麗水	四、三三七
木浦	八三、三三三
群山	一一八、五三三
江景	七、四二一
仁川	一四五、六三一
鎭南浦	六一、五六三
元山	一、二一七

米日爲替市勢

〔三日〕 米日爲替는 二日의 買廿九弗四十六仙(發同盟)

▲東京爲替(三日)

對米	賣	廿九弗十六分七
	買	廿九弗二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卅二分一
	買	一志二片十六分一

土性調査할方針

主要耕地에對하야

今朝鮮主要耕地百六十萬町步에對하야 그土壤의 化學的成分을明白히하고 適應作物과 施肥合理化를 計劃할土性調査는 九月中旬부터 着手키로되엇는데 그施業方針은 如左하야 朝鮮內農業收益上 直時有効適切한 効果가期待된다한다

一、各道의 不良土壤을 調査하고 適應作物、施肥에依한 土壤改良등을 調査하야 이에依하야 不良土壤은 有利化하야 有利化함

一、收穫의 相對的減收인地、施肥의不合理地區를調査하야 그不合理를 是正하고 單位收量增大의 方途를明白히함

一、이調査施行에는 各道의農事情을參酌하고 米、棉等의主要作物耕地뿐아니라 工業用特用作物、果樹地帶에도 施行하야 多角營農을促進함

經濟界消息

○全朝鮮銀行業者大會開催＝第八回全朝鮮銀行業者大會는 十月九日 釜山에서 열기로되엇다고

○滿洲畜産視察＝滿洲國鐵路總局

鰮粕減收

三菱이苦境

今年度鰮漁는 全般的 寡漁로鰮粕은 前年百八十萬俵에 比하야 百二、三十萬俵의 豫想이다그結果 三菱의 委託販賣는 必然的으로 減少할것은 거의確實한바 一面 三菱에서는 이미大量으로 팔고잇스므로 困難한 立場에잇다고한다 그러고今年四月로부터 八月末까지의 直賣는 六萬九千俵로三菱의 委託販賣는 三十九萬九千俵이라고

鰮粕販賣減少

八月末現在 朝鮮產鰮粕의販賣數量은 三菱委託分三十九萬九千俵로合計四十六萬八千俵에 達하는바 前年三菱의一手販賣에 比하야 四割減少이라고

新重役은 十日 京城發 渡滿豫定이라고

取引停止

〔八月三十一日〕▲京畿道抱川郡西面新邑里四三番地 京抱貨物自動車合資會社代表社員李壽鎬▲京城府藁井町六六番地 李仁淳 ▲穀物商京城府阿峴町一丁目一番地梁好煥 ▲京城府瑞麟町三〇番地李信求▲京城府義州通一丁目三三番地合會社市東組代表社員 市東邦三

經濟寸鐵

○白蔘販賣統制問題로 開城經濟界에 大旋風

○專賣局長 말은 仲買人들이 生産者로부터 中間搾取를 해왓던것이 事實이라고

○新販賣會社에서 利益 것은 不問可知나 生産者로서는 이것이 나올것

○生産者로서는 反對인 問題는 仲買、中小商人들

○往年 全南棉花買入札이 定價로 競合과 가튼 經濟界不況이 나을진?

○數百名을 爲해서는 슬아리일이나 生産者와 一般需要者를 爲해서는 不得已할일이라 해둘가

投資減少

(第二表) 投資減少表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 赤字公債의 條件待로 依然히 오 大藏省證券이며 內債는 紅付同樣으로 保合에 終하얏다 外債는 利紙國債良好 ...

大阪國債市勢

二日四分 佛貨四分 ...

今日財界(三日)

[illegible]

株式 高價警戒 伸惱

商況〔三日〕

前場上進

昨日一息인 前場은 買氣再起하야 諸株上進이잇스나 即昨後引에比하야 東新七十錢高인 百二十七圓五十錢、日產六十錢高인 八十二圓二十錢、朝取七十六圓五十錢、拓新二十錢高인 二十五圓十錢、日產四十錢高인 七十圓四十錢에 各大引되고 鐘新百六十四圓八十錢으로 五圓丁、大新六十八圓六十錢、日產新二十八圓六十錢이엇섯다

後場反軟

後場은 東新이 百二十七圓九十錢 新高値日產八十二圓四十錢朝新三十二圓五十錢에 買人氣로 寄付後高價警戒로 伸惱反軟되다

投機心의挑發

興奮狀態發散?

何如間 事業株가 一般的으로 昂騰되엇슴으로 仕手의 實力充實과 投資 投機心의 挑發은 相當하것이 잇서서 興奮狀態는 어드되지 이意味에서 事業株高와 共히 東新도 再逢春의 恢復이잇슬것으로 百三十圓이 永無하리라던 人氣의 反對가 나올것갓다

時局株買限度

時局株라할지라도 工業株에는 利廻의 限度가잇다 增資라는데 着目치안코 自미를볼수업서 流行의中心的으로 日石、新鐘、製糖、軍需株其他의 物色買도모다 拂込이라거나 增資를 狙코잇는데 特色이잇다

增稅決定時가

東新大反騰時期

事業株는增資 新株權利를 狙하는것이 기것으로 目前的으로 熱狂的市勢를 豫想할수업서 高價飛付買가 警戒될터이나 잘아리 산다면 東新에손을대는것이 조흐리라는말이잇다 그理由는 東新에 新規로 買材料가 發生한것이아니나 從來東新을 脅威하든問題는 모다 杞憂에 不過한것이 判明케되엇다 남은 最大의問題는 增稅이나 이것도 오래동안의 賣人氣에 依하야 市勢에 織込되엇슴은 東新値頃이 示하잇는터로 增稅決定時가 곡 東新大反動高時期라 할수잇다

그러므로 買人氣가 지나치게 株보다 今後는 東新時代로 打診되다

東新逆日步一圓

未曾有의大不足

昨日은 株不足五千으로 無日步이던 東新은 今日은株不足七千五百七十으로 逆日步一圓이엇다 全國的株不足이 京城에도 深刻히나타난것으로바 取組高는 一萬四千八百이며 如新한大量渡株不足은 朝取市場開設以來의 新記錄인바 買方大原店이 一時에渡株를 要求한때문이라한다

實物前場取引

▲大同產業 三〇〇▲北鮮太石油 三五〇▲電氣化學 六〇〇▲東京人絹 三八〇▲京南鐵道 三六〇▲朝鮮製鐵 三六〇▲昭和

市場六感

㊑……當地東新渡株는未曾有의大不足 逆日步一圓으로 大阪보다上稍貫하야 今前場에百二十七圓六十錢 再昨後場高價와同價▲新甫에上放되 市勢가 다시 沈靜이나 大勢는 好轉되더이나 押目買一貫而已▲朝取引員들의 地株特히 朝新培養의마음이업는것이遺憾▲마바라나有力仕手를 勿論하고買付식히어 노코는내리두들기機會만엿하니 딱하다고▲이傳統的惡弊를버리라고 希望하는소리가잇다

㊎……今朝上海南東方海上에잇든颱風은 進路를北으로 進行中그勢力이 激弱하야 別被害가업스리라고하다 그러나通過後에야 被害程度를 可知▲阪仁의稍는 反히百九十餘丁으로縮少하엿다 阪地買仁川賣의取消側도 狼狽로군▲그러나二百丁未滿의縮少는 更히縮少할餘地가업는만큼 取稍側은이로부터 策動할時機▲問題의携下는嚴格的으로 實施할것임으로茶結不安은 結局解消?買方針만을固執하다는것 難問

期米 颱風無慮 反落

前場反弛

昨後場阪地三十二圓〇一錢에 場을止한것이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二圓一丁인 三丁反落을擴하고 三十圓〇六錢인五節九十五錢으로 九十六錢에止揚하엿다가 九十九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低落

後場은三十圓〇二錢에二丁高로始後 二節〇三錢이엇스나 阪地低에伴하야 二十九圓九十二錢에低落止揚하다

颱風無難通過

市勢幾分頭重

去一日의二百十日은 日本內地는 無難通過되엇스나 南朝鮮의豪雨襲來로하야 水害를가듭하든同地方의被害가 不無한것이라는臆測의買物이現하고 急하야 南洋方面의颱風이 도어떠한作戰을할지몰르는만큼 더욱買氣를助長하야 約三十九의颱風이 比較的微弱하야中心示度七百四十六「미리」와每時間進行速力二十「키로」로 今朝上海南東方에잇서 北方으로進行中인데 今夜濟州島를거처 朝鮮海峽으로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丸仁管內稻作

一割程度減?

今年의 全朝鮮에亘한 稻作狀況은 去月十五日現在로 旣히發表되바도 잇거니와 其後의天候가不良하야 얼마콤 더減收될것이 은確實이다 三南地方은 一時豊作을 전하든 三南地方은 再度風水害로를 이려 凶作을豫想하게되엇스며 中部以北도 去月二十五日 以來의降雨로 또한被害가 不少한모양이다 그런데 今朝丸仁管內의稻作狀況을 調査한바에 依하면 京仁地方은 旱害와 水害가 第一尤甚하고 水原及 天安、牙山方面은 안저서 所聞한바와는 稍히 良好한便이오 忠北地方은旱魃로 補付遲延되만큼의 被害가 업지아니하니 그러나 昨年度의植付後의 旱害보다은 오히려良好한편으로 各坊谷에따라 五分乃至 一割의 減少밧게 아니되리라고한다 何如間 丸仁管內의 作況은 四、五年來의 豊作이엿스나 今年은 凶作을免키難한狀態이다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 颱風念慮解消와共히期近의勝勢一息이오 地場의賣浴으로 台側賣崩하고 此殘波氣含의 商狀이엇다

今朝主要賣買

賣方＝中谷 地場軟派 神戶側

買方＝朝鮮側 台灣側 地場强氣

各地正米

京城續騰

實物拂底로所持의態度가 去益强하고 市況은更히十錢續騰이엇다 ㊂三等三一、七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三三、〇〇

仁川堅調

期米軟調이나水害被害甚大豫想으로 賣方의强張에伴하야 市勢가 漸次高를 不敗하고도十錢高唱이엇다 ㊂三等三一、七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三三、八〇

釜山焦付

精米側의必需에 應한 買物이散見될뿐으로 市況이利立지안흐나 賣物薄으로 市勢는焦付狀態로 不動이엇다 ㊂三等三一、七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三三、八〇

大邱反撥

挽下米의比較的好賣行과 產地出廻一巡으로 人氣少强이오 期米不勢를不拘하고 十五錢反撥을告하얏다 ㊂三等三一、二五 四等三〇、九五 一等白米三三、四五

群山不味

續騰하야 市場과 期米의鈍調를移하야 市勢는 昨日보다十錢低唱이엇다 日本內地人注一 ㊂三等三一、八五 四等三一、七〇 一等白米三四、〇〇

木浦底堅

定期不勢이나마 作況念慮로 低價買狙로 買物이潛在하고 所持는容易히 賣치안허 氣配十錢高唱이엇다 ㊂三等三一、一〇 四等三〇、八〇 一等白米三三、〇〇

懸賞

廣告圖案懸賞募集

當店에서 左記要領에依하야 廣告圖案을懸賞募集함

一、廣告의種類 東取引所의米豆定期에關한 新聞廣告로서 十三段新聞一段(二十六分幅)內外의圖案으로 하되色彩는黑白에限함(但ボカシ는自由)

二、廣告圖案에表現될要項 期米、株、米豆定期 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等을主題로하되 特히 當店의 特長을 表現할것 (圖案中文句는 自由)

三、募集期限 昭和十一年九月十日까지 最終日의消印이 잇는것은 有効로함

四、懸賞額 一等五十圓一人、二等二十圓一人、三等金十圓一人(應募者의 作品은 返却치 아니함)

五、發表 昭和十一年九月廿五日以後에 當店廣告欄에 發表함

仁川府海岸町三丁目 朝鮮取引所米豆取引員

兼 趙俊鎬取引店

東益夏商店 米 株 仁川 京城 金益証券

株式〔三日〕

◆朝取短期◆ ◆朝取短期實賣高◆ ◆東京短期◆ ◆東京現株◆ ◆大阪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取組◆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三日〕

◆朝取期米◆ ◆大阪期米◆ ◆木浦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大邱期米◆ ◆東京期米◆ ◆朝取期米實賣高◆ ◆大阪正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金融〔三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豆〔三日〕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各地正米◆

[illegible]

商品〔三日〕

◆京城絲糸布市勢◆ ◆京城絹布◆ ◆京城油脂◆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大阪絹糸◆ ◆大阪綿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紐育棉花◆ ◆孟買棉花◆

[illegible]